

# 『脈經』卷第七 溫·灸·刺·水·火法の 適應證과 熱病의 豫後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sup>2</sup>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권미자<sup>1, 3</sup> · 두자성<sup>1, 3</sup> · 안준모<sup>1, 3</sup> · 정현영<sup>1, 3</sup> · 금경수<sup>1, 2, 3\*</sup> · 박 경<sup>1</sup>

## A Study on the Indications for Various Types of Physical Procedures and the Prognoses for Fevers in 『Maekgyeong(脈經)』 Vol.VII

Kwon Mi-ja<sup>1, 3</sup> · Du Ja-sung<sup>1, 3</sup> · Ahn Jun-mo<sup>1, 3</sup> · Jeong Heon-young<sup>1, 3</sup> ·  
Keum Kyung-soo<sup>1, 2, 3\*</sup> · Park Kyung<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professional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thesis make a study on the sixteen chapters from 9 to 24 of 『Maekgyeong(脈經)』 Vol.VII. In this volume indications for several curative procedures, especially physical procedures, prognoses for fevers and symptoms hard to cure such as Eumyanggyo(陰陽交) are reviewed by Wang(王). The physical procedures include acupuncture, moxibustion, hydrotherapy, thermotherapy etc.

The contents mainly quoted from 『Sanghallon(傷寒論)』, 『Geumgweoryak(金匱要略)』, 『Yeongchu(靈樞)』 and 『Somun(素問)』.

**Key Words** : Maekgyeong(脈經), acupuncture, moxibustion, hydrotherapy, thermotherapy

## I. 序 論

本 論文은 『脈經』 第七卷의 第9篇부터 24篇까지를 研究한 것이다. 해당 篇들의 내용은 크게 溫灸刺·水·火法の 禁忌證과 適應證에 대한 부분과, 熱病의 豫後에 관한 부분, 그리고 陰陽交 등의 難治證을 다루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九篇은 溫法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脈證을, 十篇과 十一篇은 灸法の 適應證과 禁忌證을, 十二篇과 十三篇은 針法の

\* 교신저자: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E-mail : kskeum@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08년 8월 29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適應證과 禁忌證을, 十四篇과 十五篇은 水法の의 適應證과 禁忌證을, 十六篇과 十七篇은 火法の의 適應證과 禁忌證에 대하여 논하였다. 十八篇은 陰陽交少陰證 厥逆·陰陽竭盡의 病因病機, 辨證要點과 豫後에 대하여, 十九篇은 重實·重虛의 脈證과 治療 그리고 陰陽相附의 證候와 豫後에 대해서 논하였다. 二十篇에서 二十四篇까지는 熱病의 豫後에 대해 논하였다.

위의 各篇들은 주로 『仲景傷寒論』, 『金匱要略』, 『靈樞』, 『素問』에서 拔萃引用 되었다.

外治法은 臨床應用範圍가 넓어 外부의 질병뿐만 아니라 內科疾病도 治療할 수 있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醫學의 外治法에 관한 研究나 臨床活用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形편이다. 다른 모든 治療법처럼 外治法 역시 환자의 脈證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목적하는 治療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元氣損傷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古代臨床에서 사용된 여러 外治法의 禁忌證과 適應證을 『脈經』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韓醫學의 外治法의 研究를 위한 文獻의 根據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結論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1. 本 研究의 原文은 『影宋版<sup>25)</sup>何大任本』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用하였다.

24) 廖育群 等.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3. p783. “中國 최초로 外治法을 系統적으로 總結하여 外治專門書 『理論辨文』을 완성한 吳尙先은 外治가 포괄하는 병이 광범하고, 施術로 거두는 효과가 분명한 반면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25) 嚴詳燮. 脈經卷之九 婦人小兒脈法에 대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2. p.6. “1217년에 간행된 何大任本은 비록 없어졌지만 何大任本 계통의 影印本이 세 종류가 전해지는데 그 中 하나로 陵心源의 韻宋樓에 소장되었던 것이 뒤에 日本으로 들어가서 지금에 이른다.”

2. 懸吐는 傳來의 方法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한 篇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내용을 나누어 章名을 붙였다.
4.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였으며, 俗字는 校勘을 省略하였다.
5.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으며, 玉篇, 字典, 辭典 등에서 引用한 註釋은 考察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公認된 내용이므로 脚注를 省略하였다.
6.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로 校勘에는 ‘), 註釋에는 ‘(’, 引用文獻에는 ‘『』’, 引用篇과 論文에는 ‘「」’로 表示하였다.
7. 原文에 나오는 處方은 臨床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의 內容을 引用하였다.

## III. 研究內容

### 病可溫證 第九

(溫法을 쓰는 病證 第9)

【原文】

大法은 冬에 宜溫熱藥及灸라

師曰 病發熱頭痛이나 脈反沈<sup>(1)</sup>하고 若不差하여 身體更<sup>(2)</sup>疼痛엔 當救其裏니 宜溫藥四逆湯<sup>(3)</sup>이라

下利腹滿하고 身體疼痛엔 先溫其裏니 宜四逆湯이라

自利<sup>(4)</sup>不渴者는 屬太陰이니 其藏有寒故也라 當溫之니 宜四逆輩<sup>(5)</sup>라

少陰病<sup>(6)</sup>에 其人이 飲食入則吐하고 心中溫溫<sup>(7)</sup>欲吐나 復不能吐하며 始得之手足寒하고 脈弦<sup>(8)</sup>遲<sup>(1)(9)</sup>라 若膈上에 有寒飲하야 乾嘔者는 不可吐요 當溫之니 宜四逆湯이라

少陰病에 脈沈者는 急當溫之니 宜四逆湯이라

下利欲食者는 就當溫之라

下利에 脈遲緊<sup>(10)</sup>은 爲痛未欲止니 當溫之라 得冷者는 滿而使腸垢<sup>(11)</sup>라

「表 1」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編著者	刊行處	略稱
1	脈經	何大任 校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脈經
2		錢熙祚 校	大孚書局, 臺南, 1985	錢本
3		蔣力生 校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華夏本
4		張琨 等校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大成本
5		吳承玉 等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中醫藥本
6		葉氏 校	元 葉氏廣勤書堂刻本, 脈經校釋 再引用	廣本
7		繆希雍 校	明 繆希雍本, 脈經校釋 再引用	繆本
8		朱錫穀 校	清 道光 13年 朱錫穀 原刊 脈經真本, 脈經校釋 과 脈經校注 再引用	朱本
9		黃鉉 校	清 道光 23年 黃鉉 校本, 脈經校釋과 脈經校注 再引用	黃本
10		廖積性 校	清 道光 廖積性本, 脈經校釋 再引用	廖本
11		張柯 校	清 咸豐 張柯 重刊 脈經真本, 脈經校釋 再引用	張本
12		周學海 校	清 光緒 17年 周學海 校本, 脈經校注 再引用	周本
13		楊守敬 校	清 光緒 19年 楊守敬 刊本, 脈經校釋 再引用	楊本
14	王叔和脈經	校著未詳	文光圖書有限公司, 未詳	文光本
15		蔡陸仙 等編	中國醫藥匯海, 成輔社 印影, 서울, 1978	匯海本
16	脈經校釋	福州市人民醫院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校釋
17	脈經校注	沈炎南 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校注
18	脈經新解	陳欽銘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板橋, 1995	新解
19	脈經精譯	黃志杰 等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精譯
20	傷寒論用語辭典 附錄傷寒論條文	汪濟川本	法仁文化社, 서울, 2006	傷寒
21	金匱要略	李克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金匱
22	素問	新校正本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92	素問
23	靈樞	新校正本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72	靈樞

下利에 其脈浮<sup>(12)</sup>大<sup>(13)</sup>면 此爲虛니 以強下之故也라 設<sup>(14)</sup>脈浮革<sup>(15)</sup>하고 因爾<sup>(16)</sup>腸鳴엔 當溫之니 宜當歸四逆湯<sup>(17)</sup>이라

少陰病에 下利하고 脈微澁者가 卽嘔汗出<sup>(2)</sup>하고 必數更衣<sup>(18)</sup>나 反少면 當溫之<sup>(3)</sup>라

傷寒<sup>(19)</sup>에 醫下之하야 續得下利清穀<sup>(20)</sup>不止하고 身體疼痛하면 急當救裏<sup>(21)</sup>니 宜溫之以四逆湯이라

【校勘】

1) 脈弦遲 : 『傷寒論辨少陰病脈證病治第十一』에는 뒤에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가 있다.

2) 卽嘔汗出 : 『傷寒』, 『新解』, 『校釋』, 『中醫藥本』에는 ‘嘔而汗出’로 되어 있고, 『匯海本』에는 ‘卽吐行者’로, 『文光本』에는 ‘卽嘔行者’로 되어 있다.

3) 當溫之 : 『傷寒』, 『文光本』에는 ‘當溫其上灸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沈(침) : 沈脈.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sup>26)</sup>

(2) 更 : 復也, 또 경

(3) 四逆湯 : 炙甘草 3錢 乾薑炮 2.5錢 生附子 半枚<sup>27)</sup> 이상의 세 가지 약을 잘 썰어 물 3되에 넣고 달여 1되2홉으로 졸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2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4) 自利(자리) : 瀉下시키는 藥을 쓰지 않고, 다른 원인도 없이 泄瀉가 나는 病症.

(5) 輩(배) : 무리 배, 四逆湯類의 약을 말한다.

(6) 少陰病(소음병) : 脈微細, 但欲寐가 주 임상증상이다. 陰陽의 偏盛·偏衰에 따라 寒化·熱화로 나누며 寒化證이 少陰本病으로서, 惡寒倦臥, 下利清穀, 四肢厥冷이 주 증상이다. 熱化란 傷寒의 邪氣가 傳經을

통해 入裏하면서 熱이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寒化는 寒邪가 바로 陰經에 침범하거나(直中), 寒邪가 陽經에 있는 것을 의사가 誤治하거나, 환자가 섭생을 잘못하여 陰經으로 傳變된 것도 포함한다.<sup>28)</sup>

(7) 溫溫(온온) : 心胸부에 뭔가 쌓여 있는 듯 억눌린 느낌이 있어 불편한 증상을 말한다. 蘊蘊과 통한다. \* 蘊 : 積也, 쌓을 온

(8) 弦(현) : 弦脈.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狀.

(9) 遲(지) : 遲脈. 醫師의 1呼吸에 환자의 脈이 3번 박동하는 脈狀.

(10) 繁(긴) : 繁脈.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脈狀.

(11) 便腸垢(변장구) : 證名. 대변을 볼 때 고름이 배출되는 것.

(12) 浮(부) : 浮脈. 가볍게 누르면 脈狀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감소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狀.

(13) 大(대) : 大脈. 浮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힘이 있으나 沈取하면 힘이 없는 脈狀.<sup>29)</sup>

(14) 設(설) : 假借之辭, 설령

(15) 革(혁) : 革脈. 浮하면서 손가락을 치고, 가운데는 비고 밖은 단단하여 마치 북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脈狀.

(16) 因爾(인이) : 因而, 이어서.

(17) 當歸四逆湯 : 當歸 芍藥 각 2錢, 桂枝 1錢半 細辛 炙甘草 通草 각1錢 大棗 2枚. 이상의 약을 썰어 한 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18) 更衣(갱의) : 대변을 보는 것. 옛날 사람들은 측간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대변보러 간다고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했다.

(19) 傷寒(상한) : 여기서의 傷寒은 일체의 外感熱病의 총칭이다.

(20) 下利清穀(하리청곡) :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설사.

2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0. p.99.

27) 傷寒原方은 다음과 같다. 炙甘草 2냥, 乾薑 1냥 반, 附子(날로 쓴다) 1개, 이상의 세 가지 약을 잘 썰어서 물 3되에 넣고 달여 1되2홉으로 졸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2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튼튼한 사람은 큰 附子 1개에 乾薑 3냥을 넣어서 쓴다.

28) 권대순. 常變東醫寶鑑. 대전. 周珉出版社. 2005. p.121.  
29) 朴 昞.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160.

(21) 救裏(구리) : 치료법의 하나. 裏陽虛證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回陽救逆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 救: 助也, 고칠 구

#### 【國譯】

治療의 大法<sup>30)</sup>은 겨울에 溫熱藥을 복용하고 땀을 뺀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환자가 熱이 나고 두통이 있으나 脈狀은 오히려 沈하고 만약 차도가 없이 몸이 다시 아프면, 마땅히 裏陽虛證을 치료해야하니 溫藥인 四逆湯을 써야 한다.

설사하면서 배가 그득하고 몸이 아프면, 우선 溫裏法을 써야하니, 四逆湯이 마땅하다.

自利하면서 갈증이 없는 것은 太陰病에 속하니 本藏이 虛寒하기 때문이다. 溫法을 써야 하니 四逆湯類가 마땅하다.

少陰病 환자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가슴에 무엇이 쌓여있는 듯 불편하여 토하고 싶지만 다시 토할 수 없으며, 이 병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손발이 차며, 脈狀이 弦遲하였다. 만약 膈上에 寒飲이 있어서 乾嘔를 하는 경우는 吐法을 쓰지 말고 溫法을 써야하니 四逆湯이 마땅하다.

少陰病에 脈狀이 沈하면 급히 溫法을 써야하니 四逆湯이 마땅하다.

설사하면서 식욕이 있는 경우는 바로 溫法을 써야 한다.

설사에 脈狀이 遲緊하면 복통이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溫法을 써야한다. 만약 寒冷한 약을 쓰면 脈滿해지면서 고름 섞인 대변을 본다.

설사하면서 脈이 浮大하면 이는 虛證이니, 강제로 下法을 썼기 때문이다. 가령 脈이 浮革하고 이어서 腸鳴이 있으면 溫法을 써야하니 當歸四逆湯이 마땅하다.

少陰病에 설사하면서 脈狀이 微澁한 경우 바로 嘔하고 땀이 나며, 반드시 자주 대변을 보지만 양이 적으면 마땅히 溫法을 써야한다.

30) 윤석희 等譯.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949. “仲景은 치료의 大法으로 봄에는 吐法을 쓰고, 여름에는 汗法을 쓰고, 가을에는 下法을 쓰고, 겨울에는 溫法을 쓰거나 땀을 뺀다고 했다.”

傷寒에 의사가 下法을 잘못 써서 소화되지 않은 설사를 계속 하면서 전신이 아프면 급히 裏證을 치료해야 하니 四逆湯으로 덥히는 것이 마땅하다.

#### 【考察】

“少陰病 其人 飲食入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手足寒 脈弦遲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 當溫之 宜四逆湯”은 『傷寒辨少陰病脈證併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인데, 『傷寒』에는 ‘脈弦遲’ 뒤에 ‘此胸中實不可下也 當吐之’가 더 있어 ‘少陰病 其人飲食入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手足寒 脈弦遲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 當溫之 宜四逆湯’과 같이 된다. 즉 少陰病 乾嘔에는 胸中實과 膈上有寒陰의 두 가지 辨證이 있고 각각의 경우에 吐法과 溫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池田政一은 “병증 초기에 手足이 冷하고 脈이 弦遲한 것이 비록 같더라도 弦遲脈에 虛實의 차이가 있다.”<sup>31)</sup>고 보았다.

그러나 王叔和는 ‘脈弦遲’를 溫法을 써야하는 膈上有寒陰의 辨證요건으로 보았던 것 같다. 같은 條文을 인용한 七卷의 病不可吐證第四와 病可吐證第五<sup>32)</sup>을 보면, 吐法의 禁忌證에만 ‘脈弦遲’를 인용하였고 適應證에는 뺐으며, 溫法의 適應證에 다시 ‘脈弦遲’를 인용하였으니, 결국 동일한 條文을 인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脈診을 辨證의 중요한 관건으로 삼은 것이다. 『診斷學權輿』에 따르면 弦脈은 痰飲, 寒凝氣結證에서 나타나고<sup>33)</sup>, 遲脈은 虛寒證에서 나타나므로<sup>34)</sup> 膈上に 寒陰이 있을 때 나타날

31) 池田政一 訓譯. 脈經. 東京. 谷口書店. 平成3. p.1437.

32) 金泳泌. 脈經卷七 第一~八篇에 對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6. p.59, 63. 病不可吐證第四에는 이 조문을 “少陰病 其人飲食入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手足寒 脈弦遲 此胸中實 不可下也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 當溫之”로 인용하였고 病可吐證 第五에는 이 條文이 “少陰病 飲食入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當遂吐之…病者手足厥冷 脈乍緊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 病在胸中 當吐之”로 되어 있다.

33) 朴 炘.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217. “弦脈이 나타나면 疼痛, 癱疾, 疝症, 痰飲, 冷痺, 勞傷, 拘急, 寒熱, 血虛盜汗, 血氣收斂, 寒凝氣結證이 발생하고, 이는 陽가운데 陰邪가 잠복했거나 經絡 사이에 寒邪가 정체된 것이다.”

34) 朴 炘.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217.

수 있는 脈이다.

下利欲食에 대해서 池田政一은 “통상, 濫하게 하여야 하는 證은 陽氣가 少하다. 陽氣가 少하면 食欲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條文은 下利不欲食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sup>35)</sup>고 하였다. 그러나 脾胃에는 문제가 없고 腸이 虛寒하여 설사를 하는 경우라면 食欲은 정상일 수 있다.

【結論】

本篇은 濫法을 사용해야하는 脈證과 아울러 治則方藥을 논하였다. 요약하면 裏虛內寒의 증에 속하는 모든 증에 濫裏救裏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四逆湯類의 濫藥을 쓴다.

病不可灸證 第十

(灸法을 쓰면 안되는 病證 第10)

【原文】

微<sup>(1)</sup>數<sup>(2)</sup>之脈은 慎<sup>(3)</sup>不可灸니 因火爲邪則爲煩逆이라 追<sup>(4)</sup>虛逐<sup>(5)</sup>實하야 血散脈中하면 火氣雖微나 內攻有力하야 焦骨傷筋血<sup>(1)</sup>하야 難復也라

脈浮엔 當以汗解나 而反灸之면 邪無從去하고 因火而盛하야 病從腰以下로 必當重而痺<sup>(6)</sup>하나니 此爲火逆<sup>(7)</sup>이라 若欲自解면 當先煩하고 煩乃有汗하고 隨汗而解라 何以知之오 脈浮故로 知汗出當解라

脈浮熱甚而灸之면 此爲實이로래 實以虛治니 因火而動하야 咽燥必唾血<sup>(2)(8)</sup>이라

【校勘】

1) 血 : 『繆本』, 『朱本』, 『張本』에는 ‘血氣’로 되어 있다.

2) 唾血 : 『黃本』, 『錢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에는 ‘吐血’로 되어 있다.

p.195

35) 池田政一 訓譯, 脈經. 東京. 谷口書店. 平成3. p.1439.

【註釋】

(1) 微(미) : 微脈. 浮沈에 모두 가늘고 힘이 없는 脈狀.

(2) 數(삭) : 數脈. 醫師의 1呼吸에 환자의 脈이 6회 이상 搏動하는 脈狀.

(3) 慎 : 禁戒詞, 절대로 하지 말라할 신

(4) 追 : 隨也, 좃을 추

(5) 逐 : 從也, 좃을 축

(6) 痺(비) : 關節이 아프고 저린감이 있으며 심하면 부으면서 팔다리의 운동 장애가 있는 병증.

(7) 火逆(화역) : 燒針·熏熨·艾灸 등의 火法을 잘못 써서 생기는 變證. 사우나, 찜질방, 온돌방으로 인해 熱氣를 얻게 되는 것도 火逆에 해당한다.

(8) 唾血(타혈) :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나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것.

【國譯】

脈狀이 微數한 경우에는 절대로 뜸을 떠서는 안되니, 뜸의 火氣가 邪氣로 변하면 煩躁와 氣가 거슬러 올라가는 變症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灸法을 잘못 쓰면 虛한 陰을 더욱 損傷시키고, 實한 熱을 더욱 조장하여, 火邪가 血脈 안으로 흩어지면 火氣가 비록 미약하나 內部를 攻擊하는 힘이 강하므로 骨을 태워 마르게 하고 筋과 血을 상하게 하여 회복이 어렵다.

脈이 浮할 때는 汗法을 써서 病을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灸法을 쓰면, 邪氣가 땀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火氣가 더욱 성해져서, 환자는 허리 아래가 반드시 무거우면서 저린 통증이 생기니, 이는 火氣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병이 저절로 나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한 뒤에 땀이 나면서 이를 따라 풀어진다. 이를 어떻게 아는가? 脈이 浮하기 때문에 땀이 나면 나올 것을 안다.

脈이 浮하고 熱이 심한 환자에게 도리어 灸法을 쓰면 이는 實證인데 虛證으로 보고 치료한 것이니, 이로 인해 火氣가 發動하여 반드시 목이 마르고 唾血이 발생한다.

【結論】

本篇은 灸法을 사용하면 안되는 脈證과 아울러 誤

治로 인한 變證을 논하였다. 脈浮 혹은 脈微數인 경우는 절대로 뜸을 뜨면 안된다. 만약 誤治하여 뜸을 뜨게 되면 煩逆, 血散脈中, 焦骨傷筋血, 혹은 허리 아래로 沈重痲痺, 그리고 咽燥唾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 病可灸證 第十一 (灸法을 쓰는 病證 第11)

#### 【原文】

燒針<sup>(1)</sup>令其汗에 針處被寒하야 核起而赤者는 必發奔豚<sup>(2)</sup>하니 氣從少腹上撞<sup>(3)</sup>者는 灸其核上一壯하고 一本엔 作各一壯이라 與桂枝加桂湯<sup>(4)</sup>이라

少陰病 得之一二日에 口中和<sup>(5)</sup>하고 其背惡寒者는 當灸之<sup>(1)</sup>라

少陰病에 其人이 吐利나 手足不逆하고 反發熱하면 不死요 脈不足者<sup>(2)</sup>는 灸其少陰<sup>(6)</sup>七壯이라

少陰病에 下利하고 脈微澁<sup>(7)</sup>者가 卽嘔汗出<sup>(3)</sup>하고 必數更衣나 反少면 當溫其上<sup>(8)</sup>이니 灸之라 一云 灸厥陰 可五十壯<sup>(4)</sup>이라

諸下利에 皆可灸足이니 大都<sup>(9)</sup>五壯 一云 七壯이라 商邱<sup>(10)</sup> 陰陵泉<sup>(11)</sup> 皆三壯이라 下利手足厥無脈에 灸之나 不溫<sup>(5)</sup>하고 反微喘者는 死라 少陰負<sup>(12)</sup> 趺陽<sup>(13)</sup>者는 爲順也라

傷寒六七日에 其脈微하고 手足厥煩躁하면 灸其厥陰이요 厥不還者는 死라

傷寒에 脈促<sup>(14)</sup>하고 手足厥逆하면 可灸之요 爲可灸少陰厥陰이 主逆<sup>(6)</sup>이라

#### 【校勘】

1) 當灸之 : 『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 는 뒤에 '附子湯主之'가 더 있다.

2) 脈不足 : 底本에는 '脈不至'로 되어 있으나 『錢本』, 『精譯』,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 『黃本』에는 '脈不足'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脈不足'이 합당하여 고쳤다.

3) 卽嘔汗出 : 『校釋』, 『傷寒』에는 '嘔而汗出'로 되어 있고 『匯海本』에는 '卽嘔行者'로 되어 있다.

4) 五十壯 : 『錢本』, 『精譯』, 『朱本』에는 '五七壯'으로 되어 있다

5) 不溫 : 『傷寒』에는 뒤에 '若脈不還'이 더 있다.

6) 主逆 : 『錢本』, 『精譯』,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黃本』, 『校釋』에는 '主四逆'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燒針(소침) : 火針·燔針·焮針이라고도 한다. 침을 찌르는 방법은 천으로 침을 싸서 참기름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서 침 끝이 달아오르면 천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穴자리를 찔렀다가 바로 뽑아내고, 손가락으로 침구멍을 눌러주는 것이다. 痺證에 흔히 쓰고, 땀을 내기 위해서나 癰疽에서 고름이 나오도록 할 때 흔히 썼던 방법이다.

(2) 奔豚(분돈) : 五積의 하나로 腎積. 얼굴빛이 검고 통증이 아랫배에서 발작하여 명치 아래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마치 돼지새끼가 뛰어들어다니는 것처럼 오르내린다고 하여 奔豚이라고 한다.

(3) 撞(당) : 擊也, 칠 당

(4) 桂枝加桂湯 : 桂枝 5錢, 芍藥甘草 2錢 薑 3片, 大棗 2枚. 물에 달여 服用하고 잠시 후 따뜻한 미음을 먹어 藥力을 돕는다.

(5) 口中和(구중화) : 胃陰과 胃氣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입에 쓴맛이 들지 않고 갈증도 없음을 뜻한다.

(6) 少陰(소음) : 經脈穴로 足少陰經의 原穴 太谿에 해당한다.

(7) 澁(삽) : 澁脈. 遲細하면서 短하여 往來하는 것이 갈끄럽고 둔하여 매우 流暢하지 못한 脈狀.

(8) 上(상) : 『中醫藥本』에서 '顛頂上穴位'로 語譯했다. 百會는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고, 厥陰經이 두정부에까지 이르므로, 小字注를 참고하면 百會가 합당하다.

(9) 大都(대도) : 足太陰脾經의 榮穴로 엄지발가락의 本節 앞에 있고 五行上 火에 속한다. 熱性疾患, 腹脹, 泄瀉, 胃痛, 四肢浮腫, 中風 등을 主治한다.

(10) 商邱(상구) : 足太陰脾經의 經穴로 안쪽 복사뼈의 중심과 舟狀骨의 중심을 연결한 선의 중간 우묵한 곳이며 金에 속한다. 效能은 健脾胃 化濕滯한다.

(11) 陰陵泉(음릉천) ; 足太陰脾經의 合穴로 脛骨의 내측과의 뒤쪽 아래 우묵한 곳이고 土에 속한다. 효능은 化濕滯, 利下焦한다.

(12) 負 : 失也, 질 부

(13) 趺陽(부양) : 趺陽脈의 준말, 足陽明胃經의 衝陽穴.

(14) 促(촉) : 促脈. 脈이 數하게 搏動하다가 때로 한 번 멈추는 脈狀.

【國譯】

燒針法을 써서 發汗시켰는데 만약 침놓은 자리가 寒邪를 받아 붉게 몽우리가 생기면 반드시 賁豚症이 발생한다. 奔豚의 氣가 하복부에서 위로 치밀어 오르면 몽우리 위에 뜬을 한 장 뜨고 어떤 본에는 ‘각 한 장’으로 되어 있다 桂枝加桂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이 발생한지 1, 2일 되었는데 입안의 상태가 정상이고, 등에 惡寒이 나면 灸法을 써야한다.

少陰病에 걸려 토하고 설사하나, 手足이 厥冷하지 않고 오히려 熱이 나면 死證이 아니다. 만약 脈이 무력하면 太谿에 뜬을 7장 뜬다.

少陰病으로 설사하고 脈이 微澁한 경우 바로 嘔하고 땀이 나며, 반드시 여러 번 대변을 보지만 양이 적다면, 頭頂部를 덥혀야 하니 百會에 뜬을 뜬다. 어떤 본에는 ‘厥陰經에 五十壯 뜬을 뜬다’고 되어 있다.

모든 泄瀉症에는 足部에 灸法을 쓸 수 있으니, 大都에 다섯 장 어떤 본에는 ‘일곱 장’으로 되어 있다, 商邱와 陰陵泉에 각각 세 장을 뜬다. 설사하면서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없으며, 뜬을 떠도 따뜻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숨이 차는 경우는 死證이고, 太谿의 脈이 衝陽의 脈보다 약한 것은 順證이다.

傷寒이 발생한지 6, 7일이 되었는데 그 脈이 微하고 手足이 厥冷하며 煩燥가 나면 太衝에 뜬을 떠야한다. 만약 뜬을 뜬 뒤에 四肢의 厥冷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死證이다.

傷寒에 脈이 促하고 手足이 厥逆하면 뜬을 뜰 수 있다. 뜬을 뜰 수 있는 곳은 太谿와 太衝인데 逆을 치료한다.

【考察】

‘脈不足者 灸其少陰 七壯’에서 ‘少陰에 뜬을 뜨라’는 것을 少陰經의 여러 穴중 무슨 穴로 봐야하는가. 黃龍祥은 體系的인 文獻研究를 통해 『內經』이나 『脈經』같은 초기 醫學文獻에서 ‘手太陰’·‘手少陰’·‘足少陰’과 같은 三陰三陽의 명칭이 鍼灸方에 나타나면 이는 經脈의 이름이 아니라 經脈穴임을 밝혀냈다.<sup>36)</sup> 즉 少陰經의 經穴 전체에 뜬을 뜬다든지 少陰經의 어느 穴이 뜬 뜬을 떠도 된다는 것으로 보면 안되고, 少陰經의 原穴에 해당<sup>37)</sup>하는 太谿에 뜬을 떠야 하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鍼灸方에 쓰인 三陰三陽과 脈口名으로 쓰인 三陰三陽을 해당 穴位로 해석하였다.

太谿는 手足厥冷을 主治하고 이곳의 脈이 끊어지면 死證이므로<sup>38)</sup> 문맥으로 볼 때 ‘脈不至者’는 ‘脈不足者’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錢本』, 『精譯』 등에 근거하여 고쳐서 번역했다.

‘少陰病 下利 脈微澁者 卽嘔汗出 必數更衣 反少 當溫其上 灸之 一云 灸厥陰 可五十壯’의 ‘其上’에 대하여 『校釋』 등은 ‘其上’ 그대로 해석했고, 『中醫藥本』은 ‘顛頂上穴位’로 해석했다. 少陰病下利이므로 ‘其上’을 少陰經으로 볼 수도 있고, 人體를 上下로 나누어 人體의 上部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小字注에 ‘灸厥陰이라고 한 본도 있다’고 했으므로 厥陰의 經脈穴인 太衝으로 볼 수도 있다. 太衝은 穴性이 疏泄下焦濕熱하여 腸炎, 滯泄 등을 치료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小字注와 『中醫藥本』를 참고하여 厥陰經의 裏線이 이르고 止瀉效能이 있는 百會穴로 해석하였다.

‘傷寒脈促 手足厥逆 可灸之 爲可灸少陰厥陰 主逆’의 ‘主逆’을 吳等<sup>39)</sup>에 근거하여 太谿와 太衝에 뜬을 뜨면 ‘逆을 主治한다’고 해석하였다. 『校釋』 등에는

36)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90, 286.

37) 黃에 따르면 經脈穴은 經脈과 같은 이름의 穴로서 상응하는 經脈의 脈口에서 진화된 것이며 原穴에 해당한다.

38) 陳欽銘. 脈經新解.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96. p.576. “柯琴云 ‘太谿取川流不息之義 主手足厥冷 寒至節是少陰之原 此脈絕則死’”

39) 吳承玉 等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p.318. “灸少陰厥陰兩經輸血, 主治陽鬱而不通所致的手足厥逆.”

‘主逆’이 ‘主四逆’으로 되어있어, 뜻은 太谿와 太衝에 뜨고, 四逆湯을 쓴다고 해석하였다. 前後者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文脈上으로나 病理上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底本에 ‘主逆’으로 되어있고, 本篇이 灸法の 適應證에 관한 篇이므로 前者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

## 【結論】

本篇에서는 灸法을 사용할 수 있는 脈證과 그 豫後에 대해 논하였다.

灸는 대체로 寒證, 虛證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三陰病에 脈이 微瀯하고 口中和, 背惡寒, 嘔吐, 下利, 手足厥逆, 그리고 發汗後 賁豚氣가 발생한 경우 모두 뜸을 써야한다.

## 病不可刺證 第十二

## (刺針할 수 없는 病證 第12)

## 【原文】

大<sup>(1)</sup>怒無<sup>(2)</sup>刺<sup>(1)</sup>하고 大가 一作新이라 已刺無怒요 已가 一作新이라 新<sup>(3)</sup>內<sup>(4)</sup>無刺하고 已刺無內요 大勞無刺하고 大가 一作新이라 已刺無勞요 大醉無刺하고 已刺無醉요 大飽無刺하고 已刺無飽요 大飢無刺하고 已刺無飢요 大渴無刺하고 已刺無渴이라 無刺大驚하고 無刺熇熇<sup>(5)</sup>之熱하고 無刺漉漉<sup>(6)</sup>之汗하고 無刺渾渾<sup>(7)</sup>之脈이라 身熱甚하고 陰陽皆爭<sup>(8)</sup>者는 勿刺也라 其可刺者는 急取之니 不汗則洩이라 所謂勿刺者는 有死徵也니 無刺病與脈相逆<sup>(9)</sup>者라 上工<sup>(10)</sup>은 刺未生하고 其次로 刺未盛하고 其次로 刺已衰요 粗工<sup>(11)</sup>은 逆此하야 爲之伐<sup>(12)</sup>形이라

出九卷이라<sup>3)(13)</sup>

## 【校勘】

1) 大怒無刺 : 『靈樞終始』에는 ‘新怒勿刺’로 되어 있다.

2) 陰陽皆爭 : 『靈樞熱病』에는 ‘陰陽皆靜’으로 되어 있다.

3) 出九卷 : 『校釋』·『大成本』·『中醫藥本』에는 이 3字가 빠져있다.

## 【註釋】

(1) 大 : 甚也, 심할 대

(2) 無 : 勿也, 말 무

(3) 新 : 對舊之稱, 금방 신

(4) 內 : 內室, 안방 내 房事를 뜻한다.

(5) 熇 : 燒也, 불 활활 탈 흑

(6) 漉漉(눅눅) : 땀이 많이 흐르는 모양. \* 漉 : 淋也, 젖을 록

(7) 渾渾(흔흔) : 脈이 疾數洪大한 것<sup>40)</sup>. \* 渾 : 紛亂한 모양 혼

(8) 陰陽皆爭(음양개쟁) : 『校釋』은 “脈狀이 寸部尺部에서 輕按과 重按에 모두 강성한 것이다.”<sup>41)</sup>고 해석하였다.

(9) 逆 : 反對也, 반대 역

(10) 上工(상공) : 기술이 높은 유능한 사람. 유능한 의사.

(11) 粗工(조공) : 기술이 낮은 사람 또는 지식이 빈약한 사람. 서툰 의사.

(12) 伐 : 攻殺, 죽일 벌

(13) 九卷(구권) : 『針經』으로 『靈樞』에 해당 한다.<sup>42)</sup>

## 【國譯】

매우 노했을 때는 刺針하지 말고, ‘매우’가 어떤 本에서는 ‘금방’으로 되어 있다. 이미 刺針한 후에는 노하지 말며, ‘이미’가 어떤 本에서는 ‘금방’으로 되어 있다. 방금 房事한 뒤에는 刺針하지 말고, 刺針 후에는 房事를 禁하며, 매우 피로한 때는 刺針하지 말고,

4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38. “脈象疾數洪大”

4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38. “脈狀寸部尺部輕按重按都現出強硬的.”

4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90. p.21. “『針經』이라고 하는 책이 총 9卷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張仲景이나 王叔和가 이것을 『九卷』이라 부른 것이다. …王氷이 가리키는 『靈樞』란 『針經』에 다른 아닌 증거라고 <新校正>은 인정했다.”

‘매우’가 어떤 本에서는 ‘금방’으로 되어 있다. 침 맞은 후에는 過勞하지 말며, 만취한 때는 刺針하지 말고, 刺針 후에는 술 마시지 말며, 매우 배가 부를 때는 刺針하지 말고, 刺針 후에는 배불리 먹지 말고, 심하게 배가 고플 때는 刺針하지 말고, 刺針 후에는 굶지 말며, 갈증이 심한 경우도 刺針하지 말고 刺針 후에는 목마르게 하면 안된다. 매우 놀랐을 때, 후끈후끈 열이 날 때, 땀이 줄줄 흐를 때, 脈이 疾數洪大하게 박동할 때는 刺針하지 않아야 한다. 熱이 심하고 寸尺의 맥이 浮取와 沈取에서 모두 強盛할 때는 침치료를 하지 않아야 한다. 침치료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바로 刺針해야하니 환자가 땀이 나지 않으면 刺針하여 땀을 내야한다. 소위 침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死亡의 徵候가 있기 때문이다. 病症과 脈狀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침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능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刺針하고, 그럴 수 없을 땐 次善으로 병이 盛하기 전에 刺針하며, 그럴 수 없다면 病氣가 衰했을 때 刺針한다. 그러나 미숙한 의사는 이와 반대로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靈樞』에서 인용했다.

【考察】

刺鍼 禁忌證에는 이외에도 『靈樞熱病』의 九禁<sup>43)</sup>, 『靈樞五禁』의 五奪, 五禁, 五逆<sup>44)</sup>등이 있다. 예를 들어 五奪이란 形肉이 奪取된 것이 1奪이고, 피를 심하게 흘린 다음이 2奪이고, 땀을 심하게 흘린 다음이 3奪이고, 매우 설사를 한 뒤가 4奪이고, 출산하여 피를 많이 흘린 다음이 5奪로, 이 경우는 대개 內·外科的 應急상황으로 生體가 자기 스스로 恒常性を 유지할

43)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652. “一曰 汗不出 大觀發赤 噦者 死, 二曰 泄而腹滿甚者 死, 三曰 目不明 熱不已者 死, 四曰 老人嬰兒 熱而腹滿者 死, 五曰 汗不出 嘔下血者 死, 六曰 舌本爛 熱不已者 死, 七曰 咳而衄 汗不出 出不至足者 死, 八曰 髓熱者 死, 九曰 熱而瘳者 死 腰折 痠癢 齒齩齩也. 凡此九者 不可刺也.”

44)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下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278. “五禁은 針刺하면 안되는 날짜와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부위를 刺針할 때 그 부위와 관계있는 干支를 가진 날에는 刺針하면 안된다. 五逆은 脈과 症狀이 상반되거나 위중한 증상들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이다. 針은 調氣治神하여 人體에 작용한다. 즉 氣를 조화롭게 하여 인체의 자기항상성유지능력(神)을 본래로 되돌리는데, 神이 교란된 急證의 경우는 氣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sup>45)</sup>

【結論】

本篇은 『靈樞終始』와 『靈樞逆順』에서 나온 것이다. 침치료를 할 수 없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熱盛汗大出脈盛大 등의 증상이 출현하는 경우에 모두 刺針할 수 없다. 동시에 침치료에 있어 早期治療 원칙을 제시한다. 『靈樞逆順』에서는 兵法에 비유하여 밀어닥치는 기세에는 맞서지 말고 당당한 敵陣은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刺針에 있어서도 邪氣가 너무 강할 때는 침치료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였다.<sup>46)</sup>

病可刺證 第十三

(刺針할 수 있는 病證 제13)

第1章 太陽病縱橫熱入血室등의 刺針

【原文】

太陽病<sup>(1)</sup> 頭痛은 至七日에 自當愈니 其經竟<sup>(2)</sup> 故也라 若欲作再經<sup>(3)</sup> 者는 當針足陽明<sup>(4)</sup> 하야 使經不傳則愈라

太陽病에 初服桂枝湯 而反煩不解者는 當先刺風池<sup>(5)</sup> 風府<sup>(6)</sup> 하고 乃却<sup>(7)</sup> 與桂枝湯則愈라

傷寒에 腹滿而譫語하고 寸口脈이 浮而緊者는 此爲肝乘<sup>(8)</sup> 脾<sup>(1)</sup> 요 名縱이니 當刺期門<sup>(9)</sup> 이라

傷寒에 發熱嗇嗇<sup>(10)</sup> 惡寒하고 其人이 大渴欲飲酢<sup>(11)</sup> 漿<sup>(2)</sup> 者는 其腹必滿이나 而自汗出小便利면 其病欲解니 此爲肝乘肺요 名曰橫이니 當刺期門<sup>(3)</sup> 이라

45) 김관우. 舍岩針法隨想錄. 도서출판조락당. 2006. p.32.  
46)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187. “兵法堂堂不攻陣”

陽明病<sup>(12)</sup>에 下血而 譫語하면 此爲 熱入血室<sup>(13)</sup>이니 但 頭汗出者는 當刺期門호대 隨其實而瀉之하여 澌然<sup>(14)</sup>汗出者則愈라

婦人中風으로 發熱惡寒에 經水<sup>(15)</sup>適<sup>(16)</sup>來가 得之七八日하야 熱除 脈遲 身涼 胸脇下滿 如結胸<sup>(17)</sup>狀하고 其人이 譫語하면 此爲 熱入血室이라 當刺期門호대 隨其虛實<sup>(4)</sup>而取之라 平病<sup>(18)</sup>云 熱入血室엔 無犯胃氣及上二焦<sup>(5)</sup>라하야 與此相反하니 豈謂藥不謂針耶아<sup>(6)</sup>

太陽與少陽併病<sup>(19)</sup>은 頭痛頸項強而眩하고 時如結胸心下痞堅하니 當刺大椎<sup>(7)(20)</sup>第一間肺輸<sup>(21)</sup>肝輸<sup>(22)</sup>라 慎不可發汗이니 發汗則 譫語하고 譫語則脈弦<sup>(8)</sup>하며 譫語五日不止면 當刺期門이라

#### 【校勘】

- 1) 肝乘脾：『廖本』、『朱本』、『張本』에는 모두 ‘肝乘肺’로 되어 있다.
- 2) 酢漿：『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는 ‘水’로 되어 있다.
- 3) 當刺期門：『楊本』에는 없다.
- 4) 隨其虛實：『中醫藥本』、『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七』에는 ‘隨其實’로 되어 있다.
- 5) 二焦：底本에는 ‘三焦’로 되어 있으나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傷寒』、『大成本』、『中醫藥本』에 依據하여 고쳤다.
- 6) 平病云 以下：『文光本』、『匯海本』에는 없고, 『錢本』에는 小字注로 되어 있다.
- 7) 大椎：底本에는 ‘大杼<sup>47)</sup>’로 되어 있으나 『傷寒』、『大成本』、『中醫藥本』에 根據하여 고쳤다.
- 8) 發汗則 譫語 譫語則脈弦：『傷寒』에는 ‘發汗則 譫語脈弦’으로 되어 있다. ‘譫語則’은 衍文인 것 같다.

#### 【註釋】

(1) 太陽病(태양병)：傷寒 六經病의 하나. 太陽은 온몸의 表部를 주재하므로 인체에 外邪가 침입하면

太陽經이 가장 먼저 병을 받는다. 대표적인 증상은 頭痛, 身熱, 脊強이다.

(2) 竟：盡也. 마칠 경

(3) 再經(재경)：太陽經에서 邪氣가 다른 經絡으로 다시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

(4) 足陽明(족양명)：足陽明經의 經脈穴 衝陽에 해당한다.

(5) 風池(풍지)：足少陽膽經의 穴로 목뒤덜미의 枕骨융기 아래 양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며 手少陽三焦經과 陽維脈이 交會한다. 通經活絡, 調和氣血, 疏風解表의 효능이 있으며, 針刺하면 太陽經氣가 막힌 것을 열어 줌으로써 太陽經에 적중한 風邪를 내보낼 수 있다.

(6) 風府(풍부)：督脈의 穴로 목덜미의 정중선상에 있으며, 後髮際에서 1寸 올라간 곳이고 督脈과 陽維脈의 交會穴이다. 疏通經絡, 祛風清熱한다.

(7) 却(que)：그 후에.

(8) 乘(승)：相乘. 五行에서 相克이 되거나, 기운이 지나쳐서 득세하는 바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뜻한다.

(9) 期門(기문)：足厥陰肝經의 穴이며 67번째 늑골 사이에 있으며 정중선에서 3.5寸 거리에 있다. 肝의 募穴이고, 足厥陰肝經이 足太陰脾經·陰維脈과 交會하는 穴이다. 효능은 疏利肝膽, 瀉熱除實, 理氣活血한다.

(10) 齧齧(색색)：오작오작. 惡寒이 들면서 움츠러드는 모양. 風寒이 侵犯할 때 나타난다.

(11) 酢：酸也, 실 초

(12) 陽明病(양명병)：陽明病은 經證과 腑證으로 구분되며, 陽明經病은 無形의 邪熱이 本經에 왕성한 것으로 身熱, 口大渴, 脈浮洪 등의 증이 나타나며 治法은 清熱補津하고, 陽明腑證은 有形의 燥熱이 胃腑에 鬱結하여 潮熱, 腹滿痛, 不大便, 脈沈實이 나타나는 것으로 治法은 攻下燥實한다.

(13) 熱入血室(열입혈실)：부녀자가 생리를 하거나 產後에 外邪를 感受하면 邪熱이 虛한 틈을 타서 血室으로 內陷하게 되는데, 血과 邪熱이 뭉쳐서 생긴 병증이다.

(14) 澌然(집연)：땀이 줄줄 나는 모양. \* 澌：水

47) 大杼(대저)：足太陽膀胱經의 穴. 八會穴의 骨會이며 手足太陽少陽督脈의 會穴이다. 제1·2흉추 극돌기 사이에서 양 옆으로 2寸 되는 곳이다.

行出, 물나갈 집

(15) 經水(경수) : 月經, 생리를 말한다.

(16) 適 : 猶偶然, 때마침 적

(17) 結胸(결흉) : 명치끝이 아프고, 눌러서 풀어도 풀리지 않고 단단하고 그득한 것을 주요 임상증상으로 하는 병증.

(18) 平病(평병) : ‘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가 『傷寒論』 145條<sup>48)</sup>에 있으므로, 平病은 『傷寒』의 辨太陽病脈證并治를 말하는 것 같다.

(19) 太陽與少陽併病(태양여소양병) : 太陽病이다 낮기 전에 少陽病이 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목덜미가 뻗뻗하면서 아픈 것 등 太陽病 증상과 함께 눈앞이 아물거리고 結胸證처럼 옆구리가 결리며 명치 밑이 단단해지고 弦脈이 나타나는 등 少陽病 증상이 나타난다.

(20) 大椎(대추) : 제7경추와 제1흉추 극상돌기 사이에 있는 督脈의 穴로 督脈과 手足三陽經이 交會하며 解熱작용이 매우 강하다.

(21) 肺輸(폐수) : 제34흉추 극돌기 사이에서 양 옆으로 2寸 되는 곳에 있는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肺의 背俞穴이다.

(22) 肝輸(간수) : 제9·10흉추 극돌기 사이에서 양 옆으로 2寸 되는 곳인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肝의 背俞穴이다.

【國譯】

太陽病의 頭痛은 7일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니 이는 邪氣가 太陽經의 走行을 마쳤기 때문이다. 만약 太陽의 邪氣가 다른 經으로 전해지려고 하면 곧바로 足陽明經의 衝陽에 刺針하여 傳經을 하지 못하게 하면 낫는다.

太陽病에 처음 桂枝湯을 먹고 난 뒤에 도리어 煩躁가 나고 병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風池·風府穴을 刺針하고, 그 후에 桂枝湯을 투여하면 낫는다.

傷寒에 배가 脹滿하면서 譫語하고, 寸口脈이 浮하면서 緊하면 이는 肝의 邪氣가 脾를 乘한 것<sup>49)</sup>으로

縱이라 하니 期門에 刺針해야 한다.

傷寒에 發熱하고 오싹오싹 춥고 몹시 갈증이 나서 신맛의 음료를 마시려고 하면 배가 만드시 脹滿하다. 이는 肝이 肺를 乘한 것<sup>50)</sup>으로 橫이라 하니 期門穴에 刺針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배가 脹滿하나 저절로 땀이 나면서 소변이 순조로우면 그 병이 나오려는 것이다.

陽明病에 下血하면서 譫語하는 경우는 熱入血室이니, 만약 머리에만 땀이 나면 期門穴에 刺針하여 實邪가 있는 곳을 따라 瀉해 주어 땀이 흥건히 나면 낫는다.

婦人이 中風으로 發熱 惡寒할 때 마침 月經이 시작된 것이 7~8일이 경과한 뒤이며, 月經이 시작되니 열이 내리고, 脈이 느리며, 몸이 식고, 胸脇 아래가 結胸처럼 그득하고, 譫語하면 이는 熱入血室이 된 것이다. 虛實에 따라 期門穴을 刺針하여 補瀉한다. 『平病』에 “熱入血室은 胃氣와 위쪽의 二焦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하여 이와는 서로 다르니 어찌 藥만 해당하고 針은 해당하지 않겠는가?

太陽少陽併病은 머리가 아프고 頸項이 뻗뻗하면서 어지러우며, 때로 結胸처럼 명치끝이 막히고 단단하니 경추와 제1흉추의 사이의 大椎穴과 肺俞, 肝俞를 刺針해야하며, 함부로 發汗해서는 안된다. 發汗시키면 譫語하고 脈은 弦하게 된다. 譫語가 5일 동안 그치지 않으면 期門穴에 刺針해야한다.

【考察】

‘太陽病 頭痛至七日 自當愈 其經竟故也 若欲作再經者 當針足陽明 使經不傳則 愈’는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五』<sup>51)</sup>에서 인용한 것인데 ‘其經竟’에 대해 『脈經校注』는 『素問熱論』을 인용하여 傷寒에 하루에 한 經씩 전해져, 2일째는 陽明, 3일째는 少陽으로 가서 6일째에 厥陰으로 전해져 六經傳變을 마친 것으로 註釋하고 있다. 그러나 ‘그 經을 마쳤다’는 것은 太陽經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頭痛은 太陽表證의 대표증상이고 邪氣가 入裏하면 두통이

50) 五邪 중에서 微邪에 해당한다.

51) 원래 條文은 다음과 같다. “太陽病 頭痛至七日已上 自愈者 以行其經盡故也 若欲作再經者 針足陽明 使經不傳則愈.”

48) 婦人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則譫語如見鬼狀者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愈

49) 五邪 중에서 賊邪에 해당한다.

뗏는다. 또 再經을 막기 위해 足陽明에 刺針한다 했으니, 陽明病의 진단계인 太陽病에서 以治未病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杼第一間은 『傷寒』에 大椎第一間으로 되어 있는데 大椎는 手足三陽經과 督脈이 交會하는 곳으로 消散風寒, 解表通陽, 瀉熱安神的 효능이 있어 太陽의 邪氣를 瀉할 수 있으므로 大椎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結論】

本章은 太陽病에서 陽明으로 傳經하는 것을 刺針으로 예방하고, 桂枝湯만으로 汗解가 되지 않을 때 刺針으로 氣를 疏通시키며, 縱橫熱入血室의 병에 期門에 刺針하여 치료하고, 太陽少陽并病에 發汗法을 쓰지 말고 大椎와 肺輸 肝輸를 刺針할 것을 논하였다.

## 第2章 少陰病便膿血·婦人傷寒·傷寒喉痺·風厥의 刺針

#### 【原文】

少陰病에 下利便膿血<sup>(1)</sup>者는 可刺라

婦人傷寒<sup>1)</sup>懷身에 腹滿不得小便하고 加從腰以下重하야 如有水氣<sup>(2)</sup>狀은 懷身七月엔 太陰當養不養이니 此는 心氣實이라 當刺瀉勞宮<sup>(3)</sup>及關元<sup>(4)</sup>하야 小便利<sup>(2)</sup>則愈라

傷寒喉痺<sup>(5)</sup>엔 刺手少陰<sup>(6)</sup>이라 少陰은 在腕當小指後動脈이 是也요 針入三分補之라

問曰 病有汗出而身熱煩滿에 煩滿不爲汗解者는 何오 對曰 汗出而身熱者는 風也요 汗出而煩滿不解者는 厥<sup>(7)</sup>也니 病名曰風厥<sup>(8)</sup>也라 太陽이 主氣故로 先受邪하야 少陰이 與爲表裏也라 得熱則上從之하고 從之則厥하니 治之는 表裏刺之하고 飲之湯이라

#### 【校勘】

1) 婦人傷寒: 『金匱·婦人妊娠病脈證并治 第二十』에는 '婦人傷胎'로 되어 있다.

2) 小便利: 『金匱』에는 '小便微利'로 되어 있다.

#### 【註釋】

(1) 便膿血(변농혈): 대변에 붉은 피와 흰 곱이 섞여 나오는 병증.

(2) 水氣(수기): 水腫. 水液이 체내에 정체되어 생긴 病變.

(3) 勞宮(노궁): 중지와 무명지를 굴곡했을 때 그 가운데 있고 手厥陰心包經의 榮穴이며 火에 속한다. 火經의 火穴로 補瀉를 통해 火氣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sup>52)</sup>

(4) 關元(관원): 배꼽 아래 3寸에 있는 任脈의 穴로 小腸의 募穴.

(5) 喉痺(후비): 喉閉. 목 안이 붉게 붓고 아프며 막힌 감이 있는 咽喉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6) 少陰(소음): 手少陰經의 經脈穴인 神門에 해당한다.

(7) 厥(궐): 上氣也. 陰陽의 二氣가 서로 괴리되어 接續하지 못하는 것.

(8) 風厥(풍궐): 厥證의 하나로 風邪로 생긴 厥證. 잘 놀라며 등이 아프고 트림과 하품을 자주하며 손발이 차갑고 痙攣이 있는데 小續命湯<sup>53)</sup>이나 地黃飲子<sup>54)</sup>를 쓴다.

#### 【國譯】

少陰病에 下利를 하는데 大便에 膿血이 섞여 나오면 刺針하여 치료할 수 있다.

妊婦의 傷寒에 복부가 脹滿하고, 소변을 보지 못하며, 또 허리 이하가 무거워 水氣의 증상과 같이 느껴지는 것은 임신 7개월에 太陰이 胎兒를 길러주어야 하는데<sup>55)</sup> 길러주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心氣가 實하

52) 김관우. 舍岩針法隨想錄. 대전. 도서출판초락당. 2006. p.263.

53) 小續命湯 治卒中風 不省人事 喎斜癱瘓 瘖瘖麻木 眩暈 初中無汗表實等 及治一切諸風證. 防風 1錢半 防己肉桂杏仁 黃芩芍藥人參川芎麻黃甘草 各1錢 附子炮 五分 以上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54) 地黃飲子 治中風 舌瘖 足癱 腎虛 氣厥 不至舌下. 熟地黃 巴戟山茱萸肉從蓉石斛遠志五味子白茯苓麥門冬 各一錢 附子炮官桂石菖蒲 各五分 以上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薄荷少許 水煎服.

55) 嚴祥燮. 脈經卷之九 婦人小兒脈法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 校大學院. 2002. p.21. “『脈經』에서 체계화된 十月養胎에 따르면 임신 1개월에는 足厥陰肝經이, 2개월에는 足少陽膽經

기 때문이다. 勞宮과 關元을 瀉法으로 刺針하여 소변이 잘 나오면 낫는다.

傷寒喉痺에는 手少陰穴에 刺針한다. 少陰穴은 새끼손가락 뒤쪽으로 손목부위의 동맥이 박동하는 곳(神門<sup>56</sup>穴)으로 침을 3푼 刺入하고 補法을 쓴다.

문기를 “환자가 땀이 났는데도 몸에 열이 나고 煩滿이 있는데, 煩滿이 땀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답하기를 “땀이 나도 몸에 열이 나는 것은 風邪이고, 땀이 나도 煩滿이 풀리지 않는 것은 厥證이니 病名을 風厥이라 한다. 太陽이 氣를 주재하기 때문에 먼저 邪氣를 받아들이고, 少陰이 太陽과 表裏가 된다. 太陽이 邪氣를 받으면 몸에 熱이 나고, 몸에 熱이 나면 少陰의 氣가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厥證을 형성한다. 치료는 表裏가 되는 太陽과 少陰經의 穴에 刺針하고 湯藥을 복용한다.

【考察】

대변으로 膿血이 나오는 것은 邪氣가 腸道에 壅滯되어 脈絡을 손상시키고, 氣血이 멎어서 썩게 된 것으로 여기서는 少陰熱化證에 해당한다. 이런 증상을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治療穴이 없는데 王肯堂<sup>57</sup>은 『傷寒準繩』에서 ‘대변에서 膿血이 나오는 것을 항간의 의사가 難治로 여기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니, 증세의 輕重을 고려하여 약간 寒涼한 약을 쓰기도 하고, 疏導시키기만 해주어도 낫고 刺針할 때에는 厥陰經을 쓴다’고 하였다.<sup>58</sup> 厥陰經의 原穴 太衝은 藏血機能이 장애된 肛門出血을 치료할 수 있어 少陰病 便膿血의 治療穴로서 太衝을 쓰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3개월에는 手厥陰心包經이, 4개월에는 手少陽三焦經, 5개월에는 足太陰脾經, 6개월에는 足陽明胃經, 7개월에는 手太陰肺經, 8개월에는 手陽明大腸經, 9개월에는 足少陰腎經, 10개월에는 足太陽膀胱經이 태아를 길러준다.”

56) 手少陰心經의 原穴, 兪穴, 土에 속한다. 손목 안쪽 횡문에서 尺骨쪽 수근굴근건의 撓骨쪽 가장자리의 우묵한 곳이다.

57) 明代의 저명한 醫家. 證治準繩 44권을 편성했는데, 雜病類方, 傷寒, 外科, 小兒科, 婦人科의 六科로 나누었으므로 六科證治準繩이라고도 한다. 中國醫學古代文獻의 정리보전에 크게 貢獻하였다.

58) 陳柱杓. 傷寒論用語辭典.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12. 傷寒論用語辭典 膿血便에서 再引用.

‘婦人傷寒~’은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心氣實로 腹滿, 小便不利, 下肢가 무거운 증상이 있을 때 침치료를 하라고 하고 있다. 이 문장은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并治第二十』의 11條에서 인용된 것으로 원래는 ‘婦人傷胎’로 되어 있지만 『金匱玉函經』과 『千金翼方』 그리고 『脈經』에는 ‘婦人傷寒’으로 되어 있다. 文脈으로 볼 때 뒷부분에서 傷胎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고, 『金匱』의 該當篇에서도 이 條文이 胎氣不安에 관한 條文들 끝에 나오므로<sup>59</sup> ‘婦人傷胎’로 보는 것이 타당하긴 하지만, 임신부의 경우 外感病으로 인해서도 胎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婦人傷寒’도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 條文의 관건은, 妊娠陽月에는 遺産의 위험이 크므로 치료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婦人科의 일반상식과 배치되게도, 刺針法으로 妊娠婦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脈經卷九』에도 十月養胎에 대하여 體系의으로 논한 후 ‘妊娠期間에는 그 달에 養胎하는 經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는 안되니, 이를 어기면 반드시 유산하게 된다.’<sup>60</sup>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養胎하는 經脈’이 아니면 鍼灸治療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妊娠浮腫인 子腫<sup>61</sup>은 妊娠性高血壓에 해당<sup>62</sup>하는데 産科 臨床에서 매우 異論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즉 高血壓에 대한 치료가 合併症의 빈도와 정도를 경감시키느냐에 대해 그리고 그럴 경우 치료를 위

5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577. 安胎하는 처방인 當歸散과 白朮散의 條文 뒤에 該當條文이 나온다.

60) 嚴祥燮. 脈經卷之九 婦人小兒脈法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 校大學院. 2002. p.21. “懷娠者 不可灸刺其經 必墮胎”

61) 윤석희 등譯.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785. “대부분 임신 5~6개월에 胎 속에 물이 차서 온몸이 붓고 배가 불러 오르면서 숨이 차거나, 배가 이상하게 커져 가슴보다 높아지고 氣가 거슬러 올라 불안한 것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胎兒를 상하게 된다. ...간혹 머리와 얼굴은 붓지 않고 양다리만 약간 붓는다. 심하면 발등에서 시작하여 무릎넓적다리까지 부으며, 발가락 사이에서 누런 물이 나온다. 이를 子氣라고 하고 臃脚이라고도 한다.”

62)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학교실. 산부인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9. p.311. “妊娠에 合併된 高血壓 질환은 妊娠性高血壓, 慢性高血壓, 妊娠에 의해 惡化된 高血壓, 一過性 妊娠性高血壓으로 분류된다. 妊娠性高血壓(前子癩證輕症)의 경우 妊娠 20주 이상에서 高血壓과 蛋白尿(300mg/24시간) 혹은 浮腫 등이 관찰된다.”

한 약물 투여가 胎兒에게 위험한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sup>63)</sup> 妊娠性高血壓으로 인한 胎氣不安을 針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韓方産婦人科의 임상영역을 넓히는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研究와 檢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結論】

本章은 주로 『傷寒』, 『金匱』, 『素問·平熱病論』에서 인용된 것이다. 膿血便, 妊娠婦의 傷寒(子腫), 傷寒喉痺, 風厥의 針치료에 대해 논하였다.

### 第3章 熱病의 五十九刺法

#### 【原文】

熱病三日에 氣口<sup>(1)</sup>靜<sup>(2)</sup>하고 人迎<sup>(3)</sup>躁<sup>(4)</sup>者는 取之諸陽五十九刺하여 以寫其熱 而出其汗하고 實其陰하야 以補其不足이라 所謂五十九刺者는 兩手外內側各三의 凡十二瘡<sup>(5)</sup>와 五指間各一의 凡八瘡와 足亦如是요 頭入髮一寸 傍三分에 各三의 凡六瘡와 更入髮三寸 邊各五의 凡十瘡와 耳前後口下項中各一<sup>(1)</sup>의 凡六瘡와 巔上一 顛會<sup>(6)</sup>一 髮際一 廉泉<sup>(7)</sup>一 風池<sup>(8)</sup>二 天柱<sup>(9)</sup>二<sup>(2)</sup>라

#### 【校勘】

1) 口下項中各一 : 『靈樞熱病』에는 ‘口下者各一’로 되어 있다.

2) 顛會一髮際一 廉泉一 風池二 天柱二 : 底本에는 없으나 『靈樞熱病』에 근거하여 15자를 추가하였다.

#### 【註釋】

(1) 氣口(기구) : 寸口. 脈을 보는 부위의 하나로 양 팔목의 撓骨경상돌기 안쪽 脈이 뛰는 곳.

(2) 靜(정) : 脈狀이 중간 정도의 힘으로 박동하는 것.<sup>64)</sup>

63) Mark H. Beers 등. 머크매뉴얼 제17판. 서울. 도서출판한우리. 2003. p.2183.

(3) 人迎(인영) : 脈 보는 부위의 하나. 후두 결절 양 옆의 頸動脈 부위에서 脈이 뛰는 곳.

(4) 躁(조) : 浮疾하고 有力한 脈狀<sup>65)</sup>

(5) 瘡(유) : 刺針하는 穴자리를 뜻한다. \* 瘡瘡謂 癩痕, 흉터 유

(6) 顛會(신회) : 前髮際에서 2寸 들어간 곳에 위치하는 督脈의 穴.

(7) 廉泉(염천) : 턱과 갑상연골의 중간에 해당하는 任脈의 穴.

(8) 風池(풍지) : 風府穴(GV16) 兩傍으로 枕骨下陷中에 위치하는 足少陽膽經의 穴.

(9) 天柱(천주) : 瘡門穴(GV15) 兩傍 1.5寸에 위치하는 足太陽膀胱經의 10번째 穴.

#### 【國譯】

熱病이 발생한지 3일째에 氣口脈의 脈狀은 정상적이고 人迎脈은 躁動하면, 諸陽經의 五十九穴에 刺針하여 그 熱을 瀉하면서 發汗시키고, 陰을 實하게 하여 그 不足한 陰을 補한다. 五十九刺란 양손의 外側과 內側에 각각 3개씩 모두 12穴, 다섯 손가락의 사이에 하나씩 모두 8穴, 발에도 마찬가지로 8穴이다. 머리의 髮際로부터 1寸 들어가 양방 3分 거리에 각 3개씩 모두 6穴, 다시 3寸을 더 들어가 주변으로 각 5개씩 모두 10穴, 귀의 前後와 입 아래 그리고 뒷목 중앙에 하나씩 모두 6穴, 두정부에 1穴, 顛會, 前髮際와 後髮際, 廉泉 각 1개씩, 風池 2개, 天柱 2개로 합하여 59穴이다.

#### 【考察】

底本에 따르면 五十九刺의 수를 다 더해도 51개 밖에 되지 않는다. 『靈樞熱病』에는 ‘顛會一 髮際一 廉泉一 風池二 天柱二’의 15자가 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추가하였다. 이를 다 더해도 하나가 모자라는데, ‘髮際一’을 前髮際와 後髮際에 각 하나씩으로 하면 59穴이 완성된다.

64) 朴 炆.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361. “凡脈 以得中爲靜, 太過而爲盛之極, 不及而爲衰之極 俱謂之動”

65) 朴 炆.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320.

59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역대 注釋家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兩手外內側各三의 凡十二疔’는 제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여 商陽中衝少衝關衝少澤少商으로 手三陰三陽經의 井穴에 해당한다. 단 馬蒔는 少商 대신 魚際로 注釋하였다. ‘五指間各一’과 ‘足亦如是’는 手足第三節縫間에 해당하고, 景岳 등은 手の 後谿中渚三間少府와 발의 束骨臨泣陷谷太白으로 注釋하였다. ‘頭入髮一寸 傍三分 各三’은 제가들이 일치하여 五處承光通天이라 注釋하였다. ‘更入髮三寸 邊各五’에 대해서도 臨泣目窓正營承靈腦空으로 諸家の 注釋이 일치한다. ‘巔上一’과 ‘髮際一’은 百會와 神庭·風府다. ‘耳前後口下項中各一’의 穴자리에 대해서 차이가 제일 많은데 馬蒔는 聽會完骨·承漿·風府로 보았고, 張志聰은 禾膠·浮白·承漿·大椎로, 景岳 등은 聽會完骨·承漿·瘰癧門으로 보았다.<sup>66)</sup> ‘五十九穴’은 『素問水熱穴論』에도 나오는데, 부위가 전혀 다르다.<sup>67)</sup>

【結論】

本章은 『靈樞熱病』에서 인용된 것으로 熱病을 치료하는 五十九刺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4章 五臟熱病의 皮·肉·筋·脈·骨의 刺針

【原文】

熱病에 先膚痛室<sup>(1)</sup>鼻充面<sup>(2)</sup>하면 取之皮호대 以第一針<sup>(3)</sup>으로 五十九라 苛<sup>(4)</sup>齒<sup>(5)</sup>爲軫<sup>(1)(6)</sup> 一云 苛軫이라 鼻는 索<sup>(7)</sup>皮於肺하고 不得이면 索之火니 火는 心也라

熱病에 噎<sup>(8)</sup>乾多飲善驚臥不能安<sup>(2)</sup>하면 取之

膚肉<sup>(3)</sup>호대 以第六針<sup>(9)</sup>으로 五十九라 目瞽<sup>(10)</sup>赤<sup>(4)</sup>은 索肉於脾하고 不得이면 索之木이니 木은 肝也라

熱病而胸脇痛<sup>(5)</sup>手足躁<sup>(11)</sup>하면 取之筋間호대 以第四針<sup>(12)</sup>으로 針於四達<sup>(6)</sup>이라 一作逆이라 筋辟<sup>(7)(13)</sup>目浸<sup>(14)</sup>은 索筋於肝하고 不得이면 索之金이니 金은 肺也라

熱病에 數驚癎瘕<sup>(15)</sup>而強<sup>(8)</sup>하면 取之脈호대 以第四針으로 急寫有餘者라 癎瘕<sup>(16)</sup>毛髮去는 索血 一作脈이라 於心하고 不得이면 索之水니 水는 腎也라

熱病而身重骨痛耳聾而好瞑<sup>(17)</sup>하면 取之骨호대 以第四針으로 五十九라 骨病食齧<sup>(18)</sup>牙齒<sup>(9)</sup>耳清<sup>(10)(19)</sup>은 索骨於腎하고 無 一本엔 作不이라 得이면 索之土니 土는 脾也라

熱病에 先身溻傍<sup>(20)</sup>教<sup>(21)</sup>傍教이 太素엔 作倚라 煩悶<sup>(11)</sup>乾唇噎<sup>(12)</sup>하면 取之<sup>(13)</sup>以第一針五十九라 膚<sup>(14)</sup>脈<sup>(22)</sup>口乾寒汗<sup>(15)</sup>出은 索脈於心하고 不得이면 索之水니 水者는 腎也라

【校勘】

1) 苛齒爲軫 : 『靈樞熱病』에는 ‘苛軫’으로 되어 있다.

2) 安 : 『靈樞』에는 ‘起’로 되어 있다.

3) 膚肉 : 『靈樞』에는 ‘皮肉’으로 되어 있다.

4) 赤 : 『靈樞』에는 ‘青’으로 되어 있다.

5) 而胸脇痛 : 『靈樞』에는 ‘面青腦痛’으로 되어 있다.

6) 四達 : 『靈樞』에는 ‘四逆’으로 되어 있다.

7) 辟 : 『靈樞』에는 ‘覽’으로 되어 있다.

8) 強 : 底本에는 ‘狂’으로 되어 있으나, 癎瘕은 痙攣이고, 痙攣이 일면 근육이 뻣뻣해져서 미처 날릴 수 없으므로, 『黃本』, 『校釋』, 『文光本』, 『中醫藥本』에 의거하여 ‘強’으로 고쳤다.

9) 食齧牙齒 : 『靈樞』에는 ‘不食齧齒’로 되어 있다.

10) 清 : 『靈樞』에는 ‘青’으로 되어 있다.

11) 傍教煩悶 : 『靈樞』에는 ‘倚而熱 煩惋’으로 되어 있다.

12) 噎 : 『靈樞』에는 ‘口噎’으로 되어 있다.

13) 取之 : 『靈樞』에는 ‘取之皮’로 되어 있다.

66)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658. 中卷. 諸家の 注釋은 原典을 직접 찾지 않고 靈樞集成 熱病第 23篇을 참고하였다.

6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7. 7卷. “머리 위 5줄의 각 줄의 5穴은 모든 陽의 熱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發越시키고 大杼, 膺俞, 缺盆, 背俞의 8穴은 胸中の 熱을 瀉하고 氣街, 三里, 巨虛上廉, 巨虛下廉의 8穴은 胃中の 熱을 瀉하고 雲門, 蹻骨, 委中, 髓空의 8穴은 四肢의 熱을 瀉하고 五臟俞의 양쪽 옆의 10穴은 五臟의 熱을 瀉하니 이 59穴은 모두 熱病을 치료하는 穴입니다.”

14) 膚 : 『校注』에 ‘『靈樞』에 ‘腹’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나, 本 論文에서 校勘으로 사용한 『靈樞』에는 ‘膚’로 되어 있다.

15) 寒汗 : 底本에는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지만, 위의 文章들의 例로 볼 때 脫文이 분명하므로, 『靈樞』에 근거하여 뒤에 ‘出 索脈于心 不得索之水 水者腎也’를 보충하였다.

#### 【註釋】

- (1) 窒 : 塞也, 막힐 질
- (2) 充 : 肥也, 살찐 충
- (3) 第一針(제일침) : 九針 중의 하나인 참침(鑿針)으로 길이 1.6寸이고 침 끝이 예리하며 화살 끝 모양으로 생겼다. 피부를 얇게 찢러 피를 뽑는데 頭痛, 熱證의 치료에 썼다. \* 鑿 : 보습 참
- (4) 苛 : 細也, 자잘할 가
- (5) 菌 : 地蕈, 버섯 균
- (6) 軫 : 通疹<sup>68)</sup>, 헌데 진
- (7) 索(색) : 章楠의 『靈素節注類編』에 ‘무릇 索은 針을 사용하여 氣를 이끌어 氣가 이르는 것이 索得이다.’고 하였다.<sup>69)</sup>
- (8) 噎 : 咽喉, 목구멍 익, 액으로 읽기도 한다.
- (9) 第六針(제육침) : 九針 중의 하나인 圓利針으로 길이 1.6寸이고 침대는 둥글며 중간은 약간 굵고 끝은 예리하다. 급성 질병과 癰疽, 痺證을 치료하는데 썼다.
- (10) 瞽 : 目匡, 눈초리 제
- (11) 躁(조) : 躁動, 手足을 분주히 움직이는 것. \* 躁 : 不安定, 바스달 조
- (12) 第四針(제사침) : 九針 중의 하나인 鋒針으로 길이 1.6寸이고 침날이 둥글고 침 끝이 날창처럼 세모난 침이다. 피를 뽑거나 癰疽 및 熱病 치료에 썼으며 현재의 三稜針에 해당한다. \* 鋒 : 刀末, 칼끝 봉
- (13) 辟 : 與躄通, 足痿也, 절름발이 벽
- (14) 目浸(목침) : 눈물이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 \* 浸 : 涵也, 젖을 침

(15) 癩癧(계종) : 힘줄이 뻣뻣해지면서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는 증상이 번갈아 나면서 오랫동안 되풀이 되는 증.

(16) 癩疾(전질) : 文癩, 痰氣가 막히거나 心血不足으로 생기는 精神病으로 우울하고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며 웃거나 울기도 하고 때로 노래 부르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

(17) 瞶 : 翕目, 눈감을 멍

(18) 食齧牙齒(식설아치) : 음식물로 인해 치아가 썩는 것.<sup>70)</sup> \* 齧 : 噬也, 씹을 설

(19) 靑 : 寒也, 찼 청

(20) 傍 : 旁同, 一縱 一橫爲午, 猶言交橫也, 오락가락할 방

(21) 教(발) : 同勃, 變色貌. 안색이 변한다는 뜻이다.<sup>71)</sup>

(22) 膚脹(부창) : 陽氣不足으로 寒邪가 皮下에 머물러 있어서 온몸이 붓는 것.

#### 【國譯】

熱病에 먼저 피부가 아프고, 코가 막히며, 얼굴이 부으면 第一針인 참침(鑿鍼)으로 피부에 五十九刺하여 치료한다. 코에 자잘하게 부스럼이 생긴 경우는 邪熱이 肺로 들어간 것이니 肺와 상응하는 피부에서 病邪를 찾아내고, 효과가 없으면 火經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火經은 心經이다.

熱病에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잘 놀라고, 편히 누울 수 없으면 熱이 肌肉에 있는 것이니 第六針인 圓利침(圓利針)으로 五十九穴의 肌肉에 刺針한다. 눈자위가 붉어지면 邪氣가 脾로 들어간 것이니, 脾와 相應하는 肌肉에서 病邪를 찾아내고 효과가 없으면 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木經은 肝經이다.

熱病에 胸脇이 아프고, 불안하게 手足을 움직이면 열이 筋에 있는 것이니, 第四針인 鋒침(鋒針)으로 筋 사이에 刺針하여 氣가 四肢에 도달하게 한다. 어떤

68)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2. “苟菌爲軫鼻 指鼻生細密之疹…軫, 通「疹」.”

69)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637. “凡言索者 用針引氣 氣至爲索得也” 章楠 靈素節注類編再引用.

7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44. “齧, 齧齧的意思. 此處指因骨病齒枯軟, 食物腐蝕牙齒.”

7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47. “變色之意”

本에는 ‘四達’이 ‘四逆’으로 되어 있다. 근육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고 눈물이 계속 나오면 邪氣가 肝으로 들어간 것이니 肝과 相應하는 筋에서 病邪를 찾아내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金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金經은 肺經이다.

熱病에 자주 놀라고 경련이 일면서 신체가 強直하면 第四針인 崩침으로 血脈에 刺針하여 급히 血中の 有餘한 邪氣를 瀉한다. 癲疾에 머리칼이 빠지면 血熱을 心經에서 찾아내고, 어떤 本에는 ‘血’이 ‘脈’으로 되어 있다. 효과가 없으면 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水經은 腎經이다.

熱病에 몸이 무겁고, 골절이 아프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있기를 좋아하면 第四針(鋒針)으로 五十九穴의 骨에 刺針한다. 骨이 病들어 치아가 약해져서 식물이 치아를 부식하고, 귀가 차가우면 腎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土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土經은 脾經이다.

熱病에 먼저 온몸이 까칠하여 윤기가 없고 피부색이 변하며, 『太素』에는 ‘傍教’이 ‘倚’로 되어 있다. 煩悶이 생기고 입술과 목구멍이 건조하면 第一針인 鑱針으로 五十九穴에 刺針한다. 전신의 피부가 붓고, 입이 마르며, 차가운 땀을 흘리면 心과 相應하는 脈에서 病邪를 찾아내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니 水經은 腎經이다.

【考察】

‘索皮於肺不得索之火火心也’에서 관점에 따라 ‘不得索之火 火心也’로 볼 때와 ‘不得索之火 火心也’로 볼 때 의미가 달라진다. 『靈樞熱病』에 대한 千의 연구<sup>72)</sup>는 不得索之火의 不得을 “~하면 안된다”의 禁止文으로 해석하였으나, 不得을 後者和 같이 “치료되지 않으면”으로 보아야 전체 문장의 흐름에 맞는다. 本篇에서 五十九刺나 刺針法은 熱病을 치료하는 瀉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熱病의 증상이 肺經의 熱로 보일 때, 일단 實證으로 보고 肺經을 刺針하여(瀉하여) 치료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虛熱이므로 肺를 克하는 心經을 瀉하여 肺를 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結論】

本章은 五臟 熱病의 증상과 刺針 방법, 針의 종류에 대하여 논하였다.

第 5章 熱病의 증상에 따른 刺針

【原文】

熱病에 頭痛攝 攝이 一作顛顛<sup>(1)</sup>라 目脈緊<sup>(1)(2)</sup> 善衄은 厥熱<sup>(3)</sup>也니 取之以第三針<sup>(4)</sup>하야 視有餘不足寒熱病<sup>(2)</sup>이라

熱病에 體重腸中熱<sup>(5)</sup>엔 取之以第四針으로 於其輸<sup>(6)</sup>及下諸指間하야 索氣於胃絡<sup>(3)</sup>하야 得氣<sup>(7)</sup>也라

熱病依臍痛急胸脇支滿<sup>(8)</sup>하면 取之涌泉 與太陰陽明<sup>(1)</sup> 一云엔 陰陵泉이라 以第四針하고 針啞裏<sup>(9)</sup>라

熱病而汗且<sup>(10)</sup>出이나 反<sup>(5)</sup>脈順하고 可汗者는 取之魚際太淵太都太白하야 寫之則熱去요 補之則汗出이나 汗出太甚者는 取內踝上橫脈<sup>(6)(11)</sup>하야 以止之라

熱病七日八日에 脈口動<sup>(12)</sup>喘而眩<sup>(7)</sup>者는 急刺之면 汗且自出하니 淺刺手大指間이라

熱病에 先胸脇痛手足躁하면 刺足少陽補手太陰하고 病甚爲五十九刺라

熱病에 先手臂痛하면 刺手陽明太陰而汗出이면 止라

熱病이 始於頭首<sup>(8)</sup>者는 刺項太陽而汗出이면 止라

熱病에 先身重骨痛耳聾<sup>(13)</sup>目瞑하면 刺足少陰하고 病甚이면 爲五十九刺라 一云엔 刺少陽이라

熱病에 先眩冒而熱胸脇<sup>(9)</sup>滿하면 刺足少陰少陽이라

熱病이 始足脛者는 先取足陽明而汗出<sup>(10)</sup>이라

72)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644. 中卷.

## 【校勘】

- 1) 攝目脈緊: 『靈樞熱病』에는 ‘顛顛目瘦脈痛’으로 되어 있고, 『中醫藥本』, 『校釋』에는 ‘攝目脈緊’으로 되어 있다.
- 2) 寒熱病: 『靈樞熱病』에는 ‘病’이 ‘痔’로 되어 있다.
- 3) 胃絡: 『靈樞』에는 ‘胃絡’으로 되어 있는데 胃絡이 맞다. \* 絡: 거드랑이 각
- 4) 太陰陽明: 『靈樞』에는 ‘陰陵泉’으로 되어 있다.
- 5) 反: 『錢本』, 『中醫藥本』, 『華夏本』, 『靈樞』에는 ‘及’으로 되어 있다.
- 6) 內踝上橫脈: 원래는 ‘踝上橫文’으로 되어 있으나, 踝에는 內踝와 外踝가 있기 때문에, 『靈樞』에 의거하여 고치면 뜻이 명확하다.
- 7) 眩: 『靈樞』에는 ‘短’으로 되어 있다.
- 8) 首: 『黃本』에는 ‘手’로 되어 있고 大成本에는 없다.
- 9) 脇: 『黃本』, 『校釋』, 『大成本』에는 모두 ‘膈’으로 되어 있다.
- 10) 汗出: 『中醫藥本』, 『大成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에는 뒤에 ‘止’가 있다.

## 【註釋】

- (1) 顛顛(섭유): 눈의 側面으로 씹을 때마다 筋肉이 움직이는 부분.
- (2) 攝目脈緊(섭목맥긴): 관자놀이 부위와 눈동자 사이에 經脈이 緊縮되는 것을 가리킨다.<sup>73)</sup> \* 攝: 通顛, 관자놀이 씹
- (3) 厥熱(귓열): 熱邪가 상승하여 발생한 厥證으로, 太陽穴부위와 눈 부위의 絡脈이 오그라들면서 아프고, 때로 코피가 난다.
- (4) 第三針(제삼침): 九針 중의 하나인 시침(鍤針)으로 길이는 3.5寸, 끝이 기장이나 좁쌀처럼 예리하여 경맥을 자극하되 肌肉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여 正氣를 이르게 한다. 어린이와 쇠약한 사람의 虛證에 흔히 쓴다. \* 鍤: 匙字, 손가락 시
- (5) 腸中熱(장중열): 胃, 大小腸의 熱로 보아야 한

73)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4. “攝目脈緊, 指顛部與眼睛之間的經脈緊縮”

다. 張景岳은 “大腸과 小腸은 모두 胃에 속하니 邪氣가 胃에 있으면 腸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74)</sup>

- (6) 輸(수): 經絡의 氣가 흘러 들어간다는 뜻에서 針穴을 輸라고 한다.
- (7) 得氣(득기): 針感을 말한다.
- (8) 胸脇支滿(흉협지만): 胸脇苦滿. 胸脇部가 심하게 그득한 감을 느끼며 위로 치받는 증상. \* 支: 받칠 지
- (9) 噎裏(익리): 廉泉穴을 가리킨다.<sup>75)</sup>
- (10) 且: 將也, 장차 차
- (11) 內踝上橫脈: 類經에 근거하여 三陰交로 하였
- (12) 動(동): 動脈은 콩알같이 동글동글한 것이 제 자리에서 움직이는 脈狀이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搏動하는 躁動으로 보아야 한다.
- (13) 耳聾(이롱):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

## 【國譯】

熱病에 머리가 아프고 관자놀이와 어떤 본에는 ‘顛顛’이 ‘顛顛’로 되어 있다. 눈동자 사이의 經脈이 오그라들고 코피를 흘리는 것은 厥熱이니 第3針인 시침(鍤針)으로 그 병의 有餘, 不足과 寒熱을 살펴 치료한다.

熱病에 몸이 무겁고 腸 속에 熱이 있으면 第四針인 鋒針으로 해당하는 輸穴(太白陷谷)과 발가락 사이의 穴(大都厲兌內庭等)을 刺針하고 胃의 絡穴(公孫豐隆)에서 氣를 치료하여 得氣한다.

熱病에 걸려 배꼽 주변이 아프고 당기며 胸脇部가 심하게 그득하면 湧泉穴과 함께 太陰經과 陽明經의 經穴에 어떤 본에는 ‘陰陵泉’으로 되어 있다. 第四針인 鋒針으로 刺針하고 咽喉의 廉泉穴도 刺針한다.

熱病에 땀이 내려하지만 脈이 順하여 發汗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魚際, 太淵, 大都, 太白을 刺針하여 瀉하면 熱이 사라지고, 補하면 땀이 나온다. 땀이 심

74)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736. “脾主肌肉四肢 邪在脾故體重 大腸小腸 皆屬於胃 邪在胃則腸中熱”

75)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4. “噎裏 卽 廉泉穴. 張介賓 類經 21卷 諸熱病死生刺法: 「針噎裏者 以少陰太陰之脈俱上絡咽喉卽 下文所謂廉泉也」”

하게 나면 內踝 위 橫脈에 刺針하여 汗을 멈추게 한다.

熱病이 7~8일이 지나서 寸口脈이 躁動하고, 숨이 차면서 눈이 어지러운 경우는 급히 刺針하면 곧이어 汗이 나오니, 엄지손가락 사이를 淺刺한다.

熱病에 먼저 胸脇이 아프고, 손발을 분주히 움직이면 足少陽經의 臨泣에 刺針하고, 手太陰經의 太淵을 補하며, 병이 심하면 五十九穴에 刺針한다.

熱病에 먼저 팔뚝이 아프면 手陽明經의 陽谿와 手太陰經의 太淵을 刺針하고 汗이 나면 통증이 그친다.

熱病이 머리에서 시작하면 뒷목의 太陽經에 刺針하여 汗이 나면 낫는다.

熱病에 먼저 몸이 무겁고, 골절이 아프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을 감으려 하면 足少陰經의 太谿에 刺針하고, 병이 심하면 五十九穴에 刺針한다. 어떤 본에는 ‘少陽에 刺針한다’고 하였다.

熱病에 먼저 눈이 어지럽고 머리를 싸맨 것처럼 무겁고 열이 나며 胸脇이 그득하면 足少陰經의 太谿와 足少陽經의 臨泣에 刺針한다.

熱病이 발과 정강이에서 시작하면 먼저 足陽明經의 衝陽에 刺針하여 汗을 낸다.

#### 【考察】

이 후에서는 刺針치료에 구체적인 穴名을 밝힌 부분과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校釋』과 『中醫藥本』 그리고 『精譯』의 刺針穴에 대한 解釋이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各家의 說을 비교하면 아래의 表1과 같다.

이외에도 手足三陰三陽의 명칭이 鍼灸方에 쓰였기 때문에 經脈穴로 보고 해당 經의 原穴로 해석하였다.

‘熱病而汗且出 反脈順 可汗者 取之魚際 太淵 太都 太白 寫之則熱去 補之則汗出 汗出太甚者 取內踝上橫脈以止之’는 針法을 통해 發汗과 止汗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魚際 太淵 太都 太白은 手足太陰經의 火穴과 土穴에 해당하는데, 이 네 穴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校釋』 등은 ‘4穴을 모두 瀉한다’고 하였고, 張志聰<sup>76)</sup>

은 4穴의 운용에 대해 세분하여, ‘肺經(魚際 太淵)을 瀉하면 熱이 사라지고, 脾土(太都 太白)를 補하면 津液이 생겨 汗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五輸穴의 五行 속성상, 瀉法을 써서 열이 내리기 위해서는 火穴을 瀉하는 것이 맞으므로, 4穴 중에서 太都和 魚際를 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內踝上橫脈’의 止汗 효능이 있는 穴을 여러 注家들이 三陰交로 보고 있다. 三陰交가 止汗하는 기전에 대하여 張志聰은 “汗이 원래 氣를 따라 외부로 宣發되므로 下肢에 있는 三陰交에 刺針해 그 氣를 下行시킴으로써 汗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sup>77)</sup>고 하였다.

#### 【結論】

本章은 주로 『靈樞熱病』과 『素問刺熱』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러 가지 熱病의 증상에 따른 刺針과, 熱病의 부위에 따른 刺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穴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 病不可水證 第十四

#### (水法을 쓸 수 없는 病證 제14)

76)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649. 中卷. “此 外因之熱 與肺熱 相交 可俱從汗解矣 熱病而汗且出及脈順者 外內之熱 皆在於膚表也 故取 手太陰之魚際太淵 補足太陰之太都太白 蓋瀉肺經則熱去 補脾土則津液生而汗出矣”

77) 張志聰 “蓋汗隨氣而宣發於外 取氣下行則汗止矣”

	其輸	下諸指間	胃絡	噎裏	取內踝上橫脈	手大指間
校釋	太白과 陷谷	厲兌, 隱白, 大都, 內庭	公孫, 豐隆	廉泉	三陰交	少商
精譯	太白과 陷谷	厲兌, 大都, 內庭 등	公孫, 豐隆	廉泉	三陰交	少商
中醫藥本	脾胃經의 腧穴	발가락 사이의 腧穴	胃經의 絡穴	廉泉	三陰交	少商

표 1. 熱病의 刺針 穴位

## 【原文】

發汗後에 飲水多者는 必喘<sup>(1)</sup>이요 以水灌<sup>(2)</sup>之하여도 亦喘이라

傷寒에 大吐大下之하여 極虛한데 復極汗者는 其人이 外氣拂鬱<sup>(3)</sup>이라 復與之水하여 以發其汗하면 因得噦<sup>(4)</sup>이라 所以然者는 胃中寒冷故也라

陽明病潮熱微堅에 可與承氣湯<sup>(1)</sup>이나 不堅이면 勿與之라 若不大便六七日에 恐有燥屎<sup>(5)</sup>어든 欲知之法은 少<sup>(2)</sup>與小承氣湯<sup>(3)(6)</sup>하여 若腹中不轉失<sup>(4)</sup>氣<sup>(7)</sup>者는 此爲但頭堅後澹이니 不可攻之요 攻之<sup>(5)</sup>면 必腹滿不能食하고 欲飲水者는 卽噦이라

陽明病에 若胃中虛冷하면 其人不能食하고 飲水卽噦<sup>(6)</sup>이라

下利에 其脈浮大면 此爲虛니 以強下之故也라 設脈浮革<sup>(7)</sup>하고 因爾腸鳴하면 當溫之니 與水卽噦이라

病在陽<sup>(8)</sup>이면 當以汗解나 而反以水噉<sup>(9)</sup>之커나 若灌之면 其熱却不得去하여 益煩皮上粟起라 意欲飲水나 反不渴<sup>(8)</sup>하면 宜文蛤散<sup>(10)</sup>이요 若不差면 與五苓散<sup>(11)</sup>이라 若寒實結胸<sup>(12)</sup>으로 無熱證者는 與三物小陷胸湯<sup>(13)</sup>이요 白散<sup>(14)</sup>도 亦可라 身熱皮粟不解하고 欲引衣自覆에 若以水噉之洗之면 益令熱却不得出하고 當汗而不汗卽煩이라 假令汗出已에 腹中痛하면 與芍藥三兩을 如上法<sup>(15)</sup>이라

寸口脈이 浮大에 醫反下之면 此爲大逆이라 浮卽無血이요 大卽爲寒이니 寒氣相搏卽爲腸鳴라 醫乃不知하고 而反飲水하여 令汗大出하면 水得寒氣하여 冷必相搏하여 其人이 卽飢<sup>(16)</sup>이라

寸口脈이 濡而弱하면 濡卽惡寒하고 弱卽發

熱하니 濡弱相搏하면 藏氣衰微하여 胸中苦煩이라 此는 非結熱이나 而反薄居<sup>(17)</sup>하고 水漬布冷鈹<sup>(18)</sup>貼<sup>(19)</sup>之면 陽氣遂<sup>(20)</sup>微하여 諸府無所依하여 陰脈凝聚結在心下하여 而不肯移하고 胃中虛冷하여 水穀不化하고 小便縱<sup>(21)</sup>通 이나 復不能多라 微則可救나 聚寒心下면 當奈何也리요

## 【校勘】

1) 承氣湯 :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第八』에는 ‘大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2) 少 : 底本에는 ‘可’로 되어 있으나, 燥屎의 有無를 試驗하기 위한 것이므로 ‘少與’가 타당하다. 『傷寒』에 의거하여 고쳤다.

3) 小承氣湯 : 『傷寒』에는 뒤에 ‘湯入腹中 轉失氣者 此有燥屎也 乃可攻之’가 더 있다.

4) 失 : 『膠本』에는 없고, 『匯海本』, 『文光本』에는 ‘矢’로 되어 있다.

5) 攻之 : 『繆本』에는 없다.

6) 卽噦 : 『傷寒』에는 ‘與水則噦 其後發熱者 必大便變硬而少也 以小承氣湯和之 不轉失氣者 慎不可攻也’로 되어 있다.

7) 革 : 『繆本』에는 ‘緊’으로 되어 있다.

8) 反不渴 : 『校釋』, 『文光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에는 ‘反而渴’로 『朱本』, 『張本』, 『廣本』에는 ‘反熱渴’로 되어 있다.

## 【註釋】

(1) 喘(천) : 喘症.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숨찬 것을 主症으로 하며 숨이 몹시 차서 콧방울을 벌름거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바로 눕지 못한다.

(2) 灌(관) : 外治法の 하나로 찬물을 뿌려 체온을 내리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灌은 물을 입으로 뽑는

嘔 보다 더 심한 것이다.

(3) 佛鬱(불울) : 뱀혀 엉기는 것. \* 佛 : 鬱也, 답답할 불

(4) 噦(열) : 呃逆. 딸국질. 胃氣가 하강하지 못하고 上逆하여 횡격막에 痙攣이 일어서 생긴다.

(5) 燥屎(조시) : 대변이 腸 속에 굳어서 단단하게 뭉친 것.

(6) 小承氣湯(소승기탕) : 大黃 4錢, 厚朴 枳實 各 1錢半. 이상을 한 貼으로 하여 水煎服한다.

(7) 轉失氣(전실기) : 矢氣, 失氣라고도 한다. 방귀.

(8) 陽(양) : 太陽. 『校釋』에 病在太陽으로 語譯하였다.

(9) 嘔(손) : 治法의 하나. 찬물을 몸의 표면에 뿌어서 열을 내리는 방법이다. \* 嘔 : 噴水, 물 뿌을 손

(10) 文蛤散(문합산) : 文蛤<sup>78)</sup> 5냥. 가루로 만들어 끓인 물에 1돈씩 타서 복용한다. 달여서 복용할 때는 5홉을 쓴다.

(11) 五苓散(오령산) : 澤瀉 2錢半, 赤茯苓, 白朮, 猪苓 各 1錢半, 肉桂 5分. 이상의 5가지 약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혹은 썰어서 한 貼으로 한 다음 水煎服한다.

(12) 寒實結胸(한실결흉) : 寒實의 邪氣가 心胸에 뭉쳐서 생기는 병증으로 胸脇部와 心下가 硬滿而痛하고 氣喘咳逆이 나타난다.

(13) 三物小陷胸湯(삼물소함흉탕) : 小陷胸湯. 半夏 5錢, 黃連 2錢半, 瓜蒌實 큰 것 四分之一. 이상의 3가지 약으로, 물 2盞에 먼저 瓜蒌를 넣고 달여 1盞으로 줄이고, 나머지 약을 넣어서 반이 되도록 줄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설사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14) 白散(백산) : 三物白散. 桔梗 貝母 各3錢, 巴豆(껍질과 심을 제거하고 겉게 붉은 다음 찢어서 기름기는 제거하고 쓴다.) 1錢. 이상의 세 약을 가루로 만드는데, 巴豆를 절구에 넣고 찢어서 쌀가루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튼튼한 사람은 반 돈을 쓰고, 허약한 사람은 줄여서 쓴다. 病이 횡격막 위에 있으면 반

드시 토하고, 횡격막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설사한다. 설사하지 않으면 뜨거운 죽 1사발을 먹이고, 설사가 과해서 그치지 않으면 식은 죽 1사발을 먹인다.

(15) 上法(상법) : 『傷寒論』에는 이 문장 앞에 白散 등의 處方 조문이 있는데,<sup>79)</sup> 上法이란 앞서 소개된 處方의 煎湯法을 말하는 것이다.

(16) 餽(열) : 氣逆하여 목이 막히는 것으로 噦의 상황과 유사하나 噦는 소리가 있고 餽은 소리가 없는 것이 다르다. \* 餽 : 食不下, 밥 체할 열

(17) 薄居(박거) : 옷을 얇게 입고 지내는 것을 말한다. \* 薄 : 얇을 박

(18) 銚 : 燒器. 자루 달린 냄비 요

(19) 貼 : 黏置, 붙일 첩

(20) 遂 : 竟也, 마침내 수

(21) 縱 : 雖也, 비록 중

【國譯】

發汗시킨 뒤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喘症이 생기고, 灌法을 써도 喘症이 생긴다.

傷寒에 심하게 토하고 설사시켜 매우 허해진데다 다시 심하게 땀을 내면 환자의 外氣가 땀혀서 풀리지 않는다. 여기에 다시 물을 먹여 發汗시키면 이어서 딸국질이 나게 된다. 이는 胃中이 寒冷해졌기 때문이다.

陽明病으로 潮熱이 있고 大便이 약간 딱딱하면 承氣湯을 쓸 수 있으나, 大便이 단단하지 않으면 써서는 안된다. 만약 대변을 보지 못한지 6, 7일이 되어서 燥屎가 있는지 염려되면, 알아보는 방법으로 小承氣湯을 조금 투여한다. 湯을 먹고 배에서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이는 대변의 시작만 단단하고 그 뒤에는 溏泄로 나오니 下劑로 攻伐해서는 안된다. 만약 下劑를 쓰면 반드시 배가 脹滿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 하면 바로 딸국질이 난다.

陽明病에 만약 胃中이 虛冷하면 환자는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면 바로 딸국질을 한다.

설사하면서 脈狀이 浮大하면 이는 虛證이니, 무리

78) 傷寒 처방에 쓰이는 文蛤은 백합조개다. 文蛤의 性味는 鹹寒하고 肺腎經으로 들어간다. 효능은 清熱利濕, 除煩止渴한다.

79) 傷寒 141條에는 處方이 언급된 후 處方의 내용과 服藥法을 제시하였는데 脈經엔 이 부분을 생략하였다. ‘病在陽…如上法’은 傷寒條文141條에 해당한다.

하게 下法을 썼기 때문이다. 가령 脈狀이 浮革하면서 腸鳴이 있으면 溫法을 써야 하는데, 물을 마시게 하면 바로 딸꾹질을 한다.

병이 太陽에 있으면 發汗시켜 풀어야 하나, 반대로 물을 뺐거나 뿌리면, 그 熱이 도리어 없어지지 않아 더욱 心煩이 생기고, 살갓에 소름이 돋는다. 마음으로는 물을 마시고자 하나 도리어 갈증이 없으면 文蛤散을 쓴다. 만약 文蛤散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五苓散을 투여한다. 만약 寒實結胸으로 熱證이 없으면 三物小陷胸湯을 쓰거나 白散을 복용시켜도 된다. 몸에 열이 나면서 소름이 돌아 풀리지 않고, 옷을 껴입으려 하는데다가 물을 뺐거나 뿌리면, 더욱 열이 나가지 못하고, 땀이 나야 하나 나지 않아 煩躁症이 생긴다. 가령 땀을 낸 다음 배가 아프면 芍藥 3兩을 이전의 전당법과 같이 달여서 투여한다.

寸口脈이 浮大한데 의사가 도리어 下法을 썼으면 이는 매우 잘못 치료한 것이다. 脈이 浮하면 血이 없어 氣만 바깥으로 떠오른 것이고 脈이 大하면 속이 寒冷한 것이니, 寒과 氣가 뒤섞이면 腸鳴이 생긴다. 의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물을 마시게 하여 땀을 많이 내면, 이 수가 寒과 氣를 얻어 冷이 뒤섞이므로 환자는 氣가 거슬러 올라가 목이 막히게 된다.

寸口脈이 濡하면서 弱하면, 濡엔 惡寒이 나타나고 弱엔 熱이 나니, 濡과 弱이 뒤섞인 것은 藏의 기운이 衰弱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진다. 이는 熱이 鬱結된 것이 아닌데 도리어 옷을 얇게 입고, 물에 적신 수건이나 찬 용기를 몸에 대어 열을 식히면, 陽氣가 마침내 미약해져서 모든 府가 의지할 곳이 없고, 陰脈이 心下에 엉겨 맺혀서 잘 옮겨가지 않는다. 胃 속이 虛冷하여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소변이 비록 나오기는 하나 양이 많지 않다. 증상이 경미하면 치료할 수 있으나, 寒氣가 心下에 모여서 맺힌 것은 어찌 하겠는가.

#### 【考察】

『素問·刺熱論』<sup>80)</sup>에는 熱病의 치료원칙으로 “모든

熱病을 치료할 때에는 먼저 찬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刺針하고, 옷을 얇게 입고 추운 곳에 있게 하여 몸이 식으면 치료를 그친다.”고 하였으니, 즉 熱者寒之이다. 그러나 이는 實熱의 경우이다. 本篇은 虛證性的 熱이나 陽氣가 약해진 경우에 水法을 쓸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 【結論】

本篇은 주로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第七」 과 「辨陽明病脈證并治第八」 에서 인용된 것으로, 水療法을 쓸 수 없는 脈證과 誤治한 후 생기는 變症에 대해 논하였다. 요약하면 寸口脈이 浮大하면서 血虛有寒한 경우, 寸口脈이 濡弱하여 臟氣衰弱한 경우, 陽明潮熱, 腹中不轉矢氣한데 잘못 攻下하여 腹滿하고 먹지 못하는 경우, 陽明病에 胃中虛冷으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모두 水療法의 禁忌에 해당한다. 만약 誤治하면 喘·噦·飢·腹痛 등의 變證이 생긴다.

### 病可水證 第十五

#### (水法을 쓸 수 있는 病證 제15)

#### 【原文】

太陽病을 發汗後에 若大汗出하면 胃中乾燥하여 煩不得眠하니 其人이 欲飲水면 當稍<sup>(1)</sup> 飲之하여 令胃中和則愈라

厥陰病에 渴欲飲水者는 與水飲之即愈<sup>(1)</sup>라

太陽病에 寸口緩<sup>(2)</sup>하고 關上小浮<sup>(2)</sup>하고 尺中弱<sup>(3)</sup>하며 其人이 發熱而汗出이어늘 復惡寒不嘔하고 但心下痞<sup>(4)</sup>者는 此爲醫下也라 若不下에 其人이 復不惡寒而渴者는 爲轉屬<sup>(5)</sup>陽明이라 小便數者는 大便即堅하여 不更衣十日이나 無所苦也라 欲飲水者는 但與之<sup>(3)</sup>하여 當以法救하고 渴엔 宜五苓散이라

寸口脈이 洪<sup>(6)</sup>而大하고 數而滑<sup>(7)</sup>하면 洪大則 榮氣<sup>(8)</sup>長<sup>(9)</sup>이요 滑數則胃氣<sup>(10)</sup>實이라 榮長則陽盛하여 佛鬱不得出身하고 胃實則堅難하여 大便則乾燥하고 三焦閉塞하여 津液不通이라 醫發其汗하면 陽盛不周<sup>(11)</sup>하고 復重下之면 胃燥熱畜<sup>(12)</sup>

8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 4卷. “諸治熱病 以飲之寒水 乃刺之 必寒衣之 居止寒處 身寒而止也”

하야 大便遂擯<sup>(13)</sup>이나 小便不利라 榮衛相搏하야 心煩發熱하고 兩眼如火하고 鼻乾面赤하고 舌燥 齒黃焦 故로 大渴이라 過經<sup>(14)</sup>成壞病<sup>(15)</sup>하야 針藥所不能制니 與水灌枯槁<sup>(16)</sup>하야 陽氣微散하면 身寒하고 溫衣履<sup>(17)</sup>汗出하면 表裏通이라 然其病 卽除나 形脈多不同하니 此愈非法治라 但醫所當 慎妄犯傷榮衛라

霍亂<sup>(18)</sup>而頭痛發熱身體疼痛하고 熱多欲飲水 는 屬五苓散이라

嘔吐而病在膈上하야 後必思水者는 急與猪苓散<sup>(19)</sup>이요 飲之水道 亦得也<sup>(4)</sup>라

【校勘】

1) 與水飲之卽愈：『校釋』、『大成本』、『中醫藥本』、『匯海本』、『文光本』에는 ‘與飲之卽愈’로 되어있고, 『傷寒論卷六第十二』에는 ‘少少與之愈’로 되어 있다.

2) 關上小浮：『傷寒論卷五第八』에는 ‘關浮’로 되어 있다.

3) 但與之：『傷寒』에는 ‘少少與之’로 되어 있다.

4) 後必思水者 急與猪苓散 飲之水 亦得也：『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에는 ‘後思水者解 急與之 思水者 猪苓散主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稍：小也, 조금 초

(2) 緩(완)：緩脈. 健康人의 정상적인 緩脈은 1呼吸에 4번 搏動하고 浮中沈에 걸쳐 부드럽게 搏動하는 脈狀이나, 여기서는 병적인 緩脈으로, 늘어지고 경쾌하지 않게 搏動하는 脈狀이다.

(3) 弱(약)：弱脈. 脈의 形體가 가늘고 작은데 沈細하면서 힘이 없다.

(4) 心下痞(심하비)：胃脘部가 막힌 듯이 불편한데, 눌러서 풀어주면 부드러워져서 아프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로 傷寒에서 表邪가 풀리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攻下시키면, 邪氣가 내부로 끼쳐 들어가서 명치끝에 뭉치게 되어 생긴다.

(5) 轉屬(전속)：어떤 經病이 다른 經病으로 轉變하는 것.

(6) 洪(홍)：洪脈. 매우 大하고 형상이 과도가 세차

게 위로 치솟는 것 같아 脈氣가 오는 것은 세차고 힘이 있으나 脈氣가 가는 것은 약한 脈狀.

(7) 滑(활)：滑脈. 꿰어놓은 구슬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뽑아낼 때처럼 동글동글하고 매끄럽게 손가락에 感應되는 脈狀.

(8) 榮氣(영기)：營氣. 脈 속으로 흐르는 精氣를 말한다.

(9) 長：剩也, 남아돌 장

(10) 胃氣(위기)：脾胃의 생리 기능을 주관하는 기운을 말한다.

(11) 不周(부주)：『新解』에 “땀나는 것이 고르지 않은 것.”<sup>81)</sup>이라 하였다. \* 周：徧也, 두루할 주

(12) 畜：積也, 쌓을 축

(13) 擯(빈)：擯은 ‘斥也, 棄也’로 ‘물리치다, 버리다’의 의미가 있어 대변이 이미 통한 것이다.

(14) 過經(과경)：어떤 經絡의 證候가 다른 經絡의 證候로 전해져서 바뀌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과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壞病(괴병)：太陽病에서 1-2번씩 發汗·吐·下·溫針 등의 방법을 잘못 써서 病情이 악화되고 證候가 뒤섞이면서 복잡해져 六經의 證候로 病證을 구별해 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16) 枯槁(고고)：바삭 메마른 것. \* 槁：枯槁之槁, 나무 마를 고

(17) 覆：蓋也, 덮을 부

(18) 霍亂(곽란)：갑자기 위로는 吐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는 것을 주요 臨床症狀으로 하는 병.

(19) 猪苓散(저령산)<sup>82)</sup>：猪苓, 赤茯苓, 白朮 각 等分. 이상의 세 약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1-2錢씩 물에 타서 복용한다.

【國譯】

太陽病을 發汗시킨 뒤에 만약 너무 많은 땀이 나면 胃 속이 건조해지면서 煩躁症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81) 陣欽銘. 脈經新解.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96. p.599. “不周”此處指汗出不均勻... “張漁帆云 陽盛不周者, 三焦氣化有阻, 氣門又因熱而緊閉, 雖發汗, 亦不得澈, 榮衛園周有缺也.”

82) 傷寒의 猪苓湯은 猪苓, 茯苓, 阿膠, 滑石, 澤瀉 각 1냥으로 處方의 내용이 다르다.

된다. 그 환자가 물을 마시려 하면 바로 조금씩 마시게 해서 胃氣가 기능을 회복하면 낫는다.

厥陰病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는 물을 마시게 하면 낫는다.

太陽病에 寸脈은 緩하고, 關脈은 약간 浮하고, 尺脈이 弱하며, 이 환자가 熱이 나면서 汗이 났음에도 다시 惡寒하면서 嘔症은 없고 단지 心下가 막힌 듯 답답한 것은 의사가 下法을 썼기 때문이다. 만약 下法을 쓰지 않은 경우에 환자가 다시 惡寒하지 않고 갈증이 나는 것은 轉經되어 陽明經에 속한 것이다. 소변이 잦은 사람은 대변이 굳어져 보지 못하는 것이 10일이라도 불편하지 않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을 주되 마땅히 법도에 맞게 하며, 五苓散을 투여한다.

寸口脈이 洪하면서 大하고, 數하면서 滑하면, 洪大한 것은 榮氣가 왕성한 것이고 滑數한 것은 胃氣가 實한 것이다. 榮血 중의 氣가 왕성하므로 陽氣가 울체되어 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胃의 實熱로 대변이 건조하고 딱딱해서 보기 어려워지고, 三焦가 막혀 津液이 통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의사가 發汗法을 쓰면 陽氣가 너무 旺盛하여 汗이 고르게 나지 않고, 다시 거듭 下法을 쓰면 胃에 燥熱이 쌓여 대변이 비록 通하더라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榮衛가 뒤섞여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며, 두 눈이 화끈거리고, 콧속이 마르고, 얼굴이 붉어지며, 혀가 마르고, 이가 누렇게 타기 때문에 갈증이 심하게 난다. 병이 진전되면서 壞病이 되어 針과 藥으로는 치료할 수 없게 되니, 물을 주어 津液이 메마른 것을 적서주면 陽氣가 약간 흠어지면서 몸이 식고, 따뜻한 옷으로 덮어 汗을 내면 表裏가 통한다. 그러나 그 병이 없어졌더라도 形證과 脈狀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낫긴 했어도 便法으로 치료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마땅히 신중하게 하여 함부로 榮衛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霍亂에 頭痛, 發熱, 身體疼痛이 발생하고 열이 많아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五苓散證에 속한다.

병이 膈膜 위에 있어서 구토를 한 뒤에 반드시 물을 찾으면 급히 猪苓散을 투여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도 낫는다.

#### 【考察】

‘大便遂擯’에 대하여 『校注』, 『精譯』, 『中醫藥本』<sup>83)</sup>에는 擯을 賓이나 秘와 같다고 보아 대변이 不通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裏熱이 성한데 下法을 써서 胃腸에 燥熱이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大便不通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校釋』<sup>84)</sup>과 『新解』는 ‘遂擯’을 ‘拋棄淨盡’으로 풀이하여 下法을 쓴 뒤 대변이 이미 통한 것(下後大便已通)으로 보았다. 문장의 흐름상 ‘汗을 내면 곧바로 汗이 시원하게 나지 않고, 거듭 下法을 쓰면 大便이 나가는 하나, 胃에 燥熱이 쌓여 津液이 없으므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汗과 大小便의 관계가 對句가 된다. 字意로 볼 때도 ‘擯’은 ‘斥也, 棄也’로 ‘물리치다, 버리다’의 의미가 있어 『校釋』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

#### 【結論】

本篇은 『傷寒論』에서 주로 인용한 것으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과 利水劑를 복용시켜야 하는 脈證과 기전에 대해 논하였다. 適應證은 첫째 太陽病 發汗後 胃中乾燥者와 厥陰病 渴欲飲水의 경우. 둘째 太陽病이 轉變하여 陽明에 속해 陽이 盛하고 胃家가 熱實하거나 혹은 霍亂 頭痛에 全身痛하고 發熱하는 경우. 단 五苓散을 복용해야 한다. 셋째 嘔吐하면서 病이 膈上에 있는 경우로 猪苓散을 복용해야 한다.

14, 15篇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水療法은 인체에 調整과 補償의 작용을 야기하고 아울러 發汗·退熱·利尿의 효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水法の 適應證을 판별하는 어떤 일관된 원칙을 유추해내기가 어렵다. 本篇에는 水法을 쓸 수 있는지의 與否를 판단하는데 갈증을 중요시하고, 14篇에서 몸에 열이 난다거나 煩熱感을 느끼는 것으로 適應證이라 판단하여 水法을 사용하는 경우 副作用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 갈증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환자가 물을 마시고자 하지만 마시면 딸꾹질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갈증이 유일한 단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83) “大便遂擯: 擯, 通秘. 大便遂擯, 卽 大便秘結不通.”

84) “遂擯 ‘拋棄淨盡解. 此處指下後大便已通.”

病不可火證 第十六  
(火法을 쓸 수 없는 病證 제16)

【原文】

太陽中風에 以火劫<sup>(1)</sup>發其汗하야 邪風이 被火熱하면 血氣流洩<sup>(1)(2)</sup>하야 失其常度하고 兩陽<sup>(3)</sup>相熏灼하야 其身發黃이라 陽盛則欲衄하고 陰虛면 小便難하고 陰陽이 俱虛竭하면 身體則枯燥하고 但頭汗出이 齊頸而還하고 腹滿而微喘하고 口乾咽爛<sup>(4)</sup>하고 或不大便久則譫語하고 甚則至噦하고 手足躁擾<sup>(5)</sup>하고 循衣摸床<sup>(6)</sup>이라 小便<sup>(2)</sup>利者는 其人可治라

太陽病에 醫發其汗이나 遂<sup>(7)</sup>發熱而惡寒하야 復下之則心下痞하니 此는 表裏俱虛라 陰陽氣併竭<sup>(8)</sup>하야 無陽則陰獨에 復加火針<sup>(9)</sup>하면 因而煩하고 面色青黃膚暈<sup>(10)</sup>하니 如此者는 爲難治요 今<sup>(11)</sup>色微黃하고 手足溫者는 愈라

傷寒<sup>(4)</sup>에 加溫針<sup>(12)</sup>하면 必驚<sup>(13)</sup>이라

陽脈<sup>(14)</sup>浮陰脈<sup>(15)</sup>弱則血虛니 血虛則筋惕<sup>(16)</sup>이라 其脈이 沈者는 榮氣微也요 其脈이 浮而汗出如流珠者는 衛氣衰也라 榮氣微에 加燒針<sup>(17)</sup>하면 血留<sup>(6)</sup>不行하고 更發熱而躁煩也라

傷寒脈浮에 而醫以火迫<sup>(18)</sup>劫之하야 亡陽<sup>(19)</sup>하면 驚狂하고 臥起不安하니 屬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sup>(20)</sup>이라

問曰 得病十五十六日에 身體黃하고 下利하고 狂欲走에 師脈之言 當下清<sup>(21)</sup>血<sup>(7)</sup>如豚肝하면 乃愈라한데 後에 如師言하니 何以知之오 師曰 寸口脈이 陽浮陰濡<sup>(22)</sup>弱하니 陽浮則爲風이요 陰濡弱爲少血이라 浮虛受風少血하야 發熱惡寒洒淅<sup>(23)</sup>하고 項強頭眩에 醫加火熏鬱하야 令汗出하니 惡寒遂甚하고 客熱因火而發하야 怫鬱蒸肌膚하야 身目爲黃하고 小便微難하고 短氣하고 從鼻出血이라 而復下之하야 胃無津液이나 泄利遂<sup>(24)</sup>不止하고 熱瘥<sup>(25)</sup>在膀胱하야 畜結成積聚가 狀如豚肝이라 當下未下니 心亂迷憤<sup>(26)</sup>하야 狂走赴<sup>(27)</sup>水를 不能自制라 畜血<sup>(28)</sup>이 若去면 目明心了<sup>(29)</sup>하니 此는 皆醫所爲요 無他禍<sup>(30)</sup>患이라 微輕은 得愈나 極者는 不治라

傷寒<sup>(8)</sup>에 其脈이 不弦緊而弱<sup>(9)(31)</sup>者는 必渴하고 被火면 必譫言<sup>(10)</sup>이라 弱者라도 發熱脈浮면 解之니 當汗出愈라

太陽病에 以火熏之하야 不得汗하면 其人必躁요 到經<sup>(32)</sup>不解면 必有清血<sup>(11)</sup>이라

陽明病에 被火하야 額上微汗出 而小便不利면 必發黃이라

陽明病에 其脈이 浮緊하고 咽乾口苦하고 腹滿而喘하고 發熱汗出而不惡寒하며 反偏惡熱하고 其身體重에 發其汗則躁하고 心憤憤及<sup>(12)</sup>譫語요 加溫針<sup>(13)</sup>하면 必怵惕<sup>(33)</sup>又煩躁不得眠이라

少陰病에 欬<sup>(34)</sup>而下利譫語는 是爲被火氣劫故也요 小便必難은 爲強責<sup>(35)</sup>少陰汗出이라

太陽病二日에 而燒瓦熨<sup>(36)</sup>其背하야 大汗出하고 火氣入胃하야 胃中竭燥면 必發譫語라 十餘日振<sup>(37)</sup>而反汗出者는 此爲欲解라 其汗이 從腰以下不得汗하고 其人이 欲小便이나 反不得하고 嘔欲失溲<sup>(38)</sup>하고 足下惡風하고 大便堅者는 小便當數이나 而反不數及不多<sup>(14)</sup>요 便已에 其頭卓然<sup>(39)</sup>而痛하고 其人이 足心必熱하니 穀氣<sup>(40)</sup>下流故也라<sup>(15)</sup>

【校勘】

- 1) 洩: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는 ‘溢’로 되어 있다.
- 2) 久則譫語 甚則至噦 手足躁擾 循衣摸床 小便: 『朱本』·『張本』에는 없다.
- 3) 今: 『校釋』·『大成本』·『匯海本』·『文光本』에는 ‘面’으로 되어 있고, 『中醫藥本』에는 ‘而’로 되어 있다.
- 4) 傷寒: 『傷寒』에는 ‘太陽傷寒者’로 되어 있다.
- 5) 筋惕: 底本에 ‘筋傷’으로 되어 있으나, 『校釋』·『錢本』·『文光本』·『大成本』·『中醫藥本』·『匯海本』에는 ‘筋惕’으로 되어 있고, 문맥으로 볼 때 ‘筋惕’이 더 妥當하므로 고쳤다.
- 6) 血留: 『傷寒』에는 ‘血流’로 되어 있다.
- 7) 清血: 『繆本』에는 ‘瘀血’로 되어 있다.
- 8) 傷寒: 『傷寒』에는 ‘形作傷寒’으로 되어 있다.
- 9) 弱: 『傷寒』에는 ‘弱’이 하나 더 있다.
- 10) 譫言: 『傷寒』·『匯海本』에는 ‘譫語’로 되어 있다.

11) 必有清血：『張本』에는 ‘必有清傷血’로 되어 있다. 『傷寒』에는 뒤에 ‘名爲火邪’의 4字가 더 있다.

12) 及：底本에는 ‘而反’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順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第八』에 근거하여 고쳤다.

13) 溫針：『傷寒』에는 ‘燒針’으로 되어 있다.

14) 不多：底本에는 ‘多’로 되어 있으나 『傷寒』에 근거하여 ‘不多’로 고쳤다.

15) 太陽病二日 而燒瓦熨其背 大汗出 火氣入胃 胃中竭燥 必發譫語 十餘日振而反汗出者 此爲欲解 其汗從腰以下不得汗 其人欲小便 反不得 嘔欲失洩 足下惡風 大便堅者 小便當數 而反不數及多 便已 其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는 ‘太陽病二日 反躁 反熨其背而大汗出 大熱入胃 胃中水竭 燥煩 必發譫語 十餘日振慄 自下利者 此爲欲解也 故其汗 從腰以下不得汗 欲小便不得 反嘔欲失洩 足下惡風 大便硬 小便當數 而反不數及不多 大便已 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로 되어 있다.

#### 【註釋】

(1) 火劫(화집)：燒針熏熨灸등의 火法을 써서 강제로 發汗시키는 것. \* 劫：強取, 겁탈할 겁

(2) 洩(일)：溢也, 넘칠 일

(3) 兩陽(양양)：『校注』에 “風과 火氣를 말한다.”<sup>85)</sup>고 하였다.

(4) 咽爛(인란)：목구멍이 벌겋게 부으면서 혈을 것을 말한다. \* 爛：火熱, 데어 벗어질 난

(5) 躁擾(조요)：병으로 몸이 괴로워서 팔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몸을 얼치락뒤치락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 躁：猶動, 움직일 조 \* 擾：亂也, 어지러울 요

(6) 循衣摸床(순의모상)：정신이 혼미할 때 손으로 자기도 모르게 옷이나 침상을 더듬는 것.

(7) 遂：還是, 여전히, 아직도

(8) 陰陽氣并竭(음양기병갈)：表裏가 모두 虛한 것

으로, 發汗으로 表가 虛해져 陽氣가 고갈되고, 다시 下法으로 裏가 虛해져 陰氣가 고갈된 것을 뜻한다.

(9) 火針(화침)：焮針, 燒針, 燔針이라고도 한다. 침을 찌르는 방법은 천으로 침을 싸서 참기름에 담갔다 가 불을 붙여서 침 끝이 벌겋게 달아오르면 천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穴자리를 찌렀다가 바로 뽑아내고, 손가락으로 침구멍을 눌러주는 것이다. 이는 옛날에 땀을 내는데 흔히 쓰던 방법이다. 痺證이나 癰疽에서 고름이 나오도록 할 때도 흔히 썼다.

(10) 膚腠(부순)：피부나 살에 痙攣이 나는 증상.

(11) 今：若也, 만약 금

(12) 溫針(온침)：溫針灸針柄灸라고도 부른다. 침을 놓고 留針하면서 침자루에 艾絨을 켜 다음 불을 붙여서 針穴 부위를 덥게 해주는 방법. 주로 經脈을 덥게 하여 잘 통하게 하고 氣와 血液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13) 驚(경)：정신이 충격을 받아 놀라고 두려워 안정이 안되는 것. 火熱이心を 어지럽게 하면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14) 陽脈(양맥)：寸脈.

(15) 陰脈(음맥)：尺脈.

(16) 筋惕(근척)：筋惕肉瞤. 근육 경련.

(17) 燒針(소침)：火針참조.

(18) 迫(pò)：억지로 시키다.

(19) 亡陽(망양)：陽氣가 쇠약해져 고갈된 것. 『校釋』에 “여기서의 陽은 心陽을 말하는 것으로, 心陽이 밖으로 빠져나가 神氣가 떠올라 넘쳐나는 것.”<sup>86)</sup>이라 하였다.

(20)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계지거작약가촉칠모려용골구역탕)：桂枝(껍질 벗긴 것)生薑(썬 것)蜀漆(씻어서 껍질 벗긴 것) 각 3냥(9g), 炙甘草 2냥(6g), 牡蠣(볶은 것) 5냥(15g), 龍骨 4냥(12g) 大棗 12알. 이상을 가루 내어 물 1말 2되에 우선 蜀漆을 넣고 달여 2되를 졸여 없앤 다음, 나머지 약을 넣고 달여 3되를 졸인다. 찌꺼기를 빼고 1되씩 따뜻하게 복용한다.<sup>87)</sup>

85)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80. “兩陽 此指風與火氣. 成無已『註解傷寒論』卷三第六注 風爲陽邪, 因火熱之氣 則邪風愈甚...風與火氣謂之兩陽.”

8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57. “亡陽 此處的陽, 指心陽而言. 亡陽, 即 心陽外亡, 神氣浮越之謂.”

87) 이 處方은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에는 나오지 않는다. 韓浩

- (21) 淸血(청혈) : 여기서 淸은 圃과 같은 뜻으로 便血이다.<sup>88)</sup> \* 圃 : 廁也, 뒷간 청
- (22) 濡(유) : 濡脈. 脈의 形體가 가늘고 작아 浮細 하면서 힘이 없는 脈狀.
- (23) 洒淅(쇄석) : 惡寒이 나는 것이 마치 몸에 찬 물을 뿌려주거나 비를 맞을 때처럼 오싹오싹 추운 증상. \* 洒 : 灑也, 물 뿌릴 쇠 \* 淅 : 雨聲, 빗소리 석
- (24) 遂 : 竟也, 마침내 수
- (25) 痧 : 結也, 맺힐 어
- (26) 迷 : 惑也, 정신 혼란할 미
- (26) 慣 : 心亂, 심란할 게
- (27) 赴 : 趨也, 달음질할 부
- (28) 蓄血(축혈) : 瘀血이 내부에 멎는 증후.
- (29) 了 : 聰慧, 똑똑할 료
- (30) 禍 : 災殃 화
- (31) 弱(약) : 脈이 無力한 것으로 弱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32) 到經(도경) : 병이 7일째가 되어 太陽經病이 주행을 다한 것.
- (33) 怵惕(출척) : 놀라고 두려워서 안정이 되지 않는 증상. \* 怵 : 恐也, 두려울 출 \* 惕 : 懼也, 두려울 척
- (34) 嗽 : 嗽也, 기침 해
- (35) 強責(강책) : 억지로 ~하게 하다.
- (36) 熨(위) : 熨法은 散劑나 필요한 약제를 거칠게 가루 낸 것을 뜨겁게 볶아 천에 싸서 찜질하는 外治法이다. \* 熨 : 從上按其下, 누를 위
- (37) 振 : 震也, 진동할 진 『傷寒論條辨』: ‘振, 鼓戰. 作欲解之先兆也.’
- (38) 失洩(실수) :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는 증상.
- (39) 卓然(탁연) : 두드러지다.
- (40) 穀氣(곡기) : 水穀之氣. 음식물을 소화하여 흡수한 영양물질. 陽氣.<sup>89)</sup>

안의 분량은 傷寒論用語辭典에 근거하였다.

88) 옥편에는 淸에 측간의 뜻이 없으나, 方有執을 비롯한 傷寒의 여러 주가들이 淸血을 便血로 보았다.

89)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82. “穀氣下流 指陽氣下注. 成無已『註解傷寒論』卷三第六注: 穀氣者 陽氣也, 先陽氣不通於下之時, 足下惡風. 今陽氣得下 故足心熱也.”

【國譯】

太陽中風證에 火法으로 억지로 發汗을 시켜, 風邪가 火熱과 합쳐지면 血과 氣가 넘쳐나 정상적으로 순행하지 않고, 風邪와 火邪 두 陽이 서로 찌고 태워 몸에 黃疸이 생긴다. 陽熱이 旺盛하면 코피가 나고, 陰虛하여 津이 부족하면 소변보기가 어려워지며, 陰陽이 모두 고갈되면 신체가 까칠하게 마르며, 머리에서 목까지만 땀이 나고, 腹部가 脹滿하면서 약간 숨이 차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헐며, 간혹 대변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讒語를 하고, 심하면 딸국질을 하며, 손발을 분주히 움직이고, 循衣摸床을 한다. 이때에 만약 소변이 순조로우면 고칠 수 있다.

太陽病에 의사가 發汗시켰는데 이어서 發熱과 惡寒이 계속 되어 다시 下法을 쓰면 心下痞가 생기니, 이는 發汗法과 下法을 쓴 까닭에 表裏가 모두 虛해진 것이다. 陰陽의 氣가 모두 없어져서 正陽은 없고 邪陰만 남았는데 다시 火針으로 치료를 하면, 이로 인해 煩悶이 생기고, 안색은 靑黃色이 되고, 피부경련이 나니, 이런 경우엔 치료하기 어렵다. 만약 안색이 약간 누렇고 손발이 따뜻하면 나올 수 있다.

傷寒에 溫針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잘 놀라고 불안해한다.

寸脈이 浮하고 尺脈이 弱하면 血虛한 것이니, 血虛하면 筋에 경련이 난다. 환자의 脈狀이 沈한 것은 榮氣가 미약하기 때문이고, 脈狀이 浮하면서 땀이 구슬처럼 흐르는 것은 衛氣가 衰弱하기 때문이다. 榮氣가 미약한데 燒針으로 치료를 하면 血이 머물러 流行하지 않고, 더욱 열이 나면서 煩躁가 발생한다.

傷寒에 脈이 浮한데 의사가 火法을 써서 억지로 땀을 내면 亡陽이 되어 놀라거나 미친 것처럼 앓았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안정이 안되니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證에 속한다.

문기를 “환자가 병에 걸린 지 15~16일에 몸에 黃疸이 생기고 실사하며 미쳐서 날뛰는데, 선생께서 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돼지肝 같은 피를 대변으로 下血하면 나올 것이다’ 하였고, 뒤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어찌 그리 될 줄을 아셨습니까?” 하니 선생께서 답하기를 “寸口脈에 寸脈은 浮하고 尺脈은 濡弱했다. 寸脈이 浮한 것은 風邪를 받은 것이고, 尺

脈이 濡弱한 것은 血이 적은 것이다. 浮虛하니 風邪를 받는데다가 血이 적어, 열이 나고 물을 뿌린 듯 오싹오싹 춥고 뒷목이 뻣뻣하며 어지러운 것이었는데, 의사가 火熏치료로 억지로 땀이 나게 하여 惡寒이 더욱 심해지고, 客熱이 火熏으로 인해 발동하여 울체되어 肌膚를 찌게 되니 진신과 눈에 黃疸이 생기고, 소변을 보기가 좀 어렵고, 短氣가 생기며, 코피가 났다. 여기에 또 다시 下法을 써서 胃에는 津液이 없으나 실사는 마침내 그치지 않고, 熱은 膀胱에 맺혀 쌓이고 다져져 돼지간과 같은 積聚가 된 것이다. 이것이 대변으로 나와야 하나 나오지 못하니, 마음이 혼란하고 의식이 흐리멍덩해지며, 미친 듯 물에 뛰어드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 것이다. 蓄血이 사라지면 눈이 밝아지고 정신도 맑아진다. 이는 모두 의사가 저지른 것이지 다른 제양으로 온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은 나올 수 있으나 심하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傷寒에 脈이 弦緊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반드시 갈증이 나고, 火治를 하면 반드시 譫語가 발생하게 된다. 脈에 힘이 없더라도 열이 나면서 脈이 浮하면 병이 나올 수 있으니, 땀이 나면 낫는다.

太陽病에 火熏法을 썼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煩躁症이 생기고, 太陽經病이 주행을 다하고도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便血이 생긴다.

陽明病에 火法으로 誤治를 하여 이마에만 땀이 조금 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黃疸이 생긴다.

陽明病에 脈이 浮緊하고 咽喉가 건조하고, 입이 쓰며, 腹部가 그득하면서 喘症이 생기고, 열이 나고 땀이 나나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熱氣를 싫어하게 되며, 몸이 무거운데 發汗法을 쓰면 躁症이 생기고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흐리며 譫語하게 된다. 여기에 다시 溫針을 쓰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또한 煩躁가 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少陰病에 기침하면서 설사하다가, 譫語를 하면 이는 火法の 熱氣에 급습 당했기 때문이고, 반드시 소변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少陰病에 억지로 땀을 냈기 때문이다.

太陽病 2일에 불에 달군 기와로 등을 지져 심하게 땀이 나고, 火氣가 胃로 들어가 胃中の 津液이 고갈

되면 반드시 譫語가 생긴다. 열흘 남짓 지나 몸을 덜덜 떨면서 도리어 땀이 나면 이는 풀리려고 하는 것이다. 熨法을 쓴 후 환자의 땀이 허리 아래로는 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소변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고, 발바닥이 惡風을 하고, 대변이 굳으면 소변이 잦아지기 마련인데 도리어 자주 보지 않고 양도 적으며, 대변을 보고 나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반드시 발바닥에 열이 나니, 이는 穀氣가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 【考察】

“傷寒 其脈 不弦緊而弱者 必渴 被火 必譫言 弱者 發熱 脈浮 解之 當汗出愈”에서 ‘傷寒 其脈 不弦緊而弱者 必渴’에 대하여 成無己는 ‘傷寒의 증상인 頭痛 發熱이 있으나 脈이 傷寒表脈이 아니니 脈이 弱한 것은 裏熱이 있는 것이고, 때문에 渴症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 脈이 弱하면서 發熱하는 경우 그 脈이 浮하면 邪氣가 表로 나온 것이니 發汗解表할 수 있다. 尤在涇은 이를 ‘病은 實하나 正氣가 虛한 상황으로 脈이 弱한 것은 陰이 不足한 것이고 邪氣가 이를 틈타 熱을 발생하고 陰을 손상시켜 渴症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發熱하면서 脈이 浮한 것은 邪氣가 表로 나오려는 것이므로 陰氣가 비록 虛해도 發汗解表할 수 있으니 桂枝二越婢一湯을 쓴다.<sup>90)</sup> 여기서 脈弱은 弱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脈이 無力함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弱脈은 體狀이 沈細弱하므로 浮脈과 함께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篇에 제시한 火法에는 火熏, 熨, 火針, 溫針, 燒針 등이 있다. 이외에 灸法도 火法에 포함된다. 火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黃疸, 衄血, 煩躁譫語, 驚狂, 便秘와 小便瀉, 下血 등의 變證이 야기된다. 火法은 오늘날 다양한 溫熱療法으로 발전되어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이용되고 있어 『脈經』이 제시하는 火法の 禁忌證에 대해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 【結論】

90) 陳欽銘. 脈經新解.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96. p.606.

本篇은 火法을 쓸 수 없는 脈證과 誤治하여 생기는 變證에 대해 설명하였다. 表證의 경우 본래 解表하는 湯藥으로 發汗<sup>91)</sup>시켜야지 火法을 써서 억지로 땀을 내면 變證이 생긴다. 裏熱이 심하거나, 血虛한 증상에도 火法을 쓰면 裏熱을 가중시키고 血을 妄動하게 하므로 變證이 생긴다.

病可火證 第十七  
(火法을 쓸 수 있는 病證 제17)

【原文】

下利穀道<sup>(1)</sup>中痛엔 當溫之以火<sup>(1)</sup>나 宜熱末<sup>(2)</sup>鹽으로 熨<sup>(2)</sup>之라 一方엔 炙枳實로 熨之라

【校勘】

1) 火：底本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黃本』, 『校釋』,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精譯』에 모두 ‘火’로 되어 있고, ‘火’로 하여야 文脈이 통하므로 고쳤다.

2) 末：底本에는 ‘末’으로 되어 있으나 『校釋』,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精譯』에는 모두 ‘末’로 되어 있고, ‘末’로 하여야 문맥이 통하므로 고쳤다. 『繆本』에는 ‘食’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穀道(곡도)：항문.

(2) 熨：以藥物熨貼也, 고약붙일 위

【國譯】

설사를 하면서 항문이 아프면 火法을 써서 덥혀야 하니, 뜨겁게 볶은 소금가루로 항문을 지진다. 어떤 데는 ‘구운 枳實로 지진다.’고 하였다.

91) 火法은 體表에 열기를 가하여 억지로 發汗시키는 것인데 반해 麻黃湯같은 解表藥은 桂枝를 넣어서 속에서부터 열을 밀어 體表로 내보내므로 이와는 원리가 다르다.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땀을 뺀다고 해서 감기가 잘 낫는 것이 아니며, 火逆이 되면 찬기운이 내부에 갇혀 寒熱이 서로 치받게 되므로, 손발이 따뜻해지더라도 내부의 찬기운이 나가지 못하므로 치료가 복잡해진다.

【考察】

溫熱療法은 능동적인 방식과 수동적인 방식이 있다. 능동적인 방식은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방식은 몸이 따뜻해지도록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溫熱療法이라 하면 수동적인 방식을 뜻하며, 이 방식으로 피부나 온몸에 열을 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장기나 공간을 겨냥하여 치료할 수도 있다. 溫熱상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溫浴, 사우나, 또는 찜질팩 등의 간단한 것부터 短波 또는 超短波 透熱法, 超音波를 이용한 溫熱法, 輻射法 등의 좀 더 고차원적인 것까지 다양하다.<sup>92)</sup>

이런 맥락으로 볼 때 脈經 卷七에 소개되는 溫熱療法(溫法, 火法, 灸法) 중에서 火法과 灸法은 수동적인 방식이고 藥物服用을 통한 溫法은 능동적인 방식의 溫熱療法이라 할 수 있다.

火法은 漢代에 비교적 유행하였다.<sup>93)</sup> 隋唐시기에 이르러서는 火針法이 임상에 널리 응용되었고, 풍부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그 적응증도 ‘癰疽’에서부터 ‘黃病’과 ‘癲狂病’까지 다양해졌다.<sup>94)</sup>

【結論】

火法은 發汗, 散寒, 開痺, 止痛의 작용이 있어 沈寒痼冷<sup>95)</sup>의 질환에 주로 적용한다. 그러나 本篇에서는 한 가지 適應症만 제시하였다.

92) 구봉오 등. 物理治療學概論 제5판. 서울. 대학서림. 2005. p.29.

93) 李培生.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23.

94)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92-95. “隨唐시대 董暹의 醫心方은 火針의 燒針法-針具-適應症 및 주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논술했었는데, 이것은 이때에 이미 火針法이 임상에 널리 응용되었고 풍부한 경험이 누적되었음을 보여준다. 唐末宋初에는 火針法을 癰疽의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삼았고, 火針으로 전문적인 병을 치료하는 專門書 혹은 專門篇도 출현하게 되었으니 특히 ‘黃病’과 ‘癲狂病’의 치료에 반영되었다. 『點烙三十六黃經』은 火針點烙의 전문서이고, 정신병의 치료의 전문편으로 『千金要方』의 권14에 「治諸橫邪癲狂鍼灸圖訣」 편이 있다.”

95) 沈寒痼冷은 眞陽이 부족하여 陰寒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증으로 늘 惡寒이 들고, 수족이 싸늘하며, 찬 것을 싫어하고, 음식량이 적고, 소화를 잘 못시키며, 소변이 맑고 많다. 때로 허리와 다리가 무겁고, 물속에 앉은 것 같이 차며, 陰痿와 遺精이 있고, 전신 관절통이 곁해 나타나기도 한다.

熱病陰陽交并少陰厥逆陰陽竭盡生死證

第十八

(陰陽交와 少陰證 厥逆 陰陽竭盡  
등이 나타나는 熱病의 豫後 第18)

第1章 陰陽交

【原文】

問曰<sup>1)</sup>溫病<sup>2)</sup>(1)汗出에 輒<sup>(2)</sup>復熱而脈躁疾<sup>(3)</sup>이 不爲汗衰<sup>(4)</sup>하고 狂言不能食은 病名이 爲何오 對曰<sup>3)</sup>名曰<sup>4)</sup>陰陽交<sup>(5)</sup>니 交者는 死라<sup>5)</sup> 人所以 汗出者는 生<sup>6)</sup>於穀하고 穀生於精하니 今邪氣交 爭於骨肉而得汗者는 是邪却<sup>(6)</sup>而精勝<sup>7)</sup>이라 精 勝則當能食而不復熱하니 熱<sup>8)</sup>者는 邪氣也오 汗 者는 精氣也라 今汗出而輒復熱者는 邪勝也오 不能食者는 精無俾<sup>9)</sup>(7)也니 汗而熱留者<sup>10)</sup>는 壽 可立<sup>(8)</sup>而傾<sup>(9)</sup>也라

夫<sup>11)</sup>汗出而脈尙躁盛者는 死라 此<sup>12)</sup>는 今脈 不與汗相應하니 此는 不勝其病也<sup>13)</sup>라 狂言者는 是失志니 失志者는 死라 有<sup>14)</sup>三死<sup>(10)</sup>하고 不見 一生하니 雖愈나 必死<sup>14)</sup>라

【校勘】

- 1) 問曰：『素問平熱病論』에는 ‘黃帝問曰’로 되어 있다.
- 2) 溫病：『素問』에는 ‘有病溫者’로 되어 있다.
- 3) 對曰：『素問』에는 ‘岐伯對曰’로 되어 있다.
- 4) 名曰：『素問』에는 ‘病名’으로 되어 있다.
- 5) 交者 死：『素問』에는 뒤에 ‘帝曰 願聞其說 岐伯 曰’이 더 있다.
- 6) 生：『素問』에는 ‘皆生’으로 되어 있다.
- 7) 勝：『素問』에는 ‘勝也’로 되어 있다.
- 8) 熱：『素問』에는 ‘復熱’로 되어 있다.
- 9) 精無俾：『校釋』, 『錢本』, 『文光本』에는 ‘精無裨’로 되어 있다.
- 10) 汗而熱留者：『校釋』, 『錢本』, 『文光本』에는 ‘汗出而熱留者’로 되어 있고 『素問』에는 ‘病而留者’로 되어

있다.

- 11) 夫：『素問』에는 ‘且夫熱論曰’로 되어 있다.
- 12) 此：『素問』,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精譯』, 『校釋』에는 없다.
- 13) 病也：『素問』에는 뒤에 ‘其死明矣’가 있다.
- 14) 有：『素問』에는 ‘今見’으로 되어 있고 『校釋』,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精譯』에는 ‘此有’로 되어 있다.

【註釋】

(1) 溫病：외부에서 溫熱의 邪氣에 感觸되어 생긴 外感病. 겨울에 寒에 상한 다음 寒邪가 내부에 潛伏되어 있다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發病하는 것을 말한다.

(2) 輒：忽也, 갑자기

(3) 躁疾(조질)：빠르면서 힘 있게 뛰는 脈狀.

(4) 衰：減也, 줄어들 쇠

(5) 狂言(광언)：환자의 精神과 知覺常態가 정상이 아니고 언어가 우악스러우며 웃다가 욕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

(6) 陰陽交(음양교)：陽熱의 邪氣가 陰分에 깊이 침입하여 陰氣가 지켜지지 못하여 精氣가 消燦되고 邪熱이 물러가지 않는 病證.<sup>96)</sup>

(7) 却：退也, 물러날 각

(8) 俾：益也, 도울 비

(9) 立：速意, 곧 입

(10) 傾：側也, 기울 경

(11) 三死(삼사)：『素問平熱病論』 馬蒔註에 “땀이 난 후 다시 열이 나면서 먹지 못하는 것이 一死, 땀을 냈는데 脈이 오히려 躁盛한 것이 二死, 땀을 낸 후 도리어 미친 말을 하고 정신이 나가는 것이 三死.”<sup>97)</sup>라

9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71. 4卷. “『內經』에서 언급한 陰陽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陰陽類論』 「五運行大論」에서는 陰陽이 서로 섞인 脈象을 의미하고, 本篇(素問平熱病論)에서는 溫病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종의 위중한 病名을 의미한다.”

9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64. “‘三死’ 馬蒔曰：‘汗後輒復熱, 不能食者, 一死; 汗出脈尙躁盛者, 二死; 汗後反狂言失志者 三死.’”

하였다.

【國譯】

문기를 “溫病에 땀이 난 뒤에 갑자기 다시 열이 나고, 脈이 躁疾한 것이 땀을 내어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狂言을 하며 먹지 못하는 것은 病名이 어떻게 되는가?” 답하기를 “陰陽交라 하니, 이는 死證이다. 人體에 땀이 나는 것은 水穀의 氣에서 생기고, 水穀의 氣는 精氣에서 생겨나니,<sup>98)</sup> 만약 精氣와 邪氣가 骨肉에서 서로 다투어 땀이 나는 것은 邪氣가 물러나고 精氣가 이긴 것이다. 精氣가 이기면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다시 열이 나지 않는다. 이는 熱은 邪氣이고 땀은 精氣이기 때문이다. 지금 땀이 난 뒤에 갑자기 다시 熱이 나는 것은 邪氣가 이긴 것이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精氣가 穀氣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니 땀난 뒤에도 熱이 머물러 있으면 壽命이 곧 위태로워진다.”

무릇 땀이 나고도 脈이 오히려 빠르고 강하게 박동하면 死證이다. 지금 脈象과 땀이 난 情況이 서로 相應하지 않으니, 이는 그 病邪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狂言을 하는 것은 精神을 잃은 것이니 精神을 잃으면 죽는다. 이는 세 가지의 死候가 있고 살 기미는 하나도 없으니 病證이 잠시 낫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다.

【考察】

本章은 『素問·平熱病論』에서 인용된 것이나 원문과는 字句에 다소 차이가 있다.

陰陽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楊上善은 ‘陽邪가 盛한데 陰邪가 다시 생겨 서로 뒤섞인 것’, 王冰·馬蒔는 ‘陰陽의 氣가 뒤섞인 것’, 吳崑·張景岳·張志聰·高世植·白話解는 ‘陽熱이 陰分으로 들어가서 熱邪가 正氣를 눌러 正氣가 손상되는 것’, 張琦는 ‘陰經·陽經이 모두 寒邪에 감촉된 것(兩感傷寒)’이라고 하였다.<sup>99)</sup>

【結論】

本章은 陰陽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의 陰

98) 이는 精氣가 盛하여야 穀氣가 소화되고 穀氣가 소화되어야 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9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71. 4卷.

陽交는 땀을 낸 후에도 熱이 나면서 먹지 못하고, 땀을 낸 후에도 脈이 躁盛하며, 失志하여 狂言하는 것이다.

第2章 熱病의 豫後

【原文】

熱病에 已得汗而脈尚躁盛<sup>(1)</sup>하면 此陽脈<sup>(1)(2)</sup>之極<sup>(3)</sup>也니 死요 其得汗而脈靜<sup>(1)</sup>者는 生也라

熱病에 脈尚躁盛 而不得汗者는 此陽脈之極也니 死요 脈躁盛이나 得汗<sup>(2)</sup>者는 生也라

熱病에 已得汗而脈尚躁하고 喘<sup>(4)</sup>且復熱하면 勿膚刺니 喘甚者는 死라

熱病에 陰陽交者는 死라

熱病에 煩已而汗하면 脈當靜이라

太陽病에 脈反躁盛者는 是陰陽交니 死요 復得汗하고 脈靜者는 生이라

熱病에 陰陽交者는 熱煩身躁하고 太陰寸口脈兩衝<sup>(5)</sup>이 尚<sup>(6)</sup>躁盛하면 是는 陰陽交니 死나 得汗하고 脈靜者는 生이라

熱病에 陽進陰退하야 頭獨汗出하면 死요 陰進陽退나 腰以下至足汗出도 亦死라 陰陽俱進하야 汗出已에 熱如故도 亦死요 陰陽俱退하야 汗出已나 寒慄<sup>(7)</sup>不止하고 鼻口氣冷도 亦死라

右는 熱病陰陽交部라

熱病에 所謂并陰者는 熱病已得汗하고 因<sup>(8)</sup>得泄이 是謂并陰이니 故治라 治一作活이라

熱病에 所謂并陽者는 熱病已得汗에 脈尚躁盛커나 大熱汗之<sup>(3)</sup>에 雖不汗出이라도 若衄이면 是謂并陽이니 故治<sup>(4)</sup>라

右는 熱病并陰陽部라

【校勘】

1) 陽脈 : 『靈樞熱病』에는 ‘陰脈’으로 되어 있다.

2) 汗 : 『黃本』, 『文光本』, 『匯海本』, 『中醫藥本』, 『校釋』에는 ‘汗出’로 되어 있고, 『靈樞』에는 ‘汗靜’으로 되어 있다.

3) 汗之 : 『校釋』,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

海本』、『文光本』、『精譯』에는 ‘汗出’로 되어 있다.

4) 治 : 『朱本』、『張本』에는 없다.

#### 【註釋】

(1) 躁盛(조성)과 靜(정) : 모든 脈은 중간정도의 힘을 얻으면 靜이 되고, 太過하거나 不及한 것은 動이다.<sup>100)</sup> 躁盛은 動과 같으며 太過한 맥이다.

(2) 陽脈(양맥) : 經脈 중에서 陽經을 뜻하는 것으로, 手足三陽經, 督脈, 陽維脈, 陽蹻脈등을 포함한다.<sup>101)</sup>

(3) 極 : 至也, 지극할 극

(4) 喘(천) : 喘症.<sup>102)</sup>

(5) 衝 : 動也, 충동일 충<sup>103)</sup>

(6) 尙(shāng) : 더욱이.

(7) 寒慄(한울) : 戰慄과 같다. 추운 감을 느끼면서 몸이 떨리는 것. 戰은 몸이 떨리는 것이고 慄은 가슴이 떨리는 것이다.

(8) 因 : 襲也, 이을 인

#### 【國譯】

熱病에 이미 땀이 났는데도 오히려 脈이 빠르고 세차게 박동하면 이는 陽經의 陽熱이 지나치게 旺盛한 것이니 死證이다. 만약 땀이 나고 나서 脈이 안정되면 살 수 있다.

熱病에 脈이 빠르고 세차게 박동하면서 땀이 나지 않으면 陽經의 陽熱이 지나치게 旺盛한 것이니 死證이다. 脈이 빠르고 세차게 박동하더라도 땀이 나면 살 수 있다.

熱病에 땀이 났는데도 脈이 오히려 躁(浮疾)하면서 喘症이 생기고 다시 熱이 나면, 邪氣가 裏部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부에 刺針하면 안된다. 喘症이 심해지면 死證이다.

100) 朴 昞.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361.

10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66. “‘陽脈’指經脈中的陽經, 其中包括手足三陽經, 督脈, 陽維脈, 陽蹻脈等.”

102) 校釋中醫藥本精譯校注 모두 喘症으로 보았다. 喘을 浮數한 脈狀으로 볼 수도 있는데, 熱病生死期日證 第 20篇에는 “脈不躁喘不數”에서 喘이 病症이 아니라 脈狀이다.

103) 衝을 衝陽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校釋中醫藥本精譯 모두 이를 脈動으로 보고 해석했다.

熱病에 陰陽交가 되면 죽는다.

熱病에 가슴이 답답한 것이 그치고 땀이 나면 脈은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온다.

太陽病에 脈이 도리어 빠르고 세차게 박동하는 것은 陰陽交니 죽는다. 다시 땀이 나고 脈이 정상이 되면 산다.

熱病에 陰陽交는 煩熱이 나고 몸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太陰寸口의 양쪽 脈이 더욱 빠르고 세차게 搏動하면 이는 陰陽交니 死證이다. 땀이 나고 脈이 안정되는 경우는 산다.

熱病에 陽이 陰보다 지나쳐 머리에만 땀이 나면 죽고, 陰이 陽보다 지나쳐 허리 아래로 발까지만 땀이 나면 역시 죽는다. 陰陽俱進으로 땀이 나고 나서도 熱이 그대로인 것도 죽으며, 陰陽俱退로 땀이 난 뒤에 惡寒하고 몸을 떠는 것이 그치지 않고, 코와 입으로 冷氣가 나오는 것도 죽는다.

以上은 熱病陰陽交 부분이다.

熱病에 并陰이란 熱病에 이미 땀이 났는데, 이어서 泄瀉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니, 치료할 수 있다 어떤 본에는 ‘治’가 ‘活’로 되어 있다.

熱病에 并陽이란 熱病에 이미 땀이 났으나 脈이 오히려 빠르고 강하게 박동하거나, 열이 높는데 땀을 냈으나 땀이 나지 않을 때, 비록 땀이 나지 않더라도 코피가 나는 것을 말하니, 치료할 수 있다.

以上은 熱病并陰陽 부분이다.

#### 【考察】

“熱病 已得汗 而脈尙躁盛 此陽脈之極也 死 其得汗 而脈靜者 生也 熱病 脈尙躁盛 而不得汗者 此陽脈之極也 死 脈躁盛得汗者 生也”는 『靈樞熱病』에서 ‘熱病의 증상에 따른 刺針法’을 總結한 것으로 앞의 ‘陽脈之極’이 ‘陰脈之極’으로 되어 있다. 景岳은 이에 대하여 “‘陰脈之極’은 陰脈의 虛가 극도에 달해 陰은 없고 陽만 있어, 孤陽이 不斂하므로 땀이 난 후에 脈이 더욱 躁盛하고, ‘陽脈之極’은 陽脈의 亢進이 극도에 달했으나 陰은 虛하여 바깥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脈이 躁盛한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것이다.”<sup>104)</sup>고

104) 張景岳. 類經. 서울. 一社. 1992. p.737. “若汗後脈尙

하였다. 결국 ‘陰脈之極’이나 ‘陽脈之極’이나 모두 陽盛하고 體內에 陰液이 枯渴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王叔和는 『脈經』에 이를 인용하면서 ‘陽脈之極’으로 통일하여 갖고 온 것으로 사료된다. 『校釋』은 陽脈을 經脈 중에서 陽經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陽經이 熱邪를 받아 陽熱이 亢盛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熱病 已得汗而脈尙躁 喘且復熱 勿膚刺 喘甚者 死”는 『靈樞熱病』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의 ‘喘’은 뒤에 ‘喘甚者’라는 부연문장이 있으므로 脈狀은 아니라 喘息인 것으로 사료된다.

‘陽進陰退’와 ‘陰進陽退’에 대해 『校釋』, 『中醫藥本』, 『精譯』, 『校注』, 『新解』 모두 ‘陽’을 邪熱로, ‘陰’을 津液으로 해석하였다. 이 경우 ‘陰進陽退’는 몸이 개선되는 상황이므로 死證으로 볼 수 없어 본문과 모순이 된다. 陰陽升降이 원활하지 못해, 陽이 지나치면 人體의 上部에 汗이 나고, 陰이 지나치면 人體의 下部에서만 汗이 나며, 陰陽이 모두 강성할 때 汗이 나도 병이 풀어지지 않으니 몸의 精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陰陽이 모두 退降할 때 惡寒이 나고 身體에서 冷氣가 나오는 것은 人體의 陽氣가 모두 消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陰陽은 모두 邪氣의 偏盛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熱病所謂并陽者 熱病已得汗 脈尙躁盛 大熱汗之雖不汗出 若衄 是謂并陽 故治”에 대하여 『校釋』은 “熱病에 汗을 낸 뒤에 熱이 물러가지 않고, 脈이 여전히 躁盛하고, 汗이 계속 나면, 가령 汗이 나오지 않더라도 혹 코피가 나면 이를 并陽이라 부르고 치료할 수 있다.”<sup>105)</sup>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서 언급했던 ‘陽脈之極’과 유사해지므로 모순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코피가 나는 것’으로, ‘熱病已得汗 脈尙躁盛’의 상황과 ‘大熱汗之 雖不汗出’의 상황에서 만약

코피가 나면 치료가 가능한 并陽이 된다. 울체된 陽熱이 發汗을 통해 충분히 풀어지지 못했거나 發汗 자체가 안될 때, 코피가 發汗에 버금가는 泄氣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結論】

앞의 두 章은 熱病의 豫後에 대해 설명하였다. 출전은 『靈樞熱病』과 『金匱玉函經<sup>106)</sup>論熱病陰陽交并生死證第二十九』이다. 汗이 난 뒤에도 脈이 안정되지 않거나 熱이 지속되는 경우는 豫後가 나쁘다. 이를 陰陽交라고 부른다. 陰陽交에 대한 설명이 앞장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개괄하면 熱은 發汗을 통해 풀어야 마땅한데(汗이 난 후 熱이 내리고 脈이 안정되면 풀어지는 것이다) 陰陽交처럼 發汗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거나, 發汗이 원활하지 못하여 身體의 일부에서만 汗이 난다거나, 陰陽이 모두 고갈되어 發汗 후에 陽氣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위험하다. 반면 并陰, 并陽의 경우는 汗이 아니라도 설사나 코피를 통해 邪氣가 배출되므로 치료할 수 있다.<sup>107)</sup>

第3章 少陰病·厥證의 豫後

【原文】

少陰病에 惡寒踈<sup>(1)</sup>而利하고 手足逆<sup>(2)</sup>者는 不治라

少陰病에 下利止而眩<sup>(3)</sup>하고 時時<sup>(4)</sup>自冒<sup>(5)</sup>者는 死라

少陰病에 其人이 吐利躁逆<sup>(2)</sup>者는 死라

少陰病에 四逆惡寒而踈하고 其脈不至하고 其人이 不煩而躁<sup>(6)</sup>者는 死라

少陰病 六七日에 其人이 息高<sup>(7)</sup>者는 死라

少陰病에 脈微細<sup>(8)</sup>沈하고 但欲臥하고 汗出不

106) 金匱玉函經은 張仲景이 撰한 傷寒論의 古傳本의 하나로 비교적 오래되어 傷寒論의 校勘과 研究에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

107) 陳欽銘. 脈經新解.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96. p.614. 陰陽交와 并陰, 并陽에 대해 다음을 참고해야 한다. “并陰一詞, 古代典籍僅見於史記扁鵲倉公列傳之詔對病案長信病案中, 云:“所以知信之病者, 切其脈時, 并陰. 脈法曰: ‘熱病陰陽交者死’, 切之不交 并陰, 并陰者, 脈順清而愈, 其熱雖未盡, 猶活也.”

躁盛者, 孤陽不斂也, 此以陰脈之虛極, 有陽無陰耳, 乃爲逆證. 若脈躁盛而汗不得出, 以陽脈之亢極, 而陰虛不能外達也, 故死.”

10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67. “熱病, 汗出後, 熱不退, 脈仍躁甚, 汗續出, 假如不出汗, 或出現鼻衄, 這叫并陽, 可以治療.”

煩하며 自欲吐하고 五六日自利하고 復煩躁<sup>3)</sup>不得臥寐者는 死라

少陰病下利에 若利止<sup>4)</sup>하고 惡寒而踈<sup>5)</sup>이나 手足溫者는 可治라

少陰病에 惡寒而踈이나 時時自煩하야 欲去其衣被者는 可治라

少陰病에 下利不止<sup>6)</sup>하고 厥逆無脈하고 干煩<sup>7)</sup>一本엔 作乾嘔라 에 服湯藥하야 其脈이 暴<sup>9)</sup>出者는 死요 微細者는 生이라<sup>8)</sup>

右는 少陰部라

傷寒六七日에 其脈微하고 手足厥하고 煩躁에 灸其厥陰<sup>10)</sup>하야 厥不還者는 死라

傷寒에 下利厥逆하고 躁不能臥者는 死라

傷寒發熱에 下利하고 至<sup>9)(11)</sup>厥不止者는 死라

傷寒厥逆<sup>10)</sup>六七日에 不利라가 便發熱而利者는 生<sup>11)</sup>이요 其人<sup>12)</sup>이 汗出하고 利<sup>13)</sup>不止者는 死하니 但有陰無陽 故也라

傷寒五六日에 不結胸<sup>12)</sup>하야 腹濡하고 脈虛<sup>13)</sup>復厥者는 不可下니 下之면 亡血하야 死라<sup>14)</sup>

傷寒에 發熱而厥이 七日하고 下利者는 爲難治라

右는 厥逆部라

#### 【校勘】

1) 眩：『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는 ‘頭眩’으로 되어 있다.

2) 躁逆：『傷寒』에는 ‘躁煩四逆’으로 되어 있다.

3) 躁：『張本』에는 없다.

4) 止：『傷寒』에는 앞에 ‘自’가 더 있다.

5) 踈：『傷寒』에는 ‘踈臥’로 되어 있다.

6) 下利不止：底本에 ‘下利止’로 되어 있으나, 『黃本』,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 『精譯』에 모두 ‘下利不止’로 되어 있고 ‘不止’가 더 타당하므로 고쳤다.

7) 干煩：『黃本』,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에는 ‘干嘔煩’으로 되어 있다.

8) 少陰病 下利止 厥逆無脈 干煩 服湯藥 其脈 暴出者 死 微細者 生：『傷寒』에는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

白通湯. 利止 厥逆無脈 干嘔煩者 白通湯加豬膽汁湯主之 服湯藥脈暴出者 死. 微續者 生’으로 되어 있다.

9) 至：『傷寒論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는 ‘至甚’으로 되어 있다.

10) 厥逆：『傷寒』에는 없다.

11) 生：『傷寒』에는 없다.

12) 人：『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 『校釋』에는 ‘大’로 되어 있다.

13) 利：『傷寒』에는 없다.

14) 下之 亡血 死：『繆本』에는 ‘下之 亡血也’로 되어 있고 『傷寒』에는 ‘此亡血 下之 死’로 되어 있다

#### 【註釋】

(1) 踈：不伸, 몸을 오그릴 권

(2) 逆(역)：厥逆. 氣가 통하지 못해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병증.

(3) 眩：目無常主, 아찔할 현

(4) 時時(shìshì)：항상.

(5) 冒(모)：昏冒, 鬱冒. 정신이 맑지 않은 것이 마치 머리에 무엇을 덮어씌운 것 같은 증상.

(6) 躁(조)：手足을 흔들거나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이 불안한 것.

(7) 息高(식고)：호흡이 짧으면서 빠른 것.

(8) 細(세)：細脈. 脈의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感應되는 것이 분명한 脈狀이다.

(9) 暴：猝也, 갑자기 포

(10) 灸其厥陰(구기결음)：厥陰經의 經脈穴인 太衝에 뜸을 뜬다.

(11) 至：極也, 지극할 지

(12) 結胸(결흉)：명치끝이 아프고, 눌러서 풀어도 풀리지 않고 단단하고 그득한 것을 주요 임상증상으로 하는 병증.

(13) 虛(허)：虛脈. 柔軟하고 힘이 없으면서 形體가 大한 脈狀.

#### 【國譯】

少陰病에 惡寒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으며, 설사를 하고 手足이 厥逆하면 치료할 수 없다.

少陰病에 설사는 그쳤으나 눈이 어지럽고 항상 昏

冒가 있으면 죽는다.

少陰病에 환자가 토하고 설사하면서 躁症이 있고, 厥逆이 일어나면 죽는다.

少陰病에 四肢가 厥逆하고, 惡寒하면서 몸을 움츠리며, 脈이 박동하지 않고 환자가 煩熱은 없는데 躁症만 있으면 죽는다.

少陰病 6~7일에 환자가 呼吸이 빠르면서 짧으면 죽는다.

少陰病에 脈이 微細沈하고, 잠을 자려고만 하며, 땀이 나면서 心煩이 없고, 토하려고 하고, 5~6일간 설사를 하다가 다시 煩躁가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다.

少陰病에 설사하다가 만약 설사가 그치고, 惡寒하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으나 손발이 따뜻하면 치료할 수 있다.

少陰病에 惡寒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으나, 때로 절로 煩熱이 나서 옷을 벗으려 하면 치료할 수 있다.

少陰病에 설사가 그치지 않고, 사지가 厥逆하고 맥박이 뛰지 않으며, 乾嘔를 하고 心煩하다가, 어떤 本에는 '干煩'이 '乾嘔'로 되어 있다. 湯藥을 마신 뒤에 박동하지 않던 맥박이 갑자기 강하게 나타나면 죽고, 脈이 微細하면 산다.

以上은 少陰 부분이다.

傷寒 6, 7일에 환자의 脈이 微하고, 手足이 厥逆하고, 煩躁가 나는 경우에 厥陰經의 太衝에 뜸을 떴으나 厥症이 낫지 않으면 죽는다.

傷寒에 설사하면서 四肢가 厥逆하고 躁症으로 누울 수 없으면 죽는다.

傷寒發熱에 설사와 극심한 厥症이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

傷寒에 6, 7일 厥逆이 있는 동안 설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熱이 나면서 설사를 하면 산다. 그 환자가 땀이 나면서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죽는데 이는 陰邪만 있고 陽氣는 없기 때문이다.

傷寒 5, 6일에 結胸은 아니어서 복부가 유연하고, 脈이 虛하면서 다시 厥症이 생기면 下法을 쓸 수 없다. 下法을 쓰면 亡血이 되어 죽는다.

傷寒에 열이 나지만 手足이 厥冷한 것이 7일째이

고, 설사가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以上은 厥陰 부분이다.

【結論】

本章은 『金匱玉函經論熱病陰陽交并生死證第二十九』과 『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少陰·厥陰證의 예후는 陽氣의 존재여부에 달려 있어서, 四逆惡寒·踡臥·脈不至 같이 陽氣가 고갈된 증상이 보이면 치료할 수 없고, 煩熱手足溫·下利止처럼 陽氣가 회복되는 징후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

第4章 陰陽竭盡의 死證

【原文】

熱病에 不知所痛하고 不<sup>1)</sup>能自收<sup>1)</sup>하며 口乾이 陽熱甚하고 陰頗有寒者<sup>2)</sup>는 熱在髓니 死不治라

熱病在腎에 令人渴口乾하고 舌焦黃赤하고 晝夜欲飲不止하고 腹大而脹이나 尚不厭<sup>3)</sup>飲하고 目無精光하니 死不治라

脾傷即中風하야 陰陽氣別離하야 陰不從陽이라 故로 以三分<sup>4)</sup>으로 候<sup>5)</sup>其死生이라<sup>2)</sup>

傷寒에 效逆上氣<sup>6)</sup>하고 其脈散<sup>7)</sup>者는 死하니 謂其人形損故也라

傷寒下利日十餘行에 其人脈이 反實<sup>8)</sup>者는 死라

病者가 脇下에 素有痞而下<sup>3)</sup>在臍傍하고 痛引少腹하며 入陰俠陰<sup>4)</sup>筋은 此爲藏結이니 死라

夫實則譫語<sup>9)</sup>하고 虛則鄭聲<sup>10)</sup>하니 鄭聲者는 重語가 是也라 直視<sup>11)</sup>譫語하고 喘滿<sup>12)</sup>者는 死요 若下利者도 亦死라

結胸證悉具而躁<sup>5)</sup>者는 死라

吐舌下卷者는 死요 唾如膠者는 難解라 舌頭四邊에 徐<sup>13)</sup>有津液하면 此爲欲解라 病者至經<sup>14)</sup>하야 上脣有色하고 脈自和는 爲欲解요 色急<sup>15)</sup>者는 未解라

右는 陰陽竭盡部라

## 【校勘】

1) 不：『靈樞熱病』에는 앞에 ‘耳聾’ 두자가 더 있다.

2) 脾傷即中風 陰陽氣別離 陰不從陽 故以三分 候其死生：『脈經·卷六脾足太陰經病證第五』에는 ‘凡有所擊仆 若醉飽入房 汗出當風則傷脾 脾傷則中氣 陰陽離別 陽不從陰 故以三分 候死生’으로 되어 있다.

3) 而下：『大成本』·『中醫藥本』·『匯海本』·『文光本』·『校釋』에는 ‘而不’로 되어 있고,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第七』에는 ‘連’으로 되어 있다.

4) 俠陰：『傷寒』에는 없다.

5) 躁：『大成本』·『中醫藥本』·『匯海本』·『文光本』·『校釋』에는 ‘煩躁’로 되어 있다.

## 【註釋】

(1) 收：斂也, 거둘 수

(2) 陽熱甚 陰頗有寒者：陽이 勝한 때에는 熱이 심하고, 陰이 勝한 때에는 惡寒이 심한 것.<sup>108)</sup> \* 頗：偏也, 치우칠 과

(3) 厭：惡也, 싫을 염

(4) 三分(삼분)：陽氣의 亢進 정도를 強中弱으로 三分한 것.

(5) 候：訪也, 물을 후

(6) 欬逆上氣(해역상기)：기침이 나면서 숨찬 증.

(7) 脈散(맥산)：浮하면서 虛大하고 흩어져 모이지 않아 뿌리가 없으며, 去來가 분명하지 않아 搏動數가 일정하지 않고, 搏動하는 일정한 줄기가 없고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 脈狀.

(8) 實(실)：實脈. 浮中沈候에서 손가락을 들거나 누르거나 모두 힘이 있는 脈狀.

(9) 譫語(섬어)：精神이 昏迷하여 터무니없는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음성이 높으며 힘이 있는 것.

(10) 鄭聲(정성)：의식이 흐리고 말소리가 낮고 뚜렷하지 않으며 한 말을 되풀이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譫語에 비하여 虛證에 속한다.

(11) 直視(직시)：환자가 精神이 똑똑하지 못한 情況下에서 두 눈으로 앞만 뚫어지게 보고 눈에 精氣가

없는 증상. 中風, 驚風, 癲癇 등의 병에서 나타난다.

(12) 喘滿(천만)：숨이 차면서 가슴속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

(13) 徐：遲也, 더딜 서

(14) 至經(지경)：病到經<sup>109)</sup>과 같다. 到經은 상한에는 병이 7일째가 되어 太陽經病이 주행을 다한 것.

(15) 色急(색급)：色澤에 윤기가 없는 것. \* 急：窘也, 근색할 급

## 【國譯】

熱病에 어느 곳이 아픈지를 알 수 없고,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며, 입이 마른 것이, 陽이 우세할 때는 열이 심하다가, 陰이 우세할 때는 몹시 惡寒을 하면 이는 熱이 骨髓에 있는 것이니, 死證으로 치료할 수 없다.

熱病이 腎에 있을 때 환자가 갈증이 나고 입이 마르며, 舌苔는 焦黃하고 舌質이 붉고, 밤낮으로 끊임 없이 물을 마시려 하며, 배가 몹시 부풀어 오르나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눈에 精光이 없으면 死證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脾氣가 損傷되면 곧 風에 맞아 陰陽의 氣가 격리되어 陰이 陽을 쫓아가 牽制하지 못한다. 陽氣의 亢進을 強中弱으로 三分하여 그 生死의 豫後를 살핀다.

傷寒에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차고 散脈이 나타나면 죽으니 그 환자의 身形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傷寒에 설사를 하루 십여 차례 하는데 환자의 脈이 도리어 實하면 죽는다.

환자가 옆구리 아래에 평소부터 痞症이 있다가 아래로 배꼽을 끼고 아랫배까지 당기면서 아픈 것이 陰部로 들어가 生殖器에 이르면 이는 藏結이니 죽는다.

陽熱邪의 實하면 譫語를 하고 精氣가 虛하면 鄭聲을 하니 鄭聲은 같은 말을 거듭하는 것이다. 直視하면서 譫語하고 喘息을 하면서 가슴이 그득하면 죽고, 만약 설사를 해도 죽는다.

結胸證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煩躁症이 있으면 죽는다.

吐舌한 것이 아래로 말리면 死證이고, 타액이 아교

108)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736. “值陽勝之時則熱甚, 陰勝之時頗有寒者.”

10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72.

같으면 그 병이 낫기가 어렵다. 혀끝과 주변에 서서히 津液이 생기면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환자가 至經하여 잇입술에 血色이 있고, 脈이 정상화되면 병이 나오려는 것이고, 입술색에 윤기가 없으면 아직 낫지 않은 것이다.

以上은 陰陽竭盡의 부분이다.

【考察】

“脾傷即中風 陰陽氣別離 陰不從陽 故以三分 候其死生”에 대하여 『校釋』<sup>110)</sup> 등은 “脾氣가 손상되어 土가 虛하면 木이 橫行하여 肝風이 內動하고, 陰陽이 균형을 잃어, 陰이 陽을 제지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陽의 亢盛이 지나치면 死候에 속하고, 亢盛이 경미하면 아직 생존의 기회를 挽回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池田政一<sup>111)</sup>은 “脾의 精氣가 虛할 때 風에 맞으면 陰陽의 氣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陰氣가 虛하여 陽만 있게 된다. 이 상태를 關上의 三分의 部에서 脈으로 진찰하는 것이다. 右手關上의 三分의 部에서 살피면 浮하고 按壓하면 虛해지는 상태가 된다. 그 脈狀이 전체적으로 緩하면 치료하기 쉽지만 滑하고 힘이 있는 脈이라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脈經卷六第五』의 유사한 문장에 대하여 『精譯』, 『校釋』 등은 中氣를 병증이 아닌 中焦氣로 보고 “생사판단에 中氣, 陰氣, 陽氣의 세부분의 협조여부를 본다.”<sup>112)</sup>고 해석했다. 風은 陽邪에 속하므로 이것이 인체의 陽과 결합하여 陽이 지나치게 강해지는데 이를 牽制하는 陰氣와의 均衡與否가 豫後判斷의 關鍵이 된다.

【結論】

本章은 『靈樞熱病』과 『傷寒論』에서 인용된 문장이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출처가 분명치 않은데 이는 王叔和의 창작으로 보인다. 陰陽이 모두 고갈되어 죽는 證에 대해 논하였다.

110)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72. “脾氣損傷, 土虛則木橫, 肝風內動, 陰陽失調, 陰不制陽, 如果陽亢過極是屬死候, 稍亢的, 仍可挽回生機.”  
111) 池田政一 訓譯. 脈經. 東京. 谷口書店. 平成3. p.1567.  
11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98. “脾傷, 就出現中氣陰陽氣相互分離, 使陽不戀陰, 所以可根據中氣陰陽氣三部分的是否協調來診候其死生.”

本篇은 『素問平熱病論』, 『靈樞熱病』 그리고 『傷寒論第七第八第十二』 등에서 인용된 것이다. 陰陽交와 少陰厥陰陰陽竭盡의 病因病機辨證요점과 豫後에 대해 설명한다. 熱病의 豫後는 邪正盛衰에 주로 근거하는데 가령 땀이 난 뒤에도 곧 열이 나고, 먹지 못하고, 혹은 땀이 났는데 脈이 오히려 빠르고 힘이 있는 것은 모두 邪氣가 세차고 正氣가 衰弱한 것으로 豫後가 불량하다. 단 并陰과 并陽의 경우는 치료할 수 있다. 寒證인 少陰厥陰證은 陽氣의 회복여부를 厥逆症에 근거하여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少陰病으로 四逆惡寒, 踰臥, 脈不至者는 죽고, 惡寒踰臥해도 手足溫者와 옷을 벗으려하는 자는 치료할 수 있다. 종합하면 陰證에서는 陽氣를 중시하여 陽이 회복되면 살고, 陽이 끊어지면 죽는다. 陽證에서는 精氣를 중시하여 精이 勝하면 살고 精이 고갈되면 죽는다.

重實重虛陰陽相附生死證 第十九  
(重實 重虛 陰陽相附 等の 豫後 제19)

【原文】

問曰 何謂虛實對曰 邪氣盛則實也 精氣奪則虛也 重實者 肉<sup>1)</sup>大<sup>2)</sup>熱病하고 氣熱 脈滿이 是謂重實이라 問曰 經絡俱實은 何如對曰 經絡皆實은 是寸脈急<sup>1)</sup>而尺<sup>3)</sup>緩<sup>2)</sup>也<sup>3)</sup>라 皆當俱治니 故曰 滑則順<sup>4)</sup>이요 澹則逆이라 夫虛實者는 皆從其物類始<sup>4)</sup><sup>5)</sup>하니 五藏骨肉이 滑利<sup>5)</sup>면 可以長久라 寒氣暴上하야 脈滿實<sup>6)</sup>하니 實而滑하고 順則生이요 實而澹하고 逆則死<sup>6)</sup>라 形虛滿하고 脈急大堅하고 尺滿<sup>7)</sup>而不應에 順則生하고 逆則死하니 所謂順者는 手足溫하고 所謂逆者는 手足寒也라

問曰 何謂重虛對曰 脈虛氣虛<sup>8)</sup>尺虛가 是謂重虛也<sup>9)</sup>니 所謂氣虛者는 言無常也요 尺虛者는 行步匡然<sup>10)</sup><sup>7)</sup>也요 脈虛者는 不象陰<sup>8)</sup>也라 如此者는 滑則生하고 澹則死라 氣虛者는 肺虛也면 氣逆하야 足寒也<sup>11)</sup>라 非其時<sup>9)</sup>則生이나 當其時則死하니 餘藏도 皆如此也라

脈實滿하고 手足寒하고 頭熱者는 春秋則生이

요 冬夏則死<sup>(10)</sup>라 脈浮而濇하고 濇而身有熱者是 死라 絡氣不足하고 經氣有餘면 脈熱而尺寒하니 秋冬爲逆이요 春夏爲順이라<sup>(11)</sup> 經虛絡滿者是 尺熱滿而寒濇<sup>(12)</sup>이니 春夏死요 秋冬生이라 絡滿經虛는 灸陰刺陽<sup>(12)</sup>하고 經滿絡虛는 刺陰灸陽이라 問曰 秋冬엔 無極<sup>(13)</sup>陰하고 春夏엔 無極陽은 何謂也요 對曰 無極陽者是 春夏에 無數<sup>(14)</sup>虛陽明이니 陽明虛則狂이요 無極陰者是 秋冬에 無數虛太陰이니 太陰虛則死라

右는 重實重虛部라

熱病에 所謂陽附<sup>(15)</sup>陰者是 腰以下至足熱하고 腰以上寒이니 陰氣下爭이요 還<sup>(16)</sup>心腹滿者是 死라 所謂陰附陽者是 腰以上至頭熱하고 腰以下寒하니 陽氣上爭이요 還得汗者是 生이라

右는 陰陽相附部라

#### 【校勘】

1) 肉：『素問通評虛實論』에는 ‘言’으로 되어 있고, 『校釋』, 『精譯』,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內’로 되어 있다.

2) 大：『黃本』, 『校釋』, 『精譯』,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有’로 되어 있다.

3) 尺：『校釋』, 『大成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尺內’로 되어 있고, 『廣本』, 『精譯』, 『錢本』에는 ‘尺脈’으로 되어 있다.

4) 始：『廖本』, 『錢本』, 『黃本』, 『朱本』, 『張本』, 『精譯』에는 모두 ‘治’로 되어 있다.

5) 利：『校釋』, 『匯海本』, 『文光本』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6) 實而滑順則生 實而濇逆則死：『素問』에는 ‘實而滑則生 實而逆則死’로 되어 있다.

7) 滿：『素問』에는 ‘濇’으로 되어 있다.

8) 脈虛氣虛：『素問』에는 ‘脈氣上虛’로 되어 있다.

9) 也：『校釋』, 『錢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없다.

10) 匡：『校釋』, 『錢本』, 『精譯』, 『大成本』, 『中醫藥本』에는 厖으로 되어 있고, 『素問』에는 匡으로 되어 있다. \* 厖：偃僕, 급추 왕 \* 匡：怯也, 겁낼 광

11) 氣逆 足寒也：底本에는 ‘氣逆者 足寒也’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지 않아 ‘者’를 뺐다. 張琦 역시 ‘者’와 ‘也’를 모두 衍文으로 보았다.<sup>113)</sup>

12) 寒濇：『校釋』, 『大成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脈寒濇’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急(급)：急脈. 『診家正眼』에 ‘緊脈의 다른 명칭이다.’<sup>114)</sup>고 하였다.

(2) 尺(척)：尺膚, 魚際에서 尺澤까지의 皮膚.

(3) 緩：舒也, 늘어질 완

(4) 順：從也, 도리에 따를 순

(5) 其物類始(기물류시)：物類는 五臟이 내부에 있고, 皮肉筋脈骨은 외부에 있어 五臟과 합하여짐을 말하는 것이고, 始는 先見함을 뜻한다.<sup>115)</sup> \* 物：萬物, 만물 물 \* 類：同類, 같은 무리 유

(6) 脈滿實(맥만실)：脈狀이 손가락에 가득히 차고, 浮沈에 모두 힘이 있는 것이니 곧 脈이 大實한 것이다.

(7) 匡然(광연)：비틀거리는 모양. \* 匡：斜枉, 비뚤 광 \* 然：如也, 듯 연

(8) 不象陰(불상음)：沈按하면 空虛하여 陰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sup>116)</sup> \* 象：現像, 징후 상

(9) 其時(기시)：時令의 克을 받는 때.

(10) 春秋則生 冬夏則死(춘추즉생 동하즉사)：봄·가을에는 陰陽이 和平한 기후로 그 和氣를 얻으므로 살 수 있고, 여름·겨울은 陰陽이 偏勝한 시기이니 여름에는 陽이 극성하고 겨울에는 陰이 극성하게 되므로 죽는다.<sup>117)</sup>

11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25. 3卷.

114) 成百萬, 朴炅. 脈經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2003. 7(1). p.18. 成에 따르면 急脈의 體狀에 대해서 논한 文獻은 없고, 『脈經』을 引用하여 脈이 洪大緊急한 것은 病的 進展이 빠르며 밖에 있다고 하였다.

11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27. 3권.

11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75. “就是沈按空虛 不象陰脈.”

117)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434. “脈之實滿邪有餘也 手足寒者 陰逆在下 頭熱者 陽邪在上 陰陽乖離 故爲上實下虛之病. 春秋 爲陰陽和平之候 得其和氣 故 可以生.”

(11) 秋冬爲逆 春夏爲順(추동위역 춘하위순) : 絡脈은 表部에 있어서 陽을 주관하고, 經脈은 裏部와 통하여 陰을 주관한다. 陽虛하면 陰이 勝하는 시기를 싫어하므로 가을·겨울은 逆이 되고, 봄·여름은 從이 된다.<sup>118)</sup>

(12) 灸陰刺陽(구음자양) : 絡은 陽, 經은 陰을 주관하므로 여기서 陽은 絡, 陰은 經을 뜻한다. 灸는 補하는 것이고, 刺는 瀉하는 것이다.

(13) 極 : 盡也, 다할 극

(14) 數 : 頻數, 자주 삭

(15) 附 : 依附, 의지하여 따를 부

(16) 還 : 歸也, 돌아올 환

【國譯】

문기를 “무엇을 虛實이라 하는가?” 답하기를 “邪氣가 旺盛한 것이 實이고, 精氣가 부족한 것이 虛다. 重實은 肌肉이 붓고, 열이 나고, 호흡의 氣가 뜨겁고, 脈이 손가락 가득히 搏動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經과 絡이 모두 實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답하기를 “經絡이 모두 實하면 寸口脈이 急하고 尺膚는 弛緩된다. 經과 絡을 모두 함께 치료해야 하니 脈이 滑하면 順證이고 濇하면 逆證이라 한다.” 무릇 虛實이란 것은 그 事物의 종류를 따라 비롯하는 것이니 五臟과 骨肉의 機能이 원활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寒氣가 급격히 치밀어 올라 脈이 손가락 가득하게 차고 實할 때, 實하면서 滑하고 證과 脈이 相應하면 살고, 實하면서 濇하고 證과 脈이 相反되면 죽는다. 몸 전체가 부어오르고, 脈狀이 急大하면서 堅하고 尺膚는 부어올라 脈이 응하지 않을 때, 順證이면 살고, 逆證이면 죽으니, 소위 順인 경우는 손발이 따뜻하고 逆인 경우는 손발이 차다.

문기를 “무엇이 重虛인가?” “脈이 虛하고, 氣虛하며, 尺虛한 것을 重虛라 한다. 氣虛는 말에 비정상적으로 힘이 없고, 尺虛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脈虛는 沈按했을 때 空虛하여 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脈狀이 滑하면 살고, 濇하면 죽는다.

冬夏 爲陰陽偏勝之時 陽劇於夏 陰劇於冬 故 死.”

118)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432. “絡脈在表, 主乎陽也, 經脈通裏, 主乎陰也. 陽虛者畏陰勝之時, 故秋冬爲逆, 春夏爲從.”

氣虛의 증상으로 예를 들어 肺가 虛한 것은 氣逆하여 발이 차다. 병을 얻었을 때가 時令의 克을 받는 때가 아니면 살고, 克을 받을 때이면 죽으니 나머지 臟도 이와 같다.

脈이 實滿하고, 손발이 차고, 머리에 열이 나는 경우, 봄·가을에는 살고, 겨울·여름에는 죽는다. 脈이 浮하면서 濇하거나, 脈이 濇하면서 몸에 열이 있으면 죽는다. 絡氣가 부족하고 經氣가 有餘한 사람은 脈에는 熱證의 脈象이 나타나고 尺膚는 汗穰하니, 가을·겨울에는 逆證이요 봄·여름에는 順證이다. 經이 虛하고 絡이 充滿한 경우엔 尺膚에 열이 나면서 팽창하고, 脈은 寒象인 濇脈이 나타나니, 봄·여름에는 죽고 가을·겨울이면 산다. 絡脈이 充滿하고 經脈이 虛할 때는 經에 뜬을 뜨고 絡에 刺針하고, 經脈이 充滿하고 絡脈이 虛할 때는 經에 刺針하고 絡에 뜬 뜬다. 문기를 “가을과 겨울에는 陰으로 하여금 매우 虛하게 하지 말고 봄과 여름에는 陽으로 하여금 매우 虛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하기를 “陽을 虛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봄·여름에 자주 陽明을 虛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니 陽明이 虛하면 狂證이 발생한다. 陰을 虛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가을·겨울에 太陰을 자주 虛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니 太陰이 虛해지면 죽기 때문이다.”

以上은 重實重虛 부분이다.

熱病에 陽附陰이란 허리에서 아래로 발까지 열이 나고, 허리 이상은 寒冷한 것으로, 이는 허리 아래에서 陰氣가 陽氣와 다투기 때문에 下熱上寒이 된 것이니, 이 다투던 陰陽氣가 되돌아 상행하여 心腹部가 脹滿해지면 죽는다. 陰附陽이란 허리 위로 머리까지는 열이 나고 허리 아래로는 차가워지는 것으로, 이는 허리 위의 陽氣가 陰氣와 다투기 때문에 上熱下寒이 된 것이니, 이 다투던 陰陽氣가 되돌아 하행하여 몸에서 땀이 나게 되면 산다.

以上은 陰陽相附 부분이다.

【考察】

“經絡皆實 是寸脈急而尺緩也”에서 ‘尺’이 『校釋』·『大成本』등에는 ‘尺內’로 되어 있어 尺膚로 해석했고,

『廣本』、『精譯』등에는 ‘尺脈’으로 되어 있다. 尺膚는 魚際에서 尺澤까지의 皮膚로 皮膚의 潤澤과 肌肉의 彈力을 보는 診斷부위인 반면, 寸關尺의 尺部는 함축하는 바가 다르다. 經과 絡의 虛實을 설명하고 있는 文脈으로 볼 때 寸口의 脈은 經을 반영하고 尺膚의 상태로 絡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校釋』 등의 해석이 합당하다.

“氣虛者 肺虛也 氣逆者 足寒也 非其時則生 當其時則死 餘藏 皆如此也”는 『素問通評虛實論』에서 원래 “問曰 何謂虛實 對曰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帝曰 虛實 何如”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虛實에 대한 개괄에 속한다. 여기서 氣虛의 증상으로 肺臟虛의 예를 들고 나머지 臟도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肺虛하면 肅降기능이 약해져 氣가 逆上하고 足寒症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逆者 足寒也’를 ‘氣虛者 肺虛也’와 맺구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張琦<sup>119)</sup>도 “氣逆者 足寒也”의 ‘者’와 ‘也’를 모두 衍文으로 보았다.

#### 【結論】

本篇은 『素問通評虛實論』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虛實을 강령으로 하여 重虛·重實·經滿·絡虛·絡滿·經虛·經絡俱實의 특징과 豫後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正氣가 虛하지 않으면 順證이나, 正氣가 虛하면 그 병은 낫기 어렵고, 邪氣가 盛하면 病이 重하고, 邪氣가 가벼우면 낫기 쉬우며, 脈과 證이 서로 부합하면 쉽게 치료되고, 脈과 證이 서로 반대가 되면 逆證으로 治療하기 어렵다. 사람과 四時陰陽이 상응하므로 時令을 결합하여 질병의 輕重과 生死를 판단한다.

## 熱病生死期日證 第二十

(熱病의 豫後 제20)

#### 【原文】

11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25. 3卷.

太陽之脈<sup>(1)</sup>에 色榮<sup>(2)</sup> 顛<sup>(3)</sup>骨은 熱病也니 榮未夭<sup>(4)</sup>면 曰今且<sup>(5)</sup>得汗하고 待時<sup>(6)</sup>自己<sup>(2)</sup>나 與厥陰脈<sup>(3)(1)</sup>爭見者는 死期不過三日이니 其熱病氣<sup>(4)</sup>內連腎<sup>(5)</sup>이라 少陽之脈<sup>(1)</sup>에 色榮頰<sup>(7)</sup>前은 熱病也니 榮未夭면 曰今且得汗하고 待時自己나 與少陰脈<sup>(1)</sup>爭見者는 死期不過三日<sup>(6)</sup>이라

熱病七八일에 脈微小하고 病者溲血<sup>(8)</sup>하고 口中乾하면 一日半而死요 脈代<sup>(9)</sup>者는 一日死라

熱病七八일에 脈不<sup>(7)</sup>躁喘<sup>(10)</sup>不數<sup>(8)</sup>하면 後三日 중에 有汗이어늘 三日에 不汗<sup>(9)</sup>하면 四日死라 未曾汗이면 勿膚刺<sup>(10)</sup>라 膚가 一作庸이라

熱病三四일에 脈不喘하고 其動均者는 身雖煩熱이나 今<sup>(11)</sup>自得汗이면 生이라 傳<sup>(12)</sup>에 曰始府入藏야야 終陰復還陽<sup>(11)</sup>이니 故로 得汗이라

熱病七八일에 脈不喘하고 其動均者는 生이라 微熱在陽하고 不入陰하니 今自汗也라

熱病七八일에 脈不喘動數均者는 病當瘡<sup>(13)</sup>이니 期三日에 不得汗하면 四日死라

熱病에 身面盡黃而腫하고 心熱<sup>(14)</sup>口乾하며 舌卷焦黃黑하고 身麻臭는 伏毒傷肺니 中脾者는 死라

熱病瘰癧<sup>(15)</sup>에 狂言不得汗하며 瘰癧不止는 伏毒傷肝<sup>(12)</sup>이니 中膽者는 死라

熱病에 汗不出거나 出不至足하고 嘔膽吐血하며 善驚不得臥는 伏毒在肝과 腑<sup>(13)</sup>足少陽者니 死라

#### 【校勘】

1) 夭 : 『黃本』·『校釋』·『大成本』·『中醫藥本』·『匯海本』·『文光本』에는 ‘和’로 되어 있고, 『素問刺熱論』에는 ‘交’로 되어 있다.

2) 自己 : 『素問』에는 ‘而已’로 되어 있다.

3) 陰脈 : 『廖本』에는 없다.

4) 氣 : 『素問』에는 없다.

5) 連腎 : 『素問』에는 뒤에 ‘少陽之脈色也’가 더 있다.

6) 『校釋』·『中醫藥本』·『匯海本』·『文光本』에는 문장 끝에 小字注로 ‘和一作夭’가 있다.

7) 不 : 『繆本』·『黃本』·『朱本』·『張本』에는 모두 ‘而’

로 되어 있다.

8) 喘不數 : 『靈樞熱病』에는 ‘躁不散數’으로 되어 있다.

9) 三日不汗 : 『繆本』엔 없다.

10) 膚刺 : 『靈樞』에는 ‘腠刺之’로 되어 있다.

11) 還陽 : 『校釋』,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陽’이 없다.

12) 肝 : 『黃本』, 『朱本』, 『張本』에는 모두 ‘肺’로 되어 있다.

13) 腑 : 『朱本』, 『張本』에는 ‘肺’로 되어 있다.

【註釋】

(1) 脈(맥) : 脈은 寸口脈과 經脈의 病,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寸口脈으로 말하면 太陽脈은 浮하고 厥陰脈은 弦而細하며, 經脈의 病으로 말하면 太陽病은 頭項部와 腰脊部가 아프고 뻣뻣하며, 厥陰病은 煩悶하여 그득하면서 음낭이 수축되는 것이다. 少陽脈은 弦하고 少陰脈은 沈而微하며, 少陽證은 胸脇이 아프며 耳聾하고 少陰證은 입과 혀와 목이 마르다.<sup>120)</sup> 이 文段에서 太陽之脈, 少陽之脈은 太陽, 少陽經病의 症狀이고, 厥陰脈, 少陰脈은 脈象으로 보아야 文章의 흐름에 맞는다. 즉 證脈相反이다.

(2) 色榮(색영) : 『校釋』에 ‘赤色이 나타나는 것(赤色發現)’으로 語譯했다.

(3) 顙 : 輔骨, 광대뼈 관

(4) 夭(요) : 윤기가 없이 까칠한 것.

(5) 今且(금차) : 이에 바로의 뜻이다. \* 今 : 卽也, 곧 금 \* 且 : 將也, 장차 차

(6) 時(시) : 本位旺盛之時,<sup>121)</sup> 가령 肝은 甲乙, 心은 丙丁, 脾는 戊己, 肺는 庚辛, 腎은 壬癸에 해당하는다.

(7) 頰 : 面兩旁, 뺨 곶

(8) 溲血(수혈) : 尿血.

(9) 代(대) : 代脈. 일정한 搏動數에 停止하는 脈狀.

(10) 喘(천) : 脈喘. 浮하면서 數한 脈狀.<sup>122)</sup>

(11) 今 : 若也, 만약 금

(12) 傳(전) : 未詳.

(13) 瘖 : 不能言病, 말 못하는 병 음

(14) 心熱(심열) : 心胸部에 熱이 나는 것.<sup>123)</sup>

(15) 痠(계종) : 痠는 근육이 땅기며 攣縮이 되는 것이고, 痠은 근육이 弛緩되어 늘어지는 것이다. 痠痠은 手足이 때때로 신축하며 痠攣이 그치지 않는 상태를 형용한 것이다.

【國譯】

太陽經脈의 病症이 나타나면서 關節부위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은 熱病이다. 붉은색에 아직 潤氣가 있으면 이에 바로 땀을 낼 수 있다고 하니, 太陽의 氣가 旺盛한 壬癸日이 되면 절로 나오나, 厥陰脈인 弦細脈이 다투어 나타나면 3일이 지나지 않아 죽는데, 그 熱病의 氣가 안으로 腎에 연계되기 때문이다. 少陽經脈의 病症이 나타나면서 뺨의 앞쪽으로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은 熱病이다. 붉은색에 아직 潤氣가 있으면 이에 바로 땀을 낼 수 있다고 하니, 少陽의 氣가 旺盛한 甲乙日이 되면 절로 나오나, 少陰病의 脈인 沈微脈이 다투어 나타나면 3일이 지나지 않아 죽는다.

熱病이 7~8일 되었는데 脈이 微細하고, 환자가 血尿를 보며 입안이 마르면 하루 반 만에 죽고, 脈이 代하면 하루 만에 죽는다.

熱病이 7~8일 되었는데 脈이 躁喘(지나치게 힘이 있고 浮數한 것)하지도 數하지도 않으면 3일 안에 땀이 나게 마련인데 3일 동안 땀이 나지 않으면 4일째에는 죽는다. 아직 땀이 나지 않았으면 皮膚에 刺針해서 안된다. 어떤 本에는 ‘膚’가 ‘庸’으로 되어 있다.

熱病이 3~4일 되었는데 脈이 喘하지 않고 그 박동

120)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503. “脈意有二: 以寸口之脈言, 則 太陽之脈浮, 厥陰之脈弦而細; 以經脈之病言, 則 太陽爲頭項痛, 腰脊強, 厥陰爲煩滿而囊縮...少陽之脈弦, 少陰之脈沈而微; 少陽之證爲胸脇痛而耳聾, 少陰之證爲口燥舌乾而渴.”

12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78.

122) 成百萬, 朴昞. 脈經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2003. 7(1). p.19.

123) 五臟熱 중 心熱은 달리 心氣熱이라고 불리고, 心氣나 心火가 왕성하여 얼굴이 붉고 가슴속에 煩熱이 나며 잘 때 불안해하고 이를 갈며 때로 헛소리를 하고 계속 웃으며 갈증이 있고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나며 소변이 누렇고 舌質은 붉다. 原文의 내용으로 볼 때 여기서의 心은 五臟의 心이 아니라 心胸部의 부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고르면 몸에 비록 煩熱이 나더라도 만약 절로 땀이 나면 산다. 傳에 말하기를 “腑에서 시작하여 臟으로 들어가고, 陰인 臟이 끝나면 다시 陽인 腑로 돌아가므로 땀이 난다.”고 하였다.

熱病이 7~8일 되었는데 脈이喘하지 않고, 그 박동이 고르면 산다. 輕微한 熱의 邪氣가 陽에 있고 아직 陰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곧 절로 땀이 나게 된다.

熱病이 7~8일 되었는데 脈이喘하지 않고 박동이 빠르면서 고르면 말을 못하게 되니 3일 안에 땀을 내지 못하면 4일째에는 죽는다.

熱病에 몸과 얼굴 전체에 황달이 생기고 부으면서, 가슴 속에 熱이 나고, 입이 마르고, 혀가 말리면서 舌苔가 焦黃黑색이고, 몸이 마비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潛伏한 毒이 肺를 傷한 것이니, 만약 脾로 들어가면 죽는다.

熱病에 경련이 일고, 狂言을 하며 땀이 나지 않고, 경련이 그치지 않는 것은 潛伏한 毒이 肝을 傷한 것이니, 毒이 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熱病에 땀이 나지 않고, 나더라도 발까지 이르지 않으며 담즙과 피를 토하고, 잘 놀라며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潛伏한 毒이 肝과 腑인 足少陽膽에 있는 것이니 죽는다.

#### 【考察】

“太陽之脈 色榮顴骨 熱病也 榮未夭 曰今且得汗 待時自己 與厥陰脈爭見者 死期不過三日 其熱病氣內連腎 少陽之脈 色榮頰前 熱病也 榮未夭 曰今且得汗 待時自己 與少陰脈爭見者 死期不過三日”은 『素問·刺熱論』에서 인용된 것으로 兩感證의 죽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素問·熱論』에 의하면 傷寒의 兩感證은 첫 날 太陽과 少陰이, 둘째 날 陽明과 太陰이, 셋째 날 少陽과 厥陰이 함께 병든다. 張景岳은 이에 대해 “太陽과 厥陰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太陽이 表部傳變의 시작이며 厥陰이 裏部傳變의 마지막이 되어 처음에 서부터 끝이 되고, 少陽과 少陰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少陽이 表部傳變의 끝이 되고 少陰이 裏部傳變의 시작이 되어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六經을 모두 거친 것이므로 陽明과 太陰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sup>124)</sup>고 하였다.

#### 【結論】

本篇은 『素問·刺熱』과 『靈樞·熱病』에서 주로 인용한 것이다. 陰陽이 모두 병이 드는 兩感과, 脈과 證이 상반되는 위험한 病證의 豫後에 대해 논하였다.

#### 熱病十逆死日證 第二十一

#### (熱病의 열 가지 逆證의 死期 제21)

#### 【原文】

熱病에 腹滿臌脹<sup>(1)</sup>하고 身熱者가 不得大小便하고 脈濇小<sup>(2)</sup>疾<sup>(3)</sup>하면 一逆<sup>(4)</sup>이 見이니 死라

熱病에 腸鳴<sup>(5)</sup>腹滿하고 四肢清<sup>(6)</sup>泄注<sup>(7)</sup>하고 脈浮大而洪이 不已면 二逆이 見이니 死라

熱病에 大衄不止하고 腹中痛하고 脈浮大絕<sup>(8)</sup>하고 喘而短氣<sup>(9)</sup>면 三逆이 見이니 死라

熱病에 嘔且便血하고 奪形肉<sup>(10)</sup>하고 身熱甚하고 脈絕<sup>(8)</sup>動疾<sup>(11)</sup>하면 四逆이 見이니 死라

熱病에 咳喘悸眩하고 身熱하고 脈小疾하며 奪形肉하면 五逆이 見이니 死라

熱病에 腹大而脹하고 四肢清하고 奪形肉하고 短氣면 六逆이 見이니 一旬<sup>(12)</sup>內에 死라

熱病에 腹脹便血하고 脈大時時小絶하고 汗出而喘하고 口乾舌焦하고 視不見人하면 七逆이 見이니 一旬에 死라

熱病에 身熱甚하고 脈轉<sup>(13)</sup>小하고 咳而便血하고 目眦<sup>(14)</sup>陷하고 妄言 手循衣縫<sup>(15)</sup>하며 口乾하고 躁擾不得臥하면 八逆이 見이니 一時<sup>(16)</sup>에 死라

熱病에 癩癢하고 狂走하고 不能食腹滿하고 胸痛引腰臍背하며 嘔血<sup>(17)</sup>하면 九逆이 見이니 一時에 死라

124)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504. “言太陽厥陰爭見者 太陽 爲傳表之始 厥陰 爲傳裏之終 自始而終也 此以少陽少陰爭見者 少陽 爲傳表之終 少陰 爲傳裏之始 自終而始也 言始言終 則六經無不遍矣 故不必言陽明太陰之爭見也”

熱病에 嘔血喘咳煩滿하고 身黃하며 其腹鼓脹  
(18)泄不止하고 脈絶<sup>(19)</sup>하면 十逆이 見이니 一時에  
死라

【註釋】

- (1) 臌脹(진창) : 脹滿證. \* 臌 : 肉脹起, 부어오를 진
- (2) 小(소) : 小脈. 小脈은 細脈으로, 脈의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감응되는 것이 분명한 脈狀.
- (3) 疾(질) : 疾脈. 數脈의 한 범주로 呼吸에 7~8회 박동하는 脈.
- (4) 逆(역) : 逆證. 병의 경과와 예후가 나빠진 證. \* 逆 : 逆理, 도리에 벗어날 역
- (5) 腸鳴(장명) : 腹鳴. 배속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 증. 脾胃가 虛하거나 寒濕, 濕熱, 濕痰 등이 있어서 생긴다.
- (6) 清 : 寒也, 잘 청
- (7) 泄注(설주) : 심한 설사. \* 注 : 水流射, 물 쏟을 주
- (8) 絶 : 甚也, 심할 절
- (9) 短氣(단기) : 呼吸이 빠르고 출입하는 기가 빨라 呼氣와 吸氣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 喘息과 비슷하나 어깨를 들먹이지 않고 호흡에 걸림과 痰이 끓는 소리가 없는 증상.
- (10) 奪形肉(탈형육) : 살이 빠져 초췌한 것. \* 奪 : 失也, 잃게 할 탈
- (11) 動疾(동질) : 박동이 빠른 것.
- (12) 旬 : 十日, 열흘 순
- (13) 轉 : 變也, 바꿀 전
- (14) 目眶(목광) : 眼眶, 눈두덩.
- (15) 手循衣縫(수순의봉) : 撮空尋衣와 같은 말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옷솔기를 어루만지는 증상.
- (16) 一時(일시) : 一時辰으로 현대의 2시간에 해당한다.
- (17) 嘔血(구혈) : 胃脘痛, 惡心 등의 위질환 증상에 이어 발생하며 암홍색이나 흑색의 血液이 나오며 때로 음식물의 殘渣가 섞인다.
- (18) 鼓脹(고창) : 脹滿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배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하고 단단하며 속이 비어 있어 마치 북과 같다 하여 鼓脹이라 한다.

(19) 絶(절) : 絶脈. 脈搏이 전혀 없어서 推法을 써 봐도 고요하여 脈狀이 나타나지 않는 것.

【國譯】

熱病에 腹部가 脹滿하고 열이 나는 환자가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脈이 濇細하다면 一逆이 나타난 것이니 죽는다.

熱病에 腸鳴과 腹滿이 생기고, 四肢가 차갑고, 심하게 설사가 나며, 脈이 浮大하면서 洪한 것이 그치지 않으면 二逆이 나타난 것이니 죽는다.

熱病에 많은 코피가 그치지 않고, 배가 아프고, 脈이 매우 浮大하며, 喘症과 短氣가 있으면 三逆이 나타난 것으로 죽는다.

熱病에 嘔逆을 하면서 血便을 보고, 온몸에 살이 빠지고 몸에 高熱이 나며, 脈이 매우 動疾하면 四逆이 나타난 것으로 죽는다.

熱病에 咳嗽와 喘症이 발생하고, 두근거리고 어지러우며, 몸에 열이 나고, 脈은 細疾하며 살이 빠지는 것은 五逆이 나타난 것으로 죽는다.

熱病에 腹部가 크게 脹滿하고, 四肢가 한랭하면서 몸이 마르고, 호흡이 빠르고 짧으면 六逆이 나타난 것으로 열흘 이내에 죽는다.

熱病에 배가 脹滿하고 血便이 나오고, 脈이 大하다가 때로 작았다가 끊어졌다가 하고, 땀이 나면서 喘症이 발생하고, 입이 마르고, 혀가 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七逆으로 열흘 만에 죽는다.

熱病에 열이 심한데 脈象은 도리어 小하고, 기침하면서 血便을 보고, 눈두덩이 움푹 꺼지고, 헛소리를 하며, 手循衣縫을 하며, 입이 마르고, 수족을 분주히 움직이면서 편히 누워있지 못하면 八逆이 나타난 것으로 一時辰 만에 죽는다.

熱病에 경련이 일어나고, 미쳐 날뛰고, 먹지 못하며 배가 그득하고 가슴에서 허리, 배꼽, 등이 당기면서 아프고 嘔血을 하면 九逆이 나타난 것이니 一時辰 안에 죽는다.

熱病에 嘔血하고, 喘息과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全身에 黃疸이 생기고, 腹部에 鼓脹이 생기며, 설사가 그치지 않고, 脈이 끊어지면 十逆이 나타난 것이니 一時辰 만에 죽는다.

## 【考察】

“熱病 大衄不止 腹中痛 脈浮大絕 喘而短氣 三逆見死”에서 『校釋』, 『中醫藥本』, 『精譯』, 『新解』 모두 ‘絶’을 絶脈이 아닌 太過의 의미로 해석했다.

“熱病 嘔且便血 奪形肉 身熱甚 脈絕動疾 四逆見死”에서 『校釋』, 『精譯』, 『新解』는 ‘脈弱動疾’로 해석하여 ‘絶’을 ‘끊어질듯 약한 脈象’으로 본 반면, 『中醫藥本』은 ‘脈動過於數疾’로 해석하여 ‘絶’을 ‘太過’로 보았다. 本篇은 逆證에 대한 篇이므로 證脈相反의 의미에서 太過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結論】

本篇은 熱病의 열 가지 逆證의 증상과 예후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개의 경우 脹滿證이 나타나는데 脹滿은 현대의 肝硬化腹水, 末期血吸蟲病, 腹腔內 惡性腫瘍, 結核性 腹膜炎 등으로 인한 腹水에 해당한다.<sup>125)</sup> 熱病의 과정 중에 肝脾腎 三臟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腹水가 차는 逆證으로, 여기에 각종 血證(衄血, 吐血, 便血)과 肝腎衰竭, 陰陽離絶로 인한 無尿, 神昏, 抽搦, 厥逆 등의 증상이 출현하고 있다.

熱病五臟氣絶死日證 第二十二  
(熱病에 五臟氣가 끊어졌을 때  
死期의 豫測 제22)

## 【原文】

熱病에 肺氣絶하면 喘逆欬唾血<sup>(1)</sup>하고 手足腹腫하고 面黃振慄<sup>(2)</sup>하고 不能言語하니 死라 魄與皮毛俱去 故로 肺先死하니 丙日에 篤<sup>(3)</sup>하고 丁日에 死라

熱病에 脾氣絶하면 頭痛嘔宿汁<sup>(4)</sup>하고 不得食하며 嘔逆吐血<sup>(5)</sup>하고 水漿<sup>(6)</sup>不得入하고 狂言譫語하고 腹大滿하고 四肢不收하고 意不樂하니 死라 脈與肉氣俱去 故로 脾先死하니 甲日에 篤하고 乙日에 死라

熱病에 心主<sup>(7)</sup>氣絶하면 煩滿骨痛 一作癩라

하고 噎腫不可咽<sup>(8)</sup>하고 欲欬不能欬하고 歌哭而笑하니 死라 神與榮脈俱去 故로 心先死하니 壬日에 篤하고 癸日에 死라

熱病에 肝氣絶하면 僵仆<sup>(9)</sup>足不安地하고 嘔血恐懼<sup>(10)</sup>하고 洒淅惡寒하고 血妄出하고 遺尿溺<sup>(11)</sup>하니 死라 魂<sup>(1)</sup>與筋血俱去 故로 肝先死니 庚日에 篤하고 辛日에 死라

熱病에 腎氣絶하면 喘悸吐逆하고 踵<sup>(2)(12)</sup>疽<sup>(13)</sup>尻癰<sup>(14)</sup>하고 目視不明하고 骨痛短氣喘滿하고 汗出如珠하니 死라 精與骨髓俱去 故로 腎先死하니 戊日에 篤하고 己<sup>(3)</sup>日에 死라

故<sup>(4)</sup>로 外見瞳子青小하고 爪甲枯하고 髮墮身濇하고 齒挺<sup>(15)</sup>而垢하고 人<sup>(5)</sup>皮面厚塵<sup>(16)</sup>黑하고 欬而唾血하고 渴欲數飲大滿<sup>(6)</sup>하면 此는 五藏絶의 表病也라

## 【校勘】

1) 魂 : 『朱本』, 『張本』에는 ‘魄’으로 되어 있다.

2) 踵 : 底本에는 ‘腫’으로 되어 있으나, 『黃本』, 『校釋』, 『錢本』, 『華夏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踵’으로 되어있고, 문맥상 발꿈치에 腫氣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踵’으로 고쳤다.

3) 己 : 底本에는 ‘巳’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己’가 맞으므로 고쳤다.

4) 故 : 『錢本』, 『校釋』,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없다.

5) 人 : 『黃本』, 『校釋』,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 『文光本』에는 ‘又’로 되어 있다.

6) 大滿 : 『校釋』, 『匯海本』, 『文光本』에는 ‘腹大滿’으로 되어 있고, 『大成本』, 『中醫藥本』에는 ‘腹大而滿’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咳唾血(해타혈) : 唾血은 가래와 피가 반씩 섞여 나오는 것이고 咳血은 기침과 함께 많은 양의 血液이 나오는 것으로 모두 肺出血이다.

(2) 振慄(진율) : 추운 감을 느끼면서 몸을 떠는 것. 戰(진)보다는 輕한것을 振이라고 하는데 몸이 허약한

125) 脾系內科學教室. 新脾系內科學.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p.246.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3) 篤：人疾甚，병 위태할 독

(4) 宿汁(숙집)：위장에 적체된 액체. \* 宿：止也, 머무를 숙 \* 汁：液也, 진액 집

(5) 吐血(토혈)：구역질 소리가 없이 피가 입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吐血이라 하고 구역질 소리와 함께 적은 양의 피를 토하는 것을嘔血이라 한다.

(6) 水漿(수장)：미음. 음료수.

(7) 心主(심주)：心包. 心은 邪氣를 받지 않고 心包가 대신 받으므로 心主이다.

(8) 咽：呑也, 삼킬 연

(9) 僵仆(강부)：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것. 擊仆(격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 僵：仆也, 엎드러질 강

(10) 恐懼(공구)：몹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11) 遺尿溺(유시뇨)：저도 모르게 대소변이 나오는 것.

(12) 踵：발꿈치 종

(13) 疽(저)：癰疽의 하나. 일반적으로 陰證, 寒證에 속하는데 癰에 비해 깊게 생기고 범위가 넓으며 잘 끓지도 잘 삭지도 않고 끓아터진 다음에도 잘 아물지 않으며 오래간다.

(14) 癰(옹)：몸의 길 층과 臟腑 등이 끓는 병증으로 疽에 비하여 열은 곳에 생기며 그 범위가 좁고 병의 경과가 빠르며 끓아터진 다음에는 잘 아무는 것이 특징이다.

(15) 齒挺(치정)：이가 잇몸에서 약간 들떠서 나온 것. 齒牙挺出과 같은 뜻. \* 挺：拔也, 뽑을 정

(16) 塵：塵垢, 때 낄 진

【國譯】

熱病에 肺氣가 끊어지면 喘息과 上氣가 생기고 기침하며, 唾血이 나오고, 손발과 배가 모두 붓고, 얼굴이 황색으로 변하고, 추워서 몸을 떨며, 말을 하지 못하니, 죽는다. 魄과 皮毛의 氣가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肺氣가 먼저 斷絶된 것으로 診斷하니, 丙日에 위독해지고, 丁日에 죽는다.

熱病에 脾氣가 끊어지면 머리가 아프고, 위장에 적

체되었던 宿汁을 토하고, 먹지 못하고, 구역질하며 吐血을 하며, 미음도 먹지 못하고, 狂言이나 謔語를 하고, 배가 심하게 脹滿하고, 사지를 가누지 못하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 죽는다. 脈氣와 肉氣가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脾氣가 먼저 斷絶된 것으로 診斷하니, 甲日에 위독해지고, 乙日에 죽는다.

熱病에 心主의 氣가 끊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뼈마디가 아프고, 어떤 本에는 ‘骨痛’이 ‘癭’로 되어 있다. 목구멍이 부어서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노래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이어서 웃기도 하니, 죽는다. 神과 榮氣와 血脈이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心氣가 먼저 斷絶된 것으로 診斷하니, 壬日에 위독해지고, 癸日에 죽는다.

熱病에 肝氣가 끊어지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땅을 딛고 온전하게 걷지 못하며, 嘔血을 하고, 몹시 두려워하며, 찬물을 뿌린 듯 추워하고, 여기저기 출혈이 생기고, 대소변을 싸니, 죽는다. 魂과 筋과 血이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肝氣가 먼저 斷絶된 것으로 診斷하니, 庚日에 위독해지고, 辛日에 죽는다.

熱病에 腎氣가 끊어지면 喘息과 心悸가 생기고, 嘔吐를 하며, 발뒤꿈치에 疽가 생기고, 꿈무늬에 癰이 생기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骨節痛, 短氣, 喘息, 脹滿이 생기며, 구슬 같은 땀이 나니, 죽는다. 精과 骨髓가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腎氣가 먼저 斷絶된 것으로 診斷하니, 戊日에 위독해지고, 己日에 죽는다.

患者의 瞳孔이 파랗고 축소된 것, 손톱이 윤기 없이 마른 것,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몸에 윤기가 없이 까칠해진 것, 이가 들뜨면서 매가 낀 것, 피부와 얼굴에 두꺼운 매가 끼어 검은 것, 기침하면서 吐血을 하는 것, 갈증이 나서 자주 물을 마시는 것, 腹部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그득한 것 등은 五臟의 氣가 끊어진 것이 길으로 드러나는 병증이다.

【結論】

本篇은 熱病으로 인해 五臟의 氣가 끊어졌을 때의 臨床症狀과, 四時五行의 生剋制化 법칙을 결합하여 熱病의 豫後를 분석하였다. 相剋에 해당하는 陽干日에는 病情이 위독해지고, 陰干日에는 죽는다. 예를 들어 肺는 金에 속하고 火가 金을 극하므로, 肺氣가

끊어지면 陽干인 丙日에 위독해지고 陰干인 丁日에 죽는다.

熱病至脈死日證 第二十三  
(熱病의 至脈으로 보는 豫後 제23)

【原文】

熱病에 脈四至<sup>(1)</sup>면 三日에 死하니 脈四至者는 平人一至에 病人脈이 四至也라

熱病에 脈五至면 一日死요 時一大<sup>(2)</sup>至면 半日에 死요 忽忽<sup>(3)</sup>悶亂<sup>(4)</sup>者도 死라

熱病에 脈六至면 半日死라 忽急<sup>(5)</sup>疾大至면 有頃<sup>(6)</sup>死라

【校勘】

- 1) 忽忽(홀홀) : 『華夏本』에는 ‘忽急’으로 되어 있다.
- 2) 忽急(홀급) : 『校注』, 『校釋』, 『中醫藥本』에는 ‘忽忽’로 되어 있고, 『楊本』, 『廖本』, 『朱本』, 『張本』에는 ‘急忽’로 되어 있다.

【註釋】

- (1) 至(지) : 脈이 搏動하는 것이다.
- (2) 大(대) : 大脈. 浮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힘이 있으나 沈取하면 힘이 없는 脈象.
- (3) 忽忽(홀홀) : 황홀한 모양. \* 忽 : 不省事, 잊을 홀
- (4) 悶亂(민란) : 마음이 우울하고 어지럽다. \* 悶 : 心煩鬱, 속 답답할 민
- (5) 頃 : 잠깐 경

【國譯】

熱病에 脈이 四至하면 3일 만에 죽으니 四至란 정상인이 한 번 脈이 났을 때 환자의 脈이 4번 뛰는 것이다.

熱病에 脈이 五至하면 1일 만에 죽고 때로 한 번 大脈으로 박동하면 반일 만에 죽는다. 만일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지러워도 죽는다.

熱病에 脈이 六至하면 半日 만에 죽는다. 脈搏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大脈으로 搏動하면 곧 죽는다.

【結論】

本篇은 至脈의 횟수로 熱病의 死期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였다.

熱病損脈死日證 第二十四  
(熱病의 損脈으로 보는 豫後 제24)

【原文】

熱病에 脈四損이면 三日에 死하니 所謂四損者는 平人四至에 病人脈이 一至니 名曰四損이라

熱病에 脈五損이면 一日에 死하니 所謂五損者는 平人五至에 病人脈이 一至니 名曰五損이라

熱病에 脈六損이면 一時에 死하니 所謂六損者는 平人六至에 病人脈이 一至니 名曰六損이라 若絶不至<sup>(1)</sup>커나 或久乃至면 立<sup>(1)</sup>死라

治傷寒形證에 所宜進退<sup>(2)</sup>를 晉王叔和가 集仲景評脈要論이라<sup>(2)</sup>

【校勘】

- 1) 至 : 『黃本』에는 止로 되어 있다.
- 2) 治傷寒 이하의 문장은 『錢本』, 『黃本』, 『校釋』, 『文光本』, 『大成本』, 『中醫藥本』, 『匯海本』에는 없다.

【註釋】

- (1) 立 : 速意, 곧 입
- (2) 進退(jìntuì) : 나가야 할 때는 나가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는 것.

【國譯】

熱病에 脈이 四損이면 3일 만에 죽으니, 四損이란 정상인이 脈이 4번 박동할 때 환자의 脈이 한 번 박동하는 것을 말한다.

熱病에 脈이 五損이면 하루 만에 죽으니, 五損이란 정상인이 脈이 5번 박동할 때 환자의 脈이 한 번 박동하는 것을 말한다.

熱病에 脈이 六損이면 一時辰 만에 죽으니, 六損이란 정상인이 脈이 6번 박동할 때 환자의 脈이 한 번 박동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脈이 끊어져 박동하지

않거나 오래 있다가 다시 박동하면 곧바로 죽는다.

本篇은 傷寒의 形證을 치료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晉의 王叔和가 仲景이 脈의 요점에 대하여 論評한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考察】

『難經14難』에는 脈搏이 정상에 비해 增加한 것이 至脈이고 減少한 것이 損脈이다. 『脈經』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상인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에 따라 熱病의 死期를 判斷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結論】

本篇은 損脈의 횡수로 熱病의 死期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였다. 환자의 脈搏횡수와 정상인을 비교하여 정상인에 비해 환자의 脈搏이 감소하는 多少로 熱病의 死期를 판단하고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嚴詳燮. 脈經卷之九 婦人小兒脈法에 대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2. p.6.
2. 呂成源. 金匱要略 婦人妊娠脈證并治第二十에 대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5.
3. 金泳泌. 脈經卷七 第一~八篇에 對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6. p.59, 63.
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익산. 圓光大學校大學院. 2000. p.99.
5. 成百萬, 朴旻. 脈經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2003. 7(1). p.18, 19.
6. 羅慶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1995.

「단행본」

1. 何大任 校. 脈經.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1. p.212.
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98, 438, 444, 457, 464, 466, 467, 472, 475, 478.

3.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2, 274, 270, 282.
4. 陣欽銘. 脈經新解.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1996. p. 576, 599, 606, 614.
5. 李家庚 等. 脈經精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9.
6. 蔣力生 校注. 脈經.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7. 張琨 等校. 脈經. 中國醫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8. 吳承玉 等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p.318.
9. 王叔和 著.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10. 陣夢電 等編. 王叔和脈經.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6.
11. 錢熙祚 校. 王叔和 著. 脈經. 臺南. 大學書局. 1985.
12. 脾系內科學教室. 新脾系內科學.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p.246.
13. 王 水. 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14. 王 水.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15.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637, 644, 649, 652, 658, 1187.
16.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下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278.
1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3卷. 대구.金星印刷社. 2001. p.225, 227.
1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4卷. 대구.金星印刷社. 2001. p.44, 71.
1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7卷. 대구.金星印刷社. 2001. p.27.
2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2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577.
22. 李培生.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p.223.
23. 이원철. 傷寒疎解. 서울. 도서출판정담. 2003.
  24.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432, 434, 503, 504, 736, 737.
  25. 李 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26. 朴 炅.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p.160, 217, 320, 361.
  27.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2000.
  28.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86, 290. pp.92-95.
  29.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학교실. 산부인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9. p.311.
  30. Mark H. Beers 等. 머크매뉴얼 제17판. 서울. 도서출판한우리. 2003. p.21831.
  31. 김관우. 舍岩針法隨想錄. 대전. 도서출판초락당. 2006. p.32, 263.
  32. 池田政一 訓譯. 脈經. 東京. 谷口書店. 平成3. p.1437, 1439, 1567.
  33. 구봉오 등. 物理治療學概論 제5판. 서울. 대학서림. 2005. p.29.
  34. 윤석희 等譯.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949.
  35. 권대순. 常變東醫寶鑑. 대전. 周珉出版社. 2005. p.121.
  36. 李載熙. 本草講座. 원주. 醫方出版社. 2004.
  37. 廖育群 等.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3. p.783.
  3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90. p.21.
  39. 李熙昇.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2.
  40. 陳柱杓. 傷寒論用語辭典.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212.
  41. 張三植. 漢韓大辭典. 서울. 教育出版公社. 1997.
  42. 金赫濟 等. 漢韓明文大玉篇. 서울. 明文堂. 1992.
  43.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44. 謝 觀.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麗江出版社. 2001.
  4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46. 韓成仁 等. 中醫證病名大辭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47. 洪元植 等.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